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조 지 혜

초 록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눈 세 기혼여성들과의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교육의 관점으로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뤄진 세 여성들과의 만남을 연구의 맥락에서 다시 성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면의 치유와 대화,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의미 연관을 탐구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는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갖는가? 둘째,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는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를 갖는가?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며 이해해가는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하고 그 과정과 성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나는 내면의 치유를 가져오는 대화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과정이 교육적 만남의 존재론적 토대를 고찰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2013년부터 신앙의 교제 안에서 나눈 세 여성들과의 대화를 2015년 이후부터 연구화하면서, 나는 먼저 그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자의 회상일지를 통해 지난 대화 체험을 복원하고, 세 여성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고유한 생애의 맥락에서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상학의 개념을 활용하여 대화 체험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의 과정으로서 잠정적으로 개념화하였다. 내면의 치유와 대화가 어떠한 연관 속에 있는지 그 내적 관련성을 고찰하면서, 나는 주체와 타자의 대화를 통해 구현되는 ‘인격적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교육적 만남의 본질 또한 주체와 타자의 만남이라는 더 근원적인 존재 연관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와 교육은 존재론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대화 체험을 교육의 관심으로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치유적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주체-타자의 의미를 교육적 인간 형성의 지향 속에서 성찰해 보았다.

치유적 대화의 과정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돌봄이라는 인격적 관계 맺음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타인을 향한 관심은 타인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면의 상처에 대한 관심과 자각으로 이어졌다. 기다림과 머뭇거림의 시간을 존중하

며, 깊은 대화를 통해 존재자는 자신의 상처 입은 존재를 열어 보일 수 있었다. 이때 듣는 이는 상처를 고백하는 이를 향해 존재를 기울여 응답함으로써, 상처 입은 타인을 향한 응답의 책임을 지고자 하였다. 상처의 고백에 대한 응답은 사랑에 의존한 공감적 경청으로 표현되었는데, 이와 같은 고백과 응답의 대화를 통해 존재자는 자신의 깨어진 내면을 표현하고 수용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존재자는 상처 입은 존재와 삶에 대한 고백적 구술을 통해, 존재 깊숙이 자리한 상처와 고난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적 힘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깨어지고 상실된 실존 범주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채워감으로써, 치유적 대화는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삶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의 힘을 기르고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정립하는 과정은, 교육에서도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화 체험이었다.

나는 치유적 대화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을 내면성, 심층성, 내러티브성, 공감성, 윤리성의 다섯 차원에서 살펴보고, 각 속성들이 교육의 본질을 성찰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탐구하였다.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내면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통합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학습자를 조력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인간의 연약한 실존에 대한 공감과 정서적 돌봄을 바탕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깨어진 실존 범주를 이해하고 돌보며 인격적이고 윤리적 관계 맺음 속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치유적 관점의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격적 관계 맺음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은 두 인격 사이에서 서로의 존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화의 본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깨어진 실존 범주를 건강하게 회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인격적 주체-타자’로의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인격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타인의 인격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토대로 사랑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화와 교육의 존재론적 지향과도 맞닿아있다.

주요어 : 내면의 치유, 대화, 체험, 치유적 대화, 인격적 관계성, 존재론적 지향성

학 번 : 2006-21687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연구 방법	6
1) 연구의 맥락과 참여자	6
2) 자료화 및 글쓰기 과정	10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16
II. 이론적 배경	18
1. 내면의 치유와 대화	18
1) 무의식과 핵심 감정의 치유	19
2) 생각의 힘을 기르는 대화와 치유	21
3) 비언어적 대화와 치유	22
2. 현상학적 체험연구와 교육탐구	25
III.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29
1. 대화가 시작된 계기	30
1)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30
2) 참여자들과의 우연한 만남	38
2. 다니엘과 나눈 대화: 인식에서 존재로	41
1) 만남의 인연	41
2) 내면으로 향하기까지	44

3) 상처의 발견과 존재의 전환	52
4) 상처의 근원에 대한 이해	57
5)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연습	66
3. 마리아와 나눈 대화: 편견 없는 시선	72
1)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얼굴	73
2) 고백적 대화	77
3) 관계 속의 오해와 고립	82
4) 진심을 나누는 대화	90
5) 기도하는 미래	103
4. 안나와 나눈 대화: 기다림의 시간성	105
1) 신앙의 침체기	106
2) 회복의 시작	111
3) 더 깊은 상처의 근원으로	116
4) 다시 구술하는 과거의 상처	122
5) 온전한 회복으로 가는 길	128

IV. 상처의 근원과 치유적 대화 137

1. 상처의 근원에 대한 이해	138
1)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	138
2) 거주지 불안정	145
2.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	151
1) 타인과의 관계 형성	152
2) 상처에 대한 자각	156
3) 상처의 고백과 응답	161
4) 삶에 대한 이해와 존재의 회복	167

V. 치유적 대화의 교육학적 의미	174
1. 교육과 치유적 대화	174
1)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	175
2) 치유적 대화의 속성	180
2.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	191
1) 상호주체적 만남	191
2) 인격적 관계성	193
3) 인격적 주체-타자의 정립	195
 VI. 요약 및 결론	 200
 참고문헌	 205
 Abstract	 210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9
[표 2] 자료화 과정	13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가 진행된 맥락	8
[그림 2] 부재의 체험: 다니엘의 가족관계	140
[그림 3] 숨겨진 관계와 고통: 마리아의 가족관계	144
[그림 4] 방치된 체험: 안나의 가족관계	147
[그림 5]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	172
[그림 6] 치유적 대화의 속성과 존재론적 토대	19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었기에,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와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빠져나온 선장의 비인간성은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참사 이후에도 책임전가와 진실공방은 계속되었고,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미봉책처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되기도 하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난항을 거듭하며 그 누구도 정확한 사건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사태는 종결되었다. 시끄러운 정치적 공방 속에서 현 사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할 시간도 없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기억 뒤편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실의 고통은 살아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 사회는 왜 이러한 희생을 치러야 했을까?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우리는 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까? 나는 이러한 사태가 비단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근본적으로 세월호 참사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현대인들과 타인의 고통을 통해 오히려 이득을 취하려는 우리 사회의 혈벗은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는 타인에 대한 인격적 관계성이 점차 결여되고 있는 현 시대의 심각한 병폐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소외가 깊어질수록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고유한 인격으로서 '타인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은 더욱 절실해진다. 한 예로, 20세기 유럽 사회는 뼈아픈 전쟁의 체험들을 통해 현대 사회의 위기와 병폐에 직면하게 되었다. 두 차례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의 비인격화를 몸소 체험한 유대인 철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처한 실존적 위기를 절실히 느꼈다. 그들은 철학

적 성찰을 통해 시대적 아픔 이면에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고자 했다.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을 시작으로 전개된 현상학의 흐름은 현대 사회의 병폐가 근본적으로는 철학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성찰한다. 특히 후설은 실증주의 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정한 사태영역에만 타당한 존재 및 인식원리를 일반화시켜 모든 사태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이남인, 2004: 25)하려는 흐름들을 비판한다. 무차별적인 수량화, 객관화, 일반화의 시도는 인간의 삶 구석구석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사태의 고유한 본질구조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 문화적 측면의 인간 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이남인, 2004: 29-30).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직접 겪었던 포로수용소의 체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주체됨’과 ‘인간됨’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하였다. 그의 ‘타자 철학’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고통 받는 ‘타인의 얼굴’에 응답함으로써 진정한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통해 주체는 자신의 내재성을 초월하여 타자에게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주체와 타자의 윤리적 만남을 담고 있는 그의 타자 철학은 주체의 진정한 의미가 타자에 대한 윤리적 관계 속에서 실현됨을 제안한다.

도구적 가치, 상품적 가치로 인간을 평가하거나 수단화하는 사회 속에서는, 자신과 타인이 가진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망각하고 대상화, 익명화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쉽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풍토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한 사회를 형성하는 분위기는 사회 구성원의 실제적인 삶과 가치관,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지향에도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아픔과 그들의 고유한 인격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교육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인격적 관계성이 결여되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한 고민은 나의 개인적인 체험과도 연결되어 있다. 2014년 4월 3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2주 전, 나는 침몰하는 배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 나의 꿈에서, 한 여인의 장성한 아들이 배에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배가 파도에 흔들리면서 그림이 망가지고,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침몰하고 말았다. 나는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며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

고 강렬하여 당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그리고 2주 뒤, 그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악, 배 침몰. 얼마 전 지혜가 중보 올렸던 글이 불현듯 이어져요. 월요일 날 ‘기도하는 엄마들’ 리더 집사님이 물에 툭툭 붙은 남자 환상을 도 대체 새벽 기도 중에 왜 보여주셨나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도 떠오르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듣고도 절실히 중보하지 않은 게으름을 어찌 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세요.

다음 날, 나는 신앙의 교제를 나누던 그들과 함께 다급한 마음으로 모였다. 우리 중 한 사람의 지인의 자녀는 세월호에 탑승한 학생이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생존자들이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로 살아가던 우리들은 학생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꼈다.

실제로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깨어진 가족 관계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 부모의 폭력 속에 노출된 아이들, 친구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외로움 속에 있는 아이들, 학업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어머니’이자 교회의 ‘교사’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우리와 한 배에 타고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은 ‘신앙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나는 함께 모여 기도했던 몇 명의 기혼여성들과 신앙의 친구가 되어 내면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다양한 관계의 얽힘 속에 놓여 있는 우리는 ‘나와 너’라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현재의 나’를 형성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내면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발견과 고백을 나누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깨어진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하며, 점차 고유한 인격으로서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을 향해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과 나는 진실한 만남과 대화의 과정에서 인격적

관계의 깊이를 체험하였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타인을 향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 체험한 인격적 관계의 깊이는 참된 인간다움의 지향을 고민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영역에서 깊이 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 참된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지향 속에서, 내면의 치유와 인격의 회복에 대한 관심은 서로 떨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고유한 인격을 실현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 형성의 지향은 교육의 지향과도 긴밀하게 닿아 있다(조용환, 2012a; 2012b).

대화 속에서 실현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교육의 존재론적 토대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 본 연구에서는 대화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교육학적 탐구를 통해 대화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실현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의 깊이가 내적인 변화와 치유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치유의 내적 관련을 파악하고, 교육적 대화와 관계, 교육적 인간 형성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지난 6년간 세 명의 기혼여성들과 함께 나눈 대화 체험의 성격과 의미를 질적으로 탐구하고, 대화 체험에 대한 교육학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세 여성들과 나의 만남은 상처로 깨어진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내밀한 대화의 과정으로 나아갔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깊은 관계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러한 대화가 가진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대화는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뤄진 체험이었다. 이는 특정한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그들과 나 사이에 체험적이며 질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대화 체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나누었던 개인적인 대화를 연구자적 관심으로 재조명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가 된 세 명의 기혼여성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탐구하였다.

첫째,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는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갖는가?

나는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의 독특한 맥락을 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대화가 전개된 양상을 기술하고 그 안에 담긴 대화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대화 체험을 개념화하기에 앞서, 우리의 대화가 전개된 조건과 상황과 맥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난 6년간, 일상의 맥락, 신앙의 맥락, 연구의 맥락 속에서 나는 참여자들과의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탐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형성하였다.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는 어떠한 과정과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참여자별 대화가 갖는 독특성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대화 체험의 성격과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대화 체험의 맥락과 본질을 살린 질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화 체험의 본질적인 성격과 의미를 고찰하고,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를 어떠한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탐구하였다. 깊이 있게 전개된 대화는 내면의 치유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 것일까? 나는 체험적으로 존재하는 대화 체험을 연구자적 관심으로 탐구함으로써 대화의 본질적 성격과 의미를 고찰하고, 대화와 내면의 치유 사이에 있는 내적 관련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둘째,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는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를 갖는가?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치유하는 대화는 교육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 것일까? 나는 대화 체험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교육적 만남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정한 지식이나 가치를 매개하는 활동으로서 교육은 언어적, 비언어적 차원의 소통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학습자간, 혹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이뤄지는 '대화'는 교육이라는 활동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교육이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깊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화의 차원이 필요한 것일까?

나는 교육적 만남의 존재론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물음을 토대로, 위의 연구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상처를 나누고 치유하는 대화와 교육적 만남이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론적 연관은 무엇일까? 대화를 통해 실현되는 관계는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과 어떠한 관련을 가질까?

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체험의 교육

학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대화의 본질은 교육의 본질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 대화에서 체험한 관계의 깊이는 교육적 만남에 대해 어떠한 의미와 시사를 줄 수 있는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참다운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지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 속에서 대화 체험의 성격과 의미를 교육학적 관심으로 고찰하였다.

3. 연구 방법

1) 연구의 맥락과 참여자

(1) 연구가 진행된 맥락

참여자들과의 만남은 한 지역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 봄, 육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친정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나는 기존에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 한 지역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나는 20대~40대 기혼여성들이 모인 교회의 구역(소그룹) 모임과 전도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몇 명의 기혼 여성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처럼 참여자들과 나의 만남은 나의 일상적인 삶의 맥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 중 지금의 연구 참여자가 된 세 명의 기혼여성들과의 개인적인 대화가 시작된 것은 2013년 봄 무렵부터이다.

신앙 안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들과 나는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내밀한 마음의 상처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과 나는 대화의 과정 속에서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상처를 이해하고, 오랜 시간 느꼈던 존재의 고통을 치유하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다가가며 상처와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었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약 6년의 시간 동안, 나는 그들과 여러 삶의 고난들을 함께 통과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신앙의 교제 안에서 만난 세 여성들과의 만남을 연구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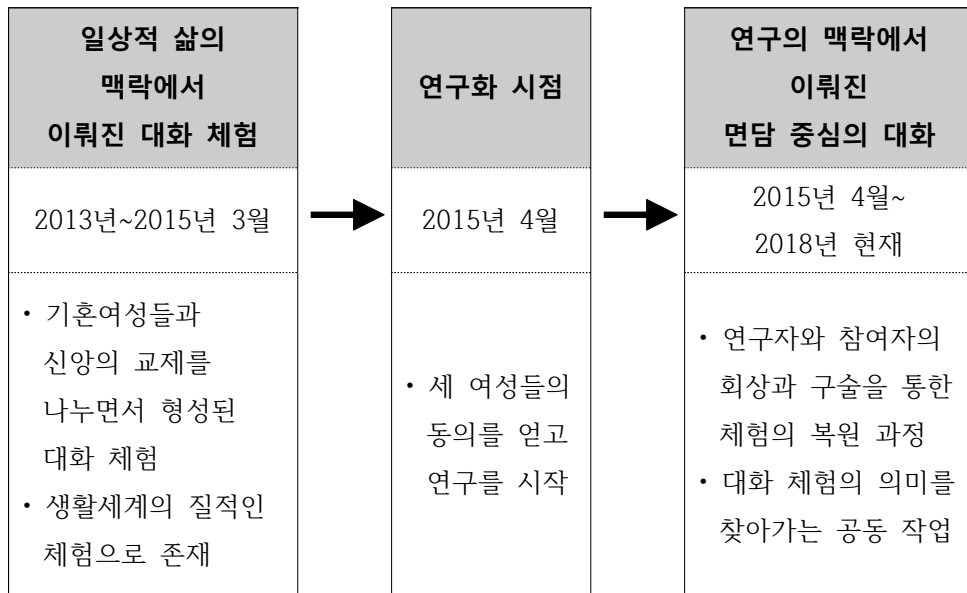
년 봄 무렵이다. 2015년 4월, 나는 생활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삶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자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들이 나누었던 삶과 그 안에서 깊이 있게 체험한 대화는 과연 어떠한 학문적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막연한 질문을 갖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 중, 가장 깊은 우정과 신뢰가 형성된 세 명의 기혼여성들에게 연구의 계획을 공유하고 연구에 대한 1차적인 동의를 얻었다. 참여자들 또한 우리가 나누는 삶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 하며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는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갖는가? 대화 체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처럼 세 여성들과 나누는 만남과 대화에는 생활세계로부터 연구의 맥락으로 옮겨지는 '이행의 과정'이 존재한다. 연구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현장을 탐구하는 연구와는 달리, 삶 속에서의 만남과 체험을 바탕으로 연구자적 관심과 물음이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2015년 봄, 연구를 시작하면서 나는 한 가지 고민에 부딪혔다. 2013년부터 세 여성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는 과거의 체험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과 나누는 지난 2년의 대화 체험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것은 이 연구의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했다. 나는 '회상'과 '구술'이라는 작업을 통해 대화 체험을 최대한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나와 참여자들의 삶 속에 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체험'을 상세히 회상하고 구술하면서, 이를 연구의 자료로 만들어가는 '자료화' 과정이었다.

나는 참여자들과 함께 지난 2년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참여자들의 전체 생애를 깊이 돌아보는 면담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닌,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만남의 지점과 의미를 찾아가는 중요한 구술의 과정이었다. 따라서 일상적 삶에서 이뤄진 '과거의 대화 체험'과 연구의 맥락에서 이뤄진 '면담 중심의 대화'는 본 연구에서 모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의 대화 체험은 2013년부터 2015년 봄까지,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삶 속에서 이뤄진 대화가 중심을 이룬다. 면담 중심의 대화는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구자와 참여자로서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면서 형성된 대화를 의미한다.



<그림 1> 연구가 진행된 맥락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연구화가 시작된 2015년 4월을 기점으로, 연구를 의도하지 않은 ‘삶의 맥락’과 연구자적 관심을 갖게 된 ‘연구의 맥락’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이뤄진 대화 체험을 모두 다루고 있다. 연구화 이전의 대화 체험은 특정한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은 질적인 체험이자 현상 그 자체로 참여자들과 나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화 이후의 면담은 참여자들과 함께 과거의 대화를 복원하고, 그들의 생애에 대한 구술 속에서 대화 체험의 위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공동 연구’의 과정이었다. 나는 이러한 공동 작업을 통해,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공감적 교류를 담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니엘, 마리아, 안나 세 명의 기혼여성들이다. 세 참여자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성경의 인물들로 가명을 만들다보니, 남성의 이름도 참여자들의 가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지역 교회에서 만난 세 명의 여성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두 명에서 네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모두 나보다 다섯 살 이상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며, 참여자 보호를 위해 참여자 정보는 최소한으로 담았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2018년 현재)

참여자 (여성)	나이	자녀	직업
다니엘	40대 초반	2명	초등학교 교사
마리아	40대 중반	2명	학습지 교사
안 나	40대 중반	4명	개인사업장 운영

초등학교 교사인 다니엘은 2013년 당시 허리와 목의 디스크로 휴직 중이었다. 그녀는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주일학교의 중·고등부 교사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나는 성경 지식에 대한 지적인 갈망이 컸던 다니엘과 우연한 계기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후에도 다니엘과 나는 가정의 일로 고난을 겪고 있던 마리아를 함께 돕는 과정에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다니엘과 나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신앙의 친구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니엘의 유년시절의 상처를 발견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현재 다니엘은 다시 학교에 복귀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학원 상담 전공에 진학하였다.

마리아는 우리가 만난 지역 교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정착하고 있던 참여자이다.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교회 사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 사역과 구역의 말씀강사, 예배찬양, 성극 등 수많은 사역의 집 속에서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 있던 마리아는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지는 고난을 겪었다. 마리아의 사정을 알게 된 나는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과정 속에서, 감출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속마음을 나누는 친구 관계로 발전하였다. 마리아는 학습지 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안나는 네 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작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정의 경제

를 주로 책임지고 있는 참여자이다. 동시에 교회의 어린이 사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구역의 말씀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당시 안나는 신앙의 침체기를 지나고 있었으며, 그녀와 나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안나와 나는 자주 만나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쌓으며 마음을 열어갔다. 그 과정에서 안나는 유년시절부터 부모에게 받은 뿌리 깊은 상처의 고통을 나누게 되었다. 상처의 아픔만큼 긴 시간의 회복이 필요했던 그녀의 삶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안나의 격려를 통해 나는 학업에 다시 복귀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두 참여자들과는 달리 연구에 오랜 시간 소극적이었던 안나를 기다리면서, 나는 질적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와 감수성을 배울 수 있었다.

교회에서 만난 몇 명의 다른 기혼여성들과도 내면의 아픔을 나눈 대화 체험들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처와 삶의 이야기가 많이 담길 수밖에 없는 본 연구의 성격상, 나는 깊은 우정과 신뢰를 쌓은 세 참여자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자료화 및 글쓰기 과정

본 연구는 과거의 대화 체험을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복원하는 작업과 참여자들의 생애에 대한 내러티브가 자료의 중심을 이룬다. 2015년 4월,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1차 동의를 받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나는 '연구자의 회상일지'라는 형식을 통해 2013년 봄부터 2015년 봄까지 지난 2년간 세 여성들과 나누었던 대화 체험을 1차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연구자의 회상일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검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별 개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회상일지와 참여자별 면담 자료를 토대로,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그들의 고유한 생애 안에서 기술할 수 있었다.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자 각자의 이야기만을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전달하고 참여자들에게 최종 검토를 받았다.

나는 자료화와 글쓰기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료화에 참여하고 연구물을 검토함으로써 체험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하

는 공동 연구로서의 의미를 살려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연구자가 자의로 연구 자료를 왜곡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했다. 나는 이러한 자료화 작업을 바탕으로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기술을 토대로 이후의 현상학적인 분석과 교육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1) 자료화 과정

가. 회상일지 작성

연구를 시작한 2015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7개월간, 나는 과거에 나는 2년의 대화 체험에 대한 회상일지를 작성하였다. 2013년부터 참여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수첩에 있는 간단한 메모를 바탕으로, 나는 참여자들과 만났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회상하여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중에서도 참여자들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는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나는 먼저 2013년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구체적인 일화들을 날짜와 시간, 장소, 분위기, 느낌, 대화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의 ‘회상일지’라는 형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복원하였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 회상 자료를 참여자별로 다시 정리하여, 참여자와 나의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가 담긴 인물별 회상일지로 재구성하였다.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담긴 형식으로 회상일지를 재구성하고, 참여자 각각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만을 전달하였다. 회상자료를 검토한 참여자들은 면담을 통해 연구자의 회상을 보충해 주었으며 부분적으로 잘못 회상하고 있는 기억들을 수정해 주기도 하였다.

나. 현지자료 수집

회상일지를 검토한 참여자들 중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일기나 기록을 나에게 건네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상이 담긴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 2015년 6월, 나는 회상일지를 참여자 다니엘에게 전해주면서 그녀와 이메일로 논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녀가 기록하고 있던 일기를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 주었다. 다니엘은 당시의 일상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동행일기”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기는 회상일지 작성을 연구자의 기억에 편중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현지자료가 되었다. 나는 다니엘의 동행일기를 살펴보면서, 당시 참여자가 표현하지 않았던 마음 속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질적 연구 실습수업을 통해 참여자 마리아에 대한 참여관찰과 면담을 수행하면서, 마리아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함께 수집하였다.

다. 참여자 면담

연구자의 회상일지 작성 후 참여자들과 개별 면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참여자들의 2차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개인의 생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연구인만큼, 참여자들이 계속하여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나는 참여자들이 연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연구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경우는 회상일지를 읽고 나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할 정도로 연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한 참여자이다. 마리아의 경우도 질적 연구 실습수업의 주 참여자가 되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안나의 경우는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였지만, 면담을 진행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 고민했던 참여자이다. 안나는 자신의 상처 입은 가족사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면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참여자 면담은 우리가 '연구자와 참여자'로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만남이었으며, 일상적 관계에서 연구적 관계로 전환되는 지점이었다. 나는 이러한 관계의 전환 과정에서, 참여자들과의 관계가 도리어 깨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며 속앓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의 흔들림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깊은 마음으로 우정의 관계를 이어가며 연구에 참여해 주었다.

최종적인 연구 참여에 대한 2차 동의 과정을 거치다보니, 참여자들과의 면담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연구자의 회상일지를 검토한 후 참여자들은 면담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난 체험을 구체적으로 구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회상일지는 참여자들이 과거의 체험을 떠올리도록 돕는 면담의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연구자의 회상일지와 참여자 면담은 연구자의 체험과 참여자의 체험이 교차하는 지점을 잘 보여주는 자료였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는 되도록 참여자들의 구

술에 개입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며 경청하는 태도로 면담을 수행했다. 나는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느낌과 생각, 표현되지 않았던 마음 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참여자 중심의 ‘비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하면서, 나는 참여자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되도록 생생하게 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지난 몇 년의 대화 체험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애 전체를 돌아보는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구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조명하였다.

처음에 나는 면담을 통해 과거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는 것만을 기대했지만, 면담의 과정은 체험의 복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과거의 대화를 회상하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참여자들은 분절되어 있던 체험들을 의미 있는 스토리로 구성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면담이 단순히 연구 자료의 수집을 위한 방법적 도구를 넘어, 삶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구성과 해석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면담은 우리가 과거에 나누었던 대화 체험과 분절된 것이 아닌 대화적 관계의 연장선에 놓여 있었다.

<표 2> 자료화 과정

	회상일지	현지자료 수집	참여자 면담
작업 기간	2015년 4월~ 2015년 10월	2015년 6월~ 2016년 6월	2016년 4월~ 2018년 7월
내용 및 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회상일지 작성 (총 141장) • 회상일지를 참여자별로 정리하여 전달, 참여자들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니엘과 주고받은 이메일 (총 8건) • 다니엘의 동행일기 (총 117장) • 마리아의 일상이 담긴 사진 (총 4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중심의 비구조화된 면담 • 다니엘 95분, 마리아 124분, 안나 186분 (음성녹음 자료) • 녹음 없이 수기로 남긴 면담 자료

(2) 글쓰기 과정

가. 대화 체험의 기술

월코트(Harry Wolcott, 1994)는 질적 연구의 데이터를 ‘기술 중심’, ‘분석 중심’, ‘해석 중심’으로 강조하여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기술 중심의 연구는 수집한 질적 자료를 되도록 생생하게 기술함으로써,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를 그들이 지낸 삶의 맥락을 살려 심층적이고 질적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글쓰기를 통해 나는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체험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속에 열어 두며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회상일지, 현지자료,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나는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체험을 그들의 생애 안에서 의미 있게 구성하고 기술할 수 있었다. 2017년 3월에는 다니엘에 대한 기술을 완성하고, 2017년 6월에는 마리아에 대한 기술을 완성했다. 만나에 대한 기술은 2018년 8월에 완성하였다. 나는 참여자별로 기술한 내용을 “○○○과 나는 대화”라는 제목의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우편으로 전해주고, 참여자들의 최종적인 검토를 받았다.

과거의 대화 체험과 생애를 현재의 시점에서 회상하고 기술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는 스토리로 재구성하여 기술하는 일련의 과정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기술 작업은 체험에 대한 연구자의 회상과 기록, 참여자의 회상과 기술, 연구자-참여자 공동의 재구성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체험을 구성하고 그 심층적 의미를 발견해 가는 내러티브 글쓰기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 나는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의 양상을 세 가지 흐름의 주제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참여자 다니엘의 경우는 ‘인식에서 존재로’ 향해 가며 유년시절의 상처를 발견하는 과정, 참여자 마리아의 경우는 ‘편견 없는 대화’를 통해 감춰진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는 과정, 참여자 만나의 경우는 ‘기다림의 시간성’을 통해 고통스러운 상처의 근원에 다가가는 과정이 기술의 중심 주제를 이룬다. 비교적 ‘열린 텍스트’로서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세 참여자들에게 ‘대화를 통한 치유의 체험’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정리하였다.

나. 분석과 해석

나는 막연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체험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지 오랜 시간 고민하였다. 연구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흐른 시점에서, 나는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치유적 대화’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잠정적인’ 개념화를 통해 보다 주제적인 관심을 갖고 대화 체험에 접근하면서, 대화 체험의 과정과 성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는 각 참여자들의 체험의 비교 속에서 대화를 구성하는 공통된 속성과 의미를 발견해갔다. 대화 체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면서, “막연하며 비주제적인 양상”으로 남아있던 체험의 본질을 보다 “명료하며 주제적인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이남인, 2004: 57).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4장에서는 대화 체험의 과정과 성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는 세 참여자들의 체험이 어떠한 맥락에서 차이를 갖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 참여자들의 체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체험의 본질적 의미와 속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체험의 본질에 대한 분석은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이뤄졌다. 나는 참여자들의 대화 체험을 내부적으로 비교하고, 이와 더불어 현상학자들의 문헌을 참고하면서 외부적인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상처의 근원을 발견해가는 대화의 과정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의식의 심층과 존재, 주체와 타자의 관계, 주체의 정립 등에 관한 현상학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셸러(Max Scheler, 1874~1928), 부버(Martin Buber, 1878~1965),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렇다면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은 어떠한 교육학적 의미를 갖는가?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대화 체험을 교육학적 관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가 교육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 교육학적 해석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고 깨어진 인격을 회복하는 대화는 교육과 어떠한 존재론적 관련 속에 놓여 있는가? 나는 이러한 탐구의 과정에서 치유적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화의 속성들과 그 존재론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깊이 있는 대화의 과정이 교육적 만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 형성의 지향과는 어떠한 의미 연관을 가질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체험의 성격과 의미를 숙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 만남의 존재론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자의 삶의 맥락으로부터 시작된 본 연구는 개인적인 대화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례성을 지닌다. 이러한 사례성에서 출발하여 대화와 치유, 교육에 관한 일반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 나는 세 참여자들의 체험을 비교 검토하고 체험의 공통된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사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과의 대화 체험은 그 자체만으로 보편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제한된 맥락 속에서 이뤄진 체험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참여자와 나는 30~40대 기혼여성이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기성세대와 자녀세대 사이에 놓인 30~40대 기혼여성의 정체성은, 여전히 부모의 자녀로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기성세대로 진입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놓여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중간세대로서의 내적 갈등과 독특성을 잘 보여준다. 참여자들과의 대화는 이러한 집단과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참여자들과 나의 대화를 공감적 토대 위에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왔다.

그렇다면 다른 세대와 성별, 다른 삶의 배경에 있는 집단과는 어떠한 대화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는 참여자들과의 대화가 전개된 양상과는 어떠한 차이를 지닐까? 본 연구에서 탐구한 대화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앞으로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사례성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의 내면에서 발견한 상처의 근원은 그녀들의 고유한 삶의 맥락 속에서 형성된 체험이었다. 그렇기에 참여자들의 내적 상처들이 다른 이들과 어떠한 공감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화 체험에 대한 “참여자-연구자-독자 사이”의 “공감적 연대”와 “공감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조용환, 2011a: 42)이 필요하다. 앞으로 참여자들과의 대화 체험을 매개로 보다 다양한 집단과의 대화를 시도하며 더 넓은 공감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참여자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삼위일체 하나님’¹⁾에 대한 공통된 신앙을 기반으로 대화가 전개

되었기에, 참여자들과 나의 대화 속에는 타인을 포함한 신(神)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개입되고 있다. 이러한 대화의 맥락은 일반적인 교육적 상황과는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참여자들의 대화 체험은 타인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과의 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대화 체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과의 대화 체험에 대한 기술을 함께 담되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유보하였으며, 타인과 나눈 대화 체험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신의 성품’을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신과 참여자들 사이의 단절된 소통을 매개하는 자로서의 역할은, 지식이나 가치를 매개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과 등치될 수 있는가? 교육적 상황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특정한 지식과 가치를 잘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교육 내용에 매개한다. 이러한 매개자로서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종교 교육 및 다양한 교육 상황과의 비교 속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신앙을 공유하는 30~40대 기혼여성과 나눈 대화를 개념화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적 만남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를 보편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과 집단과 상황에 대한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사례성을 보완하여 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1)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는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교의 중 하나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라는 세 위격(位格)이 함께 하나님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다고 본다. 세 위격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초월자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함께 거하는 내재자로 이해된다(종교학대사전, 1998 참고).

Ⅱ. 이론적 배경

이번 장에서는 연구의 중심 개념인 ‘치유’와 ‘대화’,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본 연구의 관심으로 재검토하였다. 먼저 참여자들과의 대화가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내면의 치유’와 ‘대화’의 관련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는 내면의 치유와 대화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의 위치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응용현상학의 한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체험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적 절차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어떻게 체험에 접근하여 그 본질적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가? 나는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통해, 개인의 체험을 삶의 형식과 본질을 고찰하기 위한 일반 논의로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1. 내면의 치유와 대화

깨어진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과 대화의 관련성에 대한 탐구는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치유와 대화에 대한 논의는 정신분석학과 상담학뿐만 아니라, 신학, 철학, 간호학, 문학, 미학, 법학, 교육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각 학문에서는 대화를 심리치료를 위한 방법적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며, 대화나 활동 그 자체의 본질을 구현함으로써 치유의 결과를 얻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내면의 치유와 대화의 관련성이 어떻게 탐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내가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의 과정은 한편으로는 ‘상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맥락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생활세계 속의 만남과 대화였음을 염두하며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1) 무의식과 핵심 감정의 치유

무엇보다 내면의 치유와 대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분야는 정신분석학과 상담학 영역일 것이다. 정신분석학은 주로 인간 의식의 심층적인 측면, 즉 무의식적 층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다.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적인 내면세계의 갈등이 개인의 성격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병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내면세계를 치료해 왔다. 대화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 상태를 진단한다. 그리고 환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대화가 전개된다. 개인의 성격구조를 형성하게 된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함으로써(황정규 외, 1998), 건강한 자아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것이 정신분석학에서 이뤄지는 대화의 목적이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심층적인 의식을 ‘무의식’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병리적인 증상을 넘어 인간 일반의 무의식과 비합리성의 바탕을 이해하려는 시도들로 확장되었다. 정신분석학자 융(Carl Jung, 1875~1961)²⁾은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모순적이고 비합리적 측면이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성의 영역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체험의 심리적 연관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때 무의식이란 의식적으로 지각되지 않은, “의식의 역치 아래에 있는 모든 심리적 사건의 총체”(Jung, 1920/2016: 225-226)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내면세계의 심층에 자리한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화할 수 있을까? 정신분석학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한 주의 깊은 경청과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무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Jung, 1920).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의 생애와 특정 사건에 대한 자기 성찰과 분석이 이뤄지며, 의사는 환자 스스로 의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생의 에너지를 환자 자신이 주체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돕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하고 내면세계의 균형적인 힘을 회복하려는 치료적 관점

2) 융은 ‘이성’이라는 합리적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고 규명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이성 중심주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그는 “인간은 자신을 이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인간의 존재의 ‘비합리성’을 설명한다(Jung, 1920/2016: 108).

의 대화는 환자의 심층적 의식에 주목한다.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내면세계를 향한 대화는, 주체가 그동안 자각할 수 없던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심층적인 대화의 과정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대화를 통해 내면세계의 발생적 연원을 검토하는 과정은, 대화와 내면세계의 탐구가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은 대화와 내면의 치유의 관련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일상적 고민이나 내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두루 다루게 된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내담자의 내적, 심리적 문제를 찾아가고자 한다. 상담자는 주로 내담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조력한다. 기본적으로 상담 관계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전문적 지식, 심리적 조력을 통해 형성된다. 이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와 진실성, 전문성은 상담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치료 기법에 중점을 둔 심리상담도 있지만, 상담은 본질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라포(rapport)' 형성과 대화를 중시한다. 또한 상담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내담자 중심의 대화 관계가 중요시 된다.

상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상담의 원리와 방법들은 신학, 철학, 간호학, 미학, 교육학 등 다른 학문 영역과의 접목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로 인간의 영적인 측면에 주목해왔던 신학에서도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목회상담이나 상담신학 영역이 구축되고 있다. 한 예로, 노승수(2018)의 연구는 핵심 감정들이 몸과 영혼을 추동하는 무의식적 동기로 내담자의 내면에 인격화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그는 부담감, 그리움, 경쟁심, 억울함, 불안, 두려움, 열등감, 슬픔, 무기력, 허무, 소외, 분노와 같은 핵심 감정들이 내면의 인격을 형성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본다. 노승수(2018)는 핵심 감정의 '찾기(naming)'→'보기(mapping)'→'지우기(erasing)'→'인격주체 세우기(rebuilding)'의 과정을 통해 핵심 감정을 치료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그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의 영역과 핵심 감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내면의 치유는 바로 이러한 핵심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핵심 감정은 주로 상처의 근원이 위치한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생성되며, 핵심 감정에 직면하는 과정은 의식화되지 않은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대화의 과정과 연관된다.

그러나 무의식이나 심리 치료에 초점을 둔 대화는 ‘치료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와 타자의 보편적인 만남과 대화의 형식과는 다소 차이를 갖는다. 정신분석학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자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신적 치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대화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핵심 감정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심리치료의 관점에 치중되어 있다. 치료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남과 대화는 의사나 상담자의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화를 심리 치료를 위한 방법적 도구와 기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구현된 깊이 있는 대화 체험에 주목하여 대화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 대화와 치유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와 그 내적 연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생각의 힘을 기르는 대화와 치유

치료를 위한 수단이 아닌 대화 자체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면서 내면의 치유를 이루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다. 최근 개척되고 있는 철학상담 분야(김석수 외, 2012)는 철학을 심리치료나 상담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대화를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강조한다. 철학자와 내담자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함께 내담자의 문제 상황을 철학적으로 숙고한다. 삶에 대한 ‘철학하기’를 수행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삶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김선희, 2015).

한 예로, 김선희(2015)의 연구는 자기이해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세우는 철학상담의 방법을 제시한다. 철학자는 내담자의 문제 상황에 대한 경청과 이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이해를 형성하면서, 고착된 삶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얻는다.

한편, 박병준(2017)은 철학상담의 한 방법으로 철학교육과 철학상담을 결합한 ‘현상학적 철학상담’의 방법론을 제안한다. 현상학적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이 겪은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철학적으로 숙고하도록 돕는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

의 과거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을 시도하고,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체험을 구성하고 있는 의식 세계를 밝혀가는 과정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체험을 주제적으로 반성함으로써 과거의 체험을 의미 있게 재해석하게 된다.

이처럼 철학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고민이나 문제, 체험을 대화의 중심에 두고, 철학 활동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하기'로서의 대화를 시도한다. 철학적 대화를 구현하면서 내담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인 해석'의 힘을 기르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내면세계와 사고를 건강하게 정립하며, 주도적으로 살아갈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이 철학상담에서 추구하는 치유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철학상담 분야에서 우리는 교육과 철학과 내면의 치유의 관련을 찾아볼 수 있다. 김선희(2015)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숙고가 자아정체성과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내적 변화와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대화에 주목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닌,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차원으로 숙고할 수 있다. 철학자는 철학자이자 교수자로서 내담자가 자신의 고정된 선입견에서 벗어나, 체험이나 사태의 본질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담자는 철학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며 삶에 대한 해석적 힘을 기르고, 자아정체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구성한다. 이는 자신의 생애 전체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성찰을 수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철학상담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실제로 교육에서 추구하는 내적 변화의 한 측면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철학상담은 상대적으로 이성의 영역에 더 초점을 두고 이를 대화의 중심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화의 이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적, 비언어적, 관계적 측면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성과 더불어 감정과 정서의 차원을 어떻게 대화 주체의 인격 안에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3) 비언어적 대화와 치유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와 상담은 감정과 정서의 영역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술이라는 표현 활동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한다. 예술 활동에서는 신체와 감성의 영역으로 확장된 비언어적 대화를 심리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표현 활동들은 내면세계를 보다 질적으로 표현하고 성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술 활동을 매개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인 상처를 표현하고 이해하며 타인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억압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과 병행되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은 다양한 표현 양식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한 예로, 최슬기(2011)는 노래치료를 통해 목회자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과 심리를 표현하고 자기를 탐색하도록 돕는 심리치료를 수행하면서, 노래치료와 자기 탐색의 관련을 연구하였다. 자기탐색을 위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부모나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정들을 살펴보고, 부모에 대한 동일시와 양가감정, 심리적 부담 등을 표현하였다. 자신의 내면에 혼란스럽게 억압된 감정들을 음악을 매개로 살펴봄으로써, 타자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탐색하기 위한 활동은 예술기반 심리치료의 한 형태가 된다.

음악이나 미술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신체적 기능 장애로 인해 정서적 위기와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장지애·김영신, 2013). 이러한 심리치료는 신체적 변화와 자아 존중감과 같은 심리와 정서의 문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 활동을 통해 전개되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표출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 지나온 삶에 대한 회고 등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치료방법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비언어적 대화로서의 표현 활동과 내면의 치유와의 본질적 연관을 고찰하기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

예술 분야에서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 아닌 예술 활동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되는 치유적 의미를 탐구하는 흐름들이 있다.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등장한 ‘고백미술(confessional art)’은 주로 자전적인 요소를 담은 미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상처에 직면하는 창작 활동을 보여준다. 고백미술적인 성향을 지닌 예술가들은 과거의 상처와 직면하고 이를 작품으로 승화하는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종종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체험을 한다(김수연, 2013).

한 예로, 김수연(2013)의 연구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가족 관계의 억압된 상처를 표현하고, 이를 관객들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예술가의 내밀한 상처를 이

유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고백미술은 표현 활동을 매개로 예술가의 상처 입은 내면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창작 활동은 삶에 대한 자전적 서사를 시각화하는 일종의 ‘시각적 내러티브’의 성격을 갖는다. 예술을 기반으로 한 표현 활동을 통해 우리는 내러티브가 가진 비언어적 차원과 그것이 시각화되는 과정에 주목하게 된다.

대화가 서사 구조를 갖는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상처 입은 내면을 자각하고 표출하며 성찰하도록 돕는 다양한 표현 활동은 언어라는 형식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술이라는 표현 활동 속에서 우리는 대화가 가진 비언어적, 감성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대화의 형태는 발화된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감정이나 정서 등의 비언어적 표현 양식을 매개로 형성된다. 이러한 대화의 비언어적 측면들은 대화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에서 발화된 언어만큼이나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 예술기반 연구들은 비언어적 표현 활동과 내면의 치유와의 관련 속에서 감정과 정서의 영역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간호학에서는 환자와 맺는 인격적, 정서적, 관계적 차원에 주목하여 돌봄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Edwards, 2001; 공병혜, 2017). 돌봄과 치유의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연관시키는 간호철학의 흐름들은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를 두 인격 간의 만남이라는 관계의 본질적 의미 속에서 고찰한다. 대화와 치유에 대한 사유 또한 대화 주체들 간의 만남이라는 본질적 관계 맺음 속에서 성찰할 수 있다.

공병혜(2017: 89)는 돌봄과 대화의 의미 연관을 탐구하면서,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상호 돌봄의 과정”으로 대화를 설명한다. 상호 돌봄의 과정으로 대화를 규정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다. 대화를 통해 오고가는 정서적 교류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비판적인 대화와는 차이를 갖는다. 이때의 대화는 언어로 표현된 것보다 대화가 구현되는 ‘관계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에 중심을 두고 있다.

공병혜(2017)에 따르면, 나와 너라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우정 관계 속에서 정서적 참여를 통한 돌봄의 대화가 이뤄질 때, 진정한 돌봄의 가치가 구현된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나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라 할지라도, 간호사는 환자를 “삶의 이야기를 지닌 고유한 인격체로”(공병혜, 2017: 114)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돌봄을 실현할 수 있다. 간호사와 환자는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

서도 돌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간호사는 돌봄을 통해 환자의 신체로 표현되는 고통과 곁핍에 응답함으로써, 그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상호 돌봄'의 대화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대화 관계가 가질 수 있는 인격적, 윤리적, 정서적 차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화와 치유, 교육에 대한 연구도 존재론적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 대화를 매개로 이어지는 주체와 타자의 근원적인 관계 맺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존재론적 접근을 통해 대화 체험이 기반하고 있는 주체와 타자의 본질적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방식이 교육적 만남과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 형성에 어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대화'는 심리치료를 위한 수단이 아닌, 두 인격 간의 만남이라는 관계의 본질적 의미에 주목한다. 나는 대화 체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화의 성격과 의미를 탐구하면서, 주체들 간의 대화를 통해 실현되는 교육의 의미를 숙고하였다.

2. 현상학적 체험연구와 교육탐구

현상이나 체험 자체는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텍스트로서 다양한 의미들이 생성되는 해석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관심으로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학문적 의미는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생활세계 속의 체험들은 다양한 의미와 본질이 현출하는 장(場)이기 때문이다.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 자체는 상담학이나 정신분석학, 종교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 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체험이다.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관점과 형식을 통해 체험을 해석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교육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삶의 맥락에서 이뤄진 생활세계의 체험으로부터 대화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에 줄 수 있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많은 교육 연구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교수와 학습이 명확한 교육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나의 연구는 교육 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생활세계의 체험 속에서 치유와 대화, 교육의 의미 연관을 탐구하는 체험연구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벤 매넨(Max van Manen, 1990)은 현상학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체험 자체에 주목하여 그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체험연구’의 방법을 제안한다. 체험연구는 우리가 반성을 거쳐 개념화하고 범주화한 세계가 아닌, 생활세계의 체험에 주목함으로써 현상의 본질을 탐구한다. 그는 체험을 먼저 개념화하기보다는 되도록 생활세계의 맥락을 살려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체험을 특징짓는 주제들을 반성함으로써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가 제안하는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실존범주들은 본 연구에서 체험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체험적 공간(공간성), 체험적 신체(신체성), 체험적 시간(시간성), 체험적 인간 관계(관계성 혹은 공동체성)”라는 범주를 통해 (van Manen, 1990/1994: 139), 인간의 체험이 갖는 실존적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체험연구는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현상학의 방법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현상학의 이론적 개념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현상학의 기본적인 방법적 원리를 토대로 체험의 본질을 해명한다면, 이는 넓은 의미에서 ‘현상학적 체험연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³⁾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의 이론적 개념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방법적 절차를 수행하였다.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적 절차로서 수행되는 현상학적 환원은 기본적으로 현상학적 태도변경과 자유변경, 본질직관을 토대로 수행된다(이남인, 2014).

생활세계의 대화 체험으로부터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이 갖는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대화 체험에 대한 질적인 이해와 더불어 교육으로의 태도변경이 요구된다. 후설은 체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태도변경으로서의 현상학적 환원’을 제안한다(이남인, 2014). “태도란 어떤 한 주체 또는 다수의 주체들이 어떤 특정한 주도적인 관심에 따라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대하며 살아가는 통일적인 관점을 뜻한다.”(이남인, 2014: 152) 이는 사태를 무조건 교육의 눈으로 해석하려는 선입견이 아니라, 교육으로의 태도 변경을 통해 오히려 교육적 사태가 개시되는 가능성이 열림을 뜻한다. 태도변경을 수행함으로써 체험은 교육의 눈으로 다시 포착되고, 이를 통해 대화 체험에 담긴 교육의 내적 본질을

3) 전통적인 현상학의 이념 위에서 체험연구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체험연구를 현상학적 체험연구로 부를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이견들이 있다(이남인, 2014).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유변경’은 태도변경과 더불어 체험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적 절차이다(이남인, 2004; 2014). 후설이 제안하는 ‘자유변경(freie Variation)’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 개별적 대상으로부터 시작해 이와 유사한 대상들을 상상 속에서 자유롭게 산출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이남인, 2004). 이러한 자유변경의 과정을 거쳐, 암묵적인 상태로 존재하던 본질을 보다 명료한 양상에서 파악하는 ‘본질직관’이 가능해진다(이남인, 2004).

그렇다면 본질직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용환(2012a: 7)은 현상학적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질을 탐구하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질은 선형적이고 추상적인 형식논리로 규정할 수 있는 실재가 아니다. 사람, 사물, 사태의 본질은 구체적인 경험과 체험 속에서 다양한 변형태(variations)를 부단히 관찰하고 성찰하면서 그 존재의 핵심적인 성질을 찾고 또 찾아가는 잠정적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엇이다. 본질은 상황을 통해서 무수히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래서 본질은 참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처럼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존재의 핵심적인 성질을 찾아가는 잠정적인 탐구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대상이 인간의 ‘체험’일 경우, 우리는 어떻게 자유변경을 시도하면서 그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가? 체험에 대한 자유변경의 과정은 상상이나 관념, 이념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체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체험이 살아있는 다양한 현실과의 비교 속에서, 본질을 보다 다층적이고 심층적으로 해명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다음의 연구에서 우리는 교육의 개념적 본질이 이론과 실천, 이념과 체험이 교차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체험연구의 한 예로, 조현명(2012)의 연구에서는 세 참여자들의 수학교육 체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공부한다는 것의 실존적, 존재론적 의미를 고찰한다. 조현명(2012)은 참여자들 각자의 존재와 삶 속에 수학을 존재론적으로 ‘전유(appropriation)’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배움의 체험을 통해 형성되는 ‘존재론적 앞’의 차원을 해명하고자 한다. 전현욱(2014)의 연구에서는 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이념을 실천하고 적용

하는 자유변경의 과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나름의 실천적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체험과 사태를 교육의 관심으로 비교하고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의 내적 본질이 발견되고 그 의미가 생성된다. 사태나 체험을 교육의 눈으로 재조명하는 ‘교육으로의 태도변경’과 더불어,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태나 체험들의 비교 속에서 잠정적인 형태로나마 교육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미시적 혹은 중시적 수준의 접근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탐색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강대중 외, 2017). 예를 들어, 제도교육과 제도 밖 교육의 비교 검토, 다양한 사회와 문화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형태에 대한 비교 검토,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과 여타의 삶의 형식과의 비교 검토, 교육의 발생적이고 자연적인 연원을 찾아가는 연구 등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 탐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나는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종교’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의 형식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의미가 발견되는지 연구하였다. 내적인 변화와 치유의 체험을 가져온 대화를 통해서, 교육의 내적 본질이 구현되는 한 측면을 조명하고 교육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참여자들과 나의 만남은 명시적인 교수와 학습의 과정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대화를 통해 상처를 발견하도록 돕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적인 성찰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는 내면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의 형식을 통해 다시 조명해 볼 가치가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세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체험을 먼저 질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대화 체험을 내부적으로 비교하고, 현상학자들의 개념을 통해 체험의 의미를 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화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교육으로의 태도 변경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대화 체험에 담긴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추후에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른 집단과의 대화 체험을 비교하는 연구가 보완된다면, 치유와 대화, 교육의 존재론적 관련성을 더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월코트(Wolcott, 1994)는 기술, 분석, 해석을 개념상으로 구분하면서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같은 시·공간에서도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체험한다. 삶의 실존 맥락에서는 내가 본 것 그대로를 타자가 보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연구자의 체험의 맥락과 본질을 살려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연구자의 시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감적 글쓰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밴 매넨(van Manen, 1990)은 “현상학적 끄덕임”⁴⁾을 통해 좋은 현상학적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체험은 좋은 현상학적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좋은 현상학적 기술은 체험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체험의 본질이 되살아남으로써, 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체험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표현하게 된다. 나는 참여자들과의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하는 것의 의미를 되물으면서, 체험의 맥락과 의미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과 재구성, 쓰고 다시 고쳐 쓰는 기술 작업을 수행하였다.

현상학적 기술이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는 기억 뒤편으로 계속적으로 밀려나는 과거의 체험을 현재의 의식 안에 포착하는 의식적인 기억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몸에 새겨진, 자기가 몸소 겪은 경험으로서의 체험을 구성한다. 더불어 체험의 본질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재구성하는 글쓰기 작업이 병행된다. 복잡한 삶 속에서 교차한 체험들을 독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구성하되, 그 체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구성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이어진 참여자들과의 대화 체험을 현상학적 기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기술하였다. 나는 위에서 언급한 의

4) “현상학적 끄덕임”은 보이텐디크(Frederik Buytendijk, 1887~1974)가 사용한 표현이다.

식적인 기억 작업을 거쳐 대화 체험에 대한 회상일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회상 일지를 참여자들과 검토하고, 현지자료와 면담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체험의 맥락과 본질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회상일지에서 어떤 내용은 선택되거나 배제되었으며, 시간의 순서보다 체험의 맥락이 더 중요한 부분에서는 배치를 바꾸어 기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술의 과정에서 선택된 내용은 체험의 맥락에 맞게 좀 더 상세히 덧붙여지고 재배치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장의 기술 부분에서 활용한 자료는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된다. 먼저 2013년부터 2015년 봄까지, 과거 체험을 구성한 회상자료나 과거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는 연구자의 이름인 “지혜”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연구가 시작된 2015년 4월 이후, 연구자와 참여자로 만나 연구의 맥락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자”로 표기하였다. 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자적 관심이 생성되기 이전과 이후에 수집된 자료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면담 내용 중, 참여자의 시점으로 체험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는, 면담 내용의 훼손 없이 어미만을 수정하여 ‘참여자의 독백이 담긴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하였다.

1. 대화가 시작된 계기

1)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 가게 된 것은 2012년 여름 무렵이었다. 서울에서 홀로 육아를 하던 나는 고립감과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출석하는 교회도 옮기게 되었다. 대학 시절부터 고향에 내려올 때면 가끔씩 예배를 드리러 가던 지역 교회라 나는 큰 고민 없이 등록을 했다. 그리고 2012년 가을 무렵부터 어린이예배나 구역예배, 여전도회 등의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참여자들을 알게 되었다.

한동안 그들과 나는 조금은 먼발치에서 서로를 지켜보는 가운데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나의 건강을 염려해 주었다. 매일의 두려움이 엄습하던 육아의 긴장이 풀어진 탓이었을까? 친정 근처로 이사 온 이후로 나의 건강은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교회 사람들은 나의 소식을 들으며 건강을

걱정해 주었다. 어느덧 나는 ‘자주 아픈 엄마’로, 그리고 ‘서울대학교 출신의 특별한 학력을 지닌 엄마’로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다. 나는 육아로 오랫동안 대학원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자들과의 만남은 이렇듯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맥락에서 이뤄졌다.

(1) 불안과 기쁨의 교차

2013년 5월, 당시 나는 발작적인 기침으로 두 달이 넘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종합검진을 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 교회에서 마리아가 나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다.

“지혜 자매, 괜찮아요? 아프다는 소식 들었어요.” 마리아는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며 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자기 손도 나처럼 이렇구나.” 마리아는 자신의 갈라진 손을 보여주며, 한때는 손에 고름이 찰 정도로 아파서 입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걸린 습진 때문에 몇 년간 손이 마른 논 바닥처럼 갈라져 자주 피가 나고 지문도 사라져갔다. 나는 마리아의 거친 손을 보며 알 수 없는 위로와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다.

나는 마리아에게 곧 종합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마리아는 내 증상을 듣더니 자신도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갑상선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마리아는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리아와 헤어지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친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언니를 부둥켜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언니, 내가 잘못 살았을까?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 나도 암이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불쑥 이런 항변이 나왔다.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은 나의 행위와 의지를 떠나 엄습하는 것만 같아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다.

며칠 후, 종합검진을 받으러가는 날 아침, 임신가능성이 있으면 검진을 받을 수 없었기에 나는 집에서 임신테스트를 해 보았다. 그런데 희미한 두 줄이 보였다. 나와 남편은 서로의 눈을 의심하며 산부인과로 달려갔다. 아직 초음파로 아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혈액 검사를 해 보니 임신이었다. 새 생명이 나의 태 안에 숨 쉬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날 이후로 나의 건강은 점점 회복되었다. 그동안 아프면서 너무 많은 약을 먹은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몇 주후 초음파 검사에서

아이의 건강한 심장 소리를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 남편과 나는 이 아이에게 “복음이”라는 태명을 지어주었다. 우리 가족의 기쁜 소식, 복음이! 나는 고난 대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미니홈피’에 글을 남겼다.

둘째 우리 복음아~
복음이에게 처음 일기를 쓰네^^
복음이가 은근슬쩍 엄마 뱃속에 찾아왔구나 ㅎㅎ
엄마는 사실 더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ㅋㅋ
그래도 우리 복음이가 찾아와줘서 넘 고맙고 행복해요♡
요즘 엄마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낀단다.
복음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란다.
우리 가족의 기쁜 소식이고^^
이 세상에도 기쁜 소식이 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건강하게 있어다오~^^♡

(2) 예상치 못한 이별

어느 날 저녁, 피가 나오기 시작했다.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에 고인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나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았다. 진료 대기실에 있으면서도 남편과 나는 큰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농담을 주고받고 장난을 쳤다. 그러나 초음파를 보는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심장 소리가 안 들리네요. 태아의 성장도 멈춰있네요. 한 달 전에 태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은 사무적으로 느껴지는 의사의 말과 복음이가 떠났다는 예상치 못한 사실에 나는 어안이 병병한 채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을 나왔다.

남편과 나는 길에서 서로를 안고 흐느껴 울었다. 복음이는 여전히 나의 태 안에 있다. 그러나 다시 깨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내일은 첫째 아들의 생일이었다. 한 생명은 태어났고 한 생명과는 이별을 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나는 갈 길을 잃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나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목사와 사모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이 마지막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유산이 진행되었고 복음이는 그렇게 나의 품을 떠났다. 피와 태반과 복음이의 몸까지... 모든 것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다. 적나라한 죽음의 장면을 대면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무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슬픔보다 앞서는 두려움과 섬뜩함이었다.

그렇게 나는 복음이와 이별을 했다. 2013년 7월 7일, 행운의 숫자로 가득한 이 아이러니한 날짜가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졌다. 죽음을 통해 겪는 이별의 순간은 이렇듯 갑작스럽게, 조금은 무섭고 적나라하게, 슬픔보다 앞서는 두려움으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첫째를 출산했을 때와 같은 후유증을 겪었다. 산후풍 때문에 온 몸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집 밖으로 나가면 에어컨 바람이 뼈 속까지 들어와 오한이 났다. 나는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한 채,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뒤 집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아무도 없는 적막함 속에서 침울하고 무거운 공기가 집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이를 보낸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심장이 멈춰진 아이의 마지막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사진을 텅 빈 나의 배에 대어보는 순간 나는 오열하고 말했다. “복음아, 다시 돌아와 줘. 엄마의 품으로 다시...”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나의 곁을 떠난 복음이의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어떠한 몸부림으로도 건널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졌고, 가슴을 파고드는 슬픔과 그리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3) 모순으로 가득 찬 삶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 복음 11장 25-26절) 나의 슬픔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다가와 연약해진 나의 믿음을 시험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다시 데려가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내 마음을 매우 복잡하고 아프게 했다. 나는 이 고통과 혼란을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글을 쓰면서라도 이러한 아픔을 허락한 하나님을 이해해보고 싶었다. 나는 당시의 마음을 내 ‘미니홈피’에 비공개 글로 남겨두었다.

하늘소망.

하늘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가 않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하루를 보낼 뿐..

그분이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다시 거두어 가셨다.

삶과 죽음이라는 질문 앞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내 힘으로는 아무 것도..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할까.

내 안의 생명을 가져가신 분께 어떻게 위로를 받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로해주실 수 있을지 모른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다.

부활의 신앙..

나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믿음 앞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느낌이다.

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 앞에서 어안이 병병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결코 피해가지 않는 고난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행복의 기준들이.. 잘 될 거라는 미래의 모습들이 어찌면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과 고난을 받으셨듯이

나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의 길을 걷고 싶다고 고백했지만
그 길이 십자가로 통하고 있음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나는 두렵다.
하늘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지 않으면 자꾸만 두려워진다.
나에게 주신 행복들이 하나씩 하나씩 달아날 것만 같아서 무서워진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는 고난을 주었다. 이 고난을 삶의 선물로, 축복으로 승화하는 것은 분명 지금의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고난이라는 숙제는 풀기 어려운 모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글쓰기는 아마도 이 모순을 견뎌내고 이해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4) 타인을 향한 연민과 발걸음

약함과 슬픔, 두려움과 의심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삶의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던 나의 이웃이 떠올랐다. 수년 간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련을 겪던 나의 이웃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너무나 어렸기에 그 부부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었다. 지금의 내가 온전히 그 아픔을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이웃이 감내했던 고통을 지금은 멀리서나마 떠올리며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나는 이 시기에 남편 친구의 둘째 아이가 사망했다는 비보(悲報)를 들었다. 병원에서 맞은 주사 때문에 이 부부는 한 순간 갓난아이를 하늘로 보내야했다. 그들의 고통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에 마주하면서 가슴이 자꾸만 먹먹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고 상처 받은 마음을 애써 추스르며 살았을 타인을 향해 강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난 받는 이웃의 아픔을 향해 이끌리고 있었다. 그것은 '도덕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의지를 떠나 타인을 향한 연민에 이끌리는 것에 가까웠다. 이 시기에 나

는 참여자 마리아를 만나면서 타인을 향한 연민의 감정을 넘어 ‘공휼(矜恤)’의 감정이 나의 존재를 사로잡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2013년 8월 31일, 나는 구역 예배 때 우연히 마리아의 입원 소식을 들었다. 마리아의 시아버지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모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이 충격으로 마리아는 청력에 손상을 입었다. 마리아는 심하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었던 마리아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마리아를 향한 마음 때문에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나를 사로잡았다. 마치 오래 전부터 알았던 소중한 친구가 아픈 것처럼 나의 마음이 저려왔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아픔과 연민으로 가슴을 앓는 ‘공휼’에 가까운 체험이었다. 공휼의 체험은 나의 존재 전체가 나의 의지를 벗어나 타인에게로 전적으로 향하고 쏠리는 것이었으며, 이 마음은 나의 발걸음을 타인에게로 향하도록 재촉했다. 나는 마리아에게 간단한 문자를 남기고, 입원비에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에 헌금을 하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챙겨서 무작정 병원으로 향했다.

“자기도 몸이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왔어.” 마리아는 침대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반갑게 나를 반겨주었다. 나는 마리아를 보자 또 다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마리아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 혜: 집사님이 아프다는 소식 듣고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왔어요.

마리아: 근데 자기를 보는데 꼭 천사가 온 것 같다.

지 혜: 집사님, 귀가 많이 아프세요?

마리아: 갑자기 한 쪽 귀가 멍하고 기차 소리가 나더니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 참다가 도저히 안돼서 병원에 왔는데 돌발성 난청 이래. 병원에 늦게 왔더니 심하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네...

지 혜: 집사님, 주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마리아: 아멘. 이 침상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지 혜: 집사님의 가슴과 귀에 손을 대고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마리아: 당연하지.

마리아는 나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 주었다. 나의 왼손은 마리아의 가

숨에, 오른손은 마리아의 귀에 가만히 대고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고쳐주세요...” 눈물만 흐를 뿐, 나는 더 이상의 기도를 할 수 없었다. 나의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다. “지혜야, 고마워. 내 마음 답답한 거 어떻게 알고. 막혔던 가슴이 시원해진다.” 나는 마리아에게 성경 구절을 적은 편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 몰래 헌금을 담았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 23장 10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2013년 9월 1일, 병문안을 갔다 온 다음 날, 마리아와 나는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다.

마리아: 지혜야, 밤새 힘들었는데 오전에 주님께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왔더니만 이곳에 와서 맛보지 못한 달콤한 휴식을 내게 선물로 주시더라고. 어찌나 달던지. 가슴과 귀에 대고 눈물로 기도해주었던 모습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네. 고맙다는 말 밖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마리아의 귀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병문안을 계기로 마리아와 나는 급속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나는 마리아에게 그날의 일을 자세히 묻지는 않게 되었다. 마치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감추어둔 비밀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29일 밤,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마리아는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나에게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이날 마리아와 긴 이야기를 나누며, 마리아가 죽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의 방문 이후 마리아의 귀가 치유되어 일찍 퇴원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고통과 고난이 삶에 순간적으로 엄습하듯이, 마리아의 경우 치유 또한 뜻하지 않게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치유는 어둠과 절망, 죽음이 엄습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분위기를 만든다.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희망의 분위기를 만든다. 타인을 향한 긍휼이라는 강력한 지향성이 타인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힘으로 전환되는 체험이었다. 그러나 긍휼의 감정이 곧 치유를 불러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치유의 힘, 또는 그 결과는 존재자의 존재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타인을 향한 긍휼’이라는 사건은 고난 속에 있는 타인에게 나의 존

제가 향하도록 이끌었으며, 타인의 고통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응답하도록 만드는 체험이었음은 분명했다.

2) 참여자들과의 우연한 만남

(1) 마리아의 퇴원

마리아가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난 2013년 9월 3일, 그녀는 생각보다 빨리 건강이 호전되어 퇴원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서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다. 마리아와 나는 다음에 점심을 함께 먹기로 약속하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헤어졌다.

2013년 9월 5일, 나는 마리아의 집 안으로 처음 들어가 보았다. 마리아의 몸은 아직 쇠약한 상태였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나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었다.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척이나 깨끗한 집이었다. 나는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떠오른 두 말씀을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전해 주었다.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 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1-42절)

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그렇구나. 지혜야. 예전에 받았던 말씀인데... 지혜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막연하게 다가온 두 말씀이 마리아의 존재와 삶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지 못했기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다.

(2) 다니엘과 안나의 방문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다. 나는 오늘 마리아와 둘이 만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초대한 손님이 더 있다고 했다. ‘누굴까...?’ 내가 아는 다윗⁵⁾이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 가끔씩 영아부 어린이 예배에 참석했기에, 영아부에서 활동하는 다윗을 알고 있었다. 다윗은 당시 어린이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었다.

“자매님도 있었구나.” 다윗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조금은 어둡고 어색한 표정으로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다윗을 사석에서 만나기는 처음이라 나도 조금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다윗은 마리아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오늘 다른 손님도 있었던 거야? 나는 네가 힘들다고 꼭 오라고 해서 혼자 있는 줄 알고 걱정돼서 왔지. 나 집에서 나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마리아와 다윗이 오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과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때 또 한 번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또 누구지?’

“뭘야, 여기 다 모여 있었네!” 다니엘이 호탕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오라고 했지.” 마리아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다니엘과 안나를 맞이했다. 나는 여전도회에서 다니엘을 만났고, 처음으로 배정되었던 구역에서 안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기에, 내심 이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해 줄 두 사람이 반갑게 느껴졌다.

마리아는 바빠 부엌에 들어가 계란을 부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빔밥 재료들을 꺼내며 말했다. “지혜야, 이것 봐라. 어제 다니엘하고 안나가 나물 반찬을 갖다 줬거든. 그래서 ‘나물 두 개만 더 있으면 비빔밥 해먹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어제 나물 반찬 두 개를 갖고 온 거였어.” 마리아는 이웃을 통해 그녀를 돌보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끼며 아이처럼 한껏 들떠 있었다. 이렇게 세 참여자들과 나는 마리아의 삶의 고난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5) 다윗(가명)은 40대 중반의 기혼여성으로, 참여자 마리아와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함께 한 친구이다. 이후에 나는 다윗과도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윗과 나는 대화를 담지 않았다.

(3) “딱 일곱 번만 모여서”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치며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다. 그동안 참여자들은 ‘유튜브(YouTube)’를 통해 여러 설교를 들으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과 의문을 풀어가는 중이었다. 소속된 교회 이외의 곳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고독하고 고립된 고투의 시간이었다.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같이 기도할까요?” 다니엘이 머뭇거리며 제안을 했다. 교회 건물 밖에서 모여 기도한다는 것이 아직은 서로에게 낯선 일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용기를 내었다. 교회 밖에서의 기도 모임은 때로는 ‘이단’처럼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참여자들을 통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아직 우리는 서로의 기도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기도를 한 후, 다니엘은 매우 조심스럽게 참여자들에게 제안을 했다. “저기, 우리 딱 일곱 번만 모여서 같이 기도해 볼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나 자녀들이 집으로 올 시간이 다 되어, 다니엘의 제안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니엘과 나는 함께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다니엘: (심각한 얼굴로) 내가 주책없이 괜히 그런 제안을 했나? 나도 고민되기는 해요.

지혜: 그러면 집사님... 저랑 둘이 모여서 기도해 볼까요? 일곱 번만.

다니엘: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나는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마음을 나누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고, 나는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니엘과 함께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점점 다니엘의 내면으로 향하게 되었다. 다니엘과의 대화에 이어 다른 참여자들과도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그들이 유년시절부터 겪었던 삶의 깊은 아픔과 상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2. 다니엘과 나는 대화: 인식에서 존재로

대화와 내면의 치유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면의 치유와 존재의 전환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일까? 존재는 인식의 근본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는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나는 다니엘과의 대화를 통해 인식에서 존재로 향하는 관점의 전환이 내면의 치유를 가져오는 대화의 중요한 토대가 됨을 발견하였다. 타인과의 관계와 신(神)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존재가 전환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다니엘은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고 치유해 가면서 타자와의 끊어진 관계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녀의 체험에서 존재와 타자의 관계, 그리고 자아 정체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중심으로 다니엘과 나는 대화를 그녀의 생애 안에서 기술하였다.

1) 만남의 인연

사실 다니엘과 개인적으로 만나 긴 대화를 나눈 것은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7월 5일, 둘째 복음을 하느로 보내기 전, 나는 집 근처 가게 ‘던킨도너츠’ 앞에서 다니엘을 우연히 만났다. 이 날의 만남을 통해 다니엘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이후 마리아의 퇴원을 계기로 다니엘이 제안한 일곱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다니엘과 나는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는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1) “던킨도너츠의 그 순간”

다니엘을 우연히 만났던 2013년 7월 5일 오전, 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성경을 목상하기 위해 ‘던킨도너츠’ 가게로 가는 길이었다.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다니엘이 나를 보고 무척이나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다니엘은 나에게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초면인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다니엘은 호기심 보따리를 풀어놓듯 나에게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니엘: 지난 번 여전도회 기도회 때, 지혜 자매가 기도제목을 나누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참 신기했거든요. 사실은 내가 최근에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에 대해 먼저 물어보는 사람을 만나니 나도 내심 반가웠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 하는 ‘아줌마’를 ‘동네교회’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다시 그의 백성으로 회복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나누었다.

다니엘: 내가 요즘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랑 똑같네!

지 혜: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유튜브 설교는 많이 안 듣고 그냥 성경을 보는 편이라 잘 모르긴 해요.

다니엘: 사실 나도 오늘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요즘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설교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면 된다고, 오늘 그런 고백을 했네요. 시간되면 점심 같이 먹을래요? 내가 궁금한 게 많아.

이날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새로이 알게 된 것은, 다니엘은 이미 자신의 마음 상태를 대화 속에서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설교를 지나치게 많이 듣고 있던 다니엘의 내면에 있던 불안, 그것은 무엇이였을까? 후에 나는 다니엘과 몇 번 더 만나면서 다니엘의 내면에 있던 근본적인 존재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2) “베스케”: 연합의 요청

우리는 자리를 옮겨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니엘은 요즘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던 차에, 우연히 나를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다니엘: 최근에 성령님⁶⁾을 만나서 방언⁷⁾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베스케’라는 말을 반복하게 하셔서. 내가 또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라 인터넷 사전을 찾아봤지. 그런데 스페인어로 ‘연합(끈끈한 결속)’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교회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만나보라고 하시는 건지...

그로부터 2년 후인 2015년 6월 15일, 연구의 면담을 위해 다니엘을 다시 만났을 때 다니엘은 당시의 심경이 담긴 ‘동행 일기’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동안 다니엘은 매일의 일들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일기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니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은 다니엘의 동행일기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방언기도 할 때 “베스케”가 자꾸 나와 당황하게 됩니다. [교회의] 중고 등부 교사로 헌신하다가 떠난 집사님을 떠올리며 그저 상실한 마음에 대해 아뢰었는데 연합하라 하십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주의 명령이 맞지요? 그리고 선잠에서 ‘내가 네 위에 임하리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딸 아이를 데려다주는 길에 마리아 집사를 만나고 빛보증에 대한 새벽예배 말씀을 나누다 그의 조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듣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제게 확증하시는 거 맞나요? 방언통역의 은사를 주시던가, 나... 이거... 참... 하하하...

아버지, 인생들은 알수록 불쌍합니다. ○○ 엄마도, 마리아 집사님 네도, ○○○ 집사님 네도... 우리 남편 ○○○씨도... (당뇨라니요??) 그런데 또 압니다. 온전히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당신을 만나게 하기 위한

6) 그리스도교에서 성령(聖靈, Holy Spirit)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말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제3위격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는 또 다른 인격이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 안에 내주(內住)하게 되었다(생명의 말씀사, 2006, 라이프성경사전 참고).

7) 신약 성경에서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언어를 말한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한 방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적 형태로 표현되는 방언도 있다(생명의 말씀사, 2006, 라이프성경사전 참고).

당신의 계획이며 사랑이신 것을... 제 디스크가, 제 위장이 제겐 그저 축복이요, 그 과정에서 생긴 믿음이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한 예비였다는 것을...

두 자녀를 둔 초등학교 교사였던 다니엘은 그동안 허리와 위장이 아파서 휴직을 하던 중이었다. 다니엘은 이후에 복직을 미루고 휴직을 연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훈련되는 기간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날의 만남 이후 나는 복음을 유산하게 되어 한동안 다니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삶의 고난을 계기로 나는 다니엘과 다시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마리아의 집에서 참여자들을 우연히 만난 날부터, 다니엘과 나는 일곱 번의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실 우리는 그날의 만남이 다니엘의 방언에서 나온 “베스케”, 즉 “끈끈한 연합과 결속”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베스케”라는 막연한 단어는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점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2) 내면으로 향하기까지

다니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내면으로 향하기까지, 나는 그녀에게서 종종 소통의 장벽을 느낄 때가 있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다니엘에게, 언젠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나는 다니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면의 상처를 나누는 대화 시간을 갖게 되었다.

(1) 홀로 고군분투한 시간들

2013년 8월 28일, 다니엘에게서 중동 정세에 대해 알고 싶다는 문자가 왔다.

다니엘: 바빠요? 나 중동 정세 공부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시리아 전쟁 상황 보고 궁금한 게 많은데 배경지식이 없어서 인터넷 뒤지다가 지혜한테 물으면 좀 지름길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번뜩 들었네. ㅎㅎ

나는 중등 정세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예전에 보았던 책을 다니엘에게 전해 주었다. 공대 출신이며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있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다니엘은 인터넷 상의 설교와 신앙 서적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오랜 시간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 다니엘은 나를 만나 신앙에 대한 고민을 마음껏 나눌 수 있었다. 2013년 9월 6일, 다니엘은 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함께 교제하게 된 기쁨을 표현하였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소망을 들으시고 지혜를 통해 이렇게 위로하시네요. 하나님을 이렇게 맘껏 나눌 수 있어 넘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눠주고 힘줘서 지혜한테 참 고마워~ 주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서 우리들의 교제를 통해 생수의 강이 발목까지 허리까지 머리 위까지 차올라 주의 교회를 적시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으면 좋겠어요. ㅎㅎㅎ

당시 참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나님을 마음껏 나눈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참여자들은 어떤 설교를 듣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다른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교회 리더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4월, 참여자 안나가 설교를 전도회에 공유한 일이 있었는데, 다른 성도가 교회의 사모에게 이를 전달하여 성도들 간에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참여자들은 집에서 홀로 인터넷 상의 설교를 찾아 들으며 신앙생활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 갔다.

타자에 대한 배타성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교회 분위기는 다니엘과 나의 개인적인 만남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다니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성도들과 소통을 하고자 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때로는 ‘허용과 금지’, 혹은 ‘옳고 그름’이라는 차가운 판단으로 되돌아왔다. 그 속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찾고자 노력했다. 다니엘은 교회 안에서 상처 입고 상한 마음을 그녀의 동행일기를 통해 표현하고 있었다. 다음은 다니엘의 동행일기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지난 월요일에는 마음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내게 주님의 다른 인격인 성령님을 알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 ○○○ 목사님, ○○○ 장로님이 이단 시비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님의 치유사역을 …(중략)… 한 집사님께 전했는데 교회의 풍토와 맞게 합동 측에서는 장로님 집회 참석을 금한다는 메세지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눈 뜨게 해주신 그 귀한 분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저는 어디를 붙잡고 가야하는지...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들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기에 내게 말씀하시고 권능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저 가만히 성경 속에 계신 죽어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 내 안에 살고 계시며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집안과 중고등부 교회와 이 땅을 살리시는 분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다니엘과 처음으로 만나 기도하기로 한 날, 다니엘은 어둡고 긴장된 얼굴로 나타났다. 다니엘은 이후에 “지혜 자매가 혹시 이단은 아닐까”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힘이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다니엘이 만나고 있는 체험적인 하나님과 타자로부터 판단 받는 시선 사이에서 다니엘은 애써 혼란을 추스르며,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이 시기에 성도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하기 어려운 벽을 느끼며 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한 마음은 타자를 향한 두려움을 넘어, 오히려 ‘타인’⁸⁾과의 더 깊은 소통을 갈망하는 동력을 만들기도 했다.

(2) “성취지향, 목적지향”

다니엘은 평소에 자신에 대해 긴 수식어를 붙이며 “정 없고 차갑고 싸가지 없

8) 레비나스(Levinas)에게 “‘타자’는 ‘타인’을 포함하는 대단히 넓은 개념적 외연을 가진다.”(조용환, 2012d: 4) ‘타인’은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받아들인 타자”를 말한다(조용환, 2008b). 나는 본 연구에서 레비나스의 ‘타자’와 ‘타인’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특히 주체가 타자와 맺는 인격적 관계성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 ‘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타인은 구체적인 인격을 가진 얼굴로 나타나, 주체의 “내면성의 닫힌 세계에서 밖으로의 초월을 가능케 해주는 존재”(강영안, 2005: 37)가 되기도 한다.

는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다니엘은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딸의 냉정한 모습 속에서 종종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다니엘은 딸이라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 같았다. 다니엘은 당시의 심경을 동행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는 참 볼품없습니다. 졸업식 때 딸의 냉정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엿봅니다.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성취지향, 목적지향적인, 조금은 찬 듯한 성향. 그런데 딸의 친구처럼 눈물 펄펄 흘리며 헤어짐을 맞는 성향도, 내 딸처럼 쿨한 성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감사하며 적재적소에서 기쁨으로 그 성향을 사용하여 영광 돌려 드리는 것 뿐, 협력하여 선을 이뤄 드리는 것 뿐!!!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후에 나는 다니엘과 깊은 만남을 이어가며, ‘성취 지향적’으로 형성되었던 다니엘의 성향을 그녀의 생애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당시 다니엘은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돕고 있었기에 나는 그녀의 성향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다니엘의 바쁜 교제와 사역 속에서, 나는 그녀의 초조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다. 다니엘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분주히 활동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상하게도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를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3) “아버지의 노래”: 머리에서 가슴으로

2013년 9월 25일, 다니엘과 일곱 번의 만남을 갖기로 한 첫 번째 날이 다가왔다. 나는 집안을 정리하고 함께 먹을 다과를 준비했다. 그리고 다니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지 수첩에 적어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찬양한 곡을 준비했다. 잠시 후, 다니엘은 피곤하고 어두운 얼굴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 체기가 좀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는데, 무언가 그녀의 마음이 무겁고 긴장되어 보였다. 다니엘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자주 체하곤 했다. 우리는 잠시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한 내용을 다니엘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날 내가 기록한 수첩을 다시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나의 행동과 삶을 결정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잘못된 마음의 생각, 이론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나는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한 후에 각자의 마음에 떠오른 것을 나누기로 했다. 다니엘은 안 좋은 컨디션 때문인지 어떤 마음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나의 마음에는 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나의 사랑 안에 안기고,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나는 이에 대해 다니엘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그 대신 나는 다니엘에게 준비한 찬양을 들려주었다. “집사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같이 듣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찬양이에요.” 다니엘과 나는 눈을 감고 찬양에 함께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노래.
그 무엇보다도 널 바꿀 수 없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다니엘은 곰곰이 생각에 잠기듯, 진지하고 조금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첫 만남을 마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갔다. ‘다니엘은 오늘의 만남을 어떻게 느꼈을까?’ 나는 조금은 심각해 보였던 다니엘의 표정이 내심 마음에 걸렸다. 다니엘은 그날 저녁, 컨디션을 회복하고 나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었다.

다니엘: 아간 몸이 넘 피곤해서 제 정신이 아니었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니 찬양이 나오네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 전 아가 기도하며 왕 되신 아버지께 나가는 생각을 했는데, 아가야 불러주고 번쩍 안아 올려 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어요. 참, 들었던 찬양 제목이 뭐예요? 찾아서 다시 듣고 싶어서...^^

이 날의 만남은 다니엘에게 내적 변화가 막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몇 년 후에 그녀와 면담을 수행하면서 그녀의 생애 속에서 이날의 기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가야 불러주고 번쩍 안아 올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니엘의 유년시절, 사우디에서 돌아와 어린 그녀를 번쩍 안아주며 “비행기를 태워주던 아빠”의 존재와 겹쳐지고 있었다. 이후에 나는 대화와 면담을 통해 유년시절 다니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는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관계 맺음이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4) ‘영적인 호흡’을 맞춰가는 시간들

2013년 9월 30일 점심 무렵, 우리 집에서 다니엘과 나는 두 번째 만남을 가졌

다. 다니엘은 한결 밝은 표정으로 본래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는 일주일 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의 일상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떠오른 마음이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후에 이 모임에 그녀의 친구와 다윗, 마리아, 또 다른 교회 성도가 함께 하게 되었다.

다니엘은 여전히 자주 체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2013년 10월 2일 오후, 다니엘은 신앙서적을 읽고서 연락을 주었다. 우리는 깨달은 바를 ‘카카오톡’을 통해 자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다니엘: 36시간을 잠만 잤네요. 오늘 새벽에 죽 먹고 정신 돌아오자마자 <십자가와 지혜> 읽었는데 어찌나 은혜였는지... ㅎㅎ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기도 후 지혜가 찾아준 말씀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십자가에 매일 죽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가 깨달아져서 다시 보고 싶네~

지 혜: 로마서 6장 8~9절이요^^ 저도 오늘 낮잠 푸욱 잤어요 ㅎㅎ 집사님도 푹 쉬어서 다행이에요^^ 그 책 정말 좋죠? ㅎㅎ 집사님께 드리길 잘했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도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다니엘: 그 말씀도 암송하고 믿어 승리한 적도 있는 말씀인데 이제야 또 새롭게 깨달아져요. 얼마 전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잠결에 받았거든요. 내가 죽는 만큼 아버지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아버지와 화목케 되는 만큼 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테고요. 그것을 모르고 용쓰다가 또 체하고 말았어요. ㅎㅎ 념 두서없이 마음이 전달되

있으려나?ㅋㅋ

지혜: 아멘~ 전달되었어요ㅎㅎ 제가 평소에 자주 받는 말씀이에요♡
저도 <십자가와 지혜> 한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다니엘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용쓰다가 체하고 말았던” 그녀는, 우리의 만남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자신의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호흡과 발걸음을 맞춰가고 있었다. 이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상호 간에 의미 있는 메시지로 살아 움직이면서 다니엘의 신앙은 생명력을 얻기 시작했다. 신과 나, 그리고 타인 사이에서 상호 간의 화답이 있는, 활력이 넘치는 상호 대화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2013년 10월 19일 오전, 다니엘은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설교 동영상 보내주었다.

다니엘: 우리 지난 번 나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운동하다 다시 설교로 마주하게 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꿈의 계시로, 지혜와의 교제로, 성경책으로, 설교동영상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혜는 이미 사명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는 자라 권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를 교제케 하신 데는 뜻이 있을 것 같아 동영상 추천하니 시간 날 때 들어보세요.

지혜: 네~ 감사해요^^ 좋은 설교 있을 때 저에게도 보내주세요ㅎㅎ 지난 번 보내주신 선교사님 설교 듣고 엄청 회개하고. 저에게도 필요하답니다^^ 저도 예전 교회 목사님께 배운 내용들 스크랩해 놓은 게 있는데 다음에 전해드릴게요^^

다니엘과는 개인적인 만남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일상적으로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서로에게 유익한 자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다. 이제는 내가 다니엘에게 전달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다니엘도 나에게 유익한 것을 전해주는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다니엘은 이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을 체험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만남은 다니엘이 막연하게 반복했던 방언인 “베스케”, 즉 ‘끈끈한 연합

과 결속'이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우리는 신앙을 공유하는 타인과 나의 삶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음'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3) 상처의 발견과 존재의 전환

연구의 참여자는 아니지만 2013년 10월 10일부터 다니엘의 초대로 그녀의 친구 에스더(가명)도 우리의 만남에 함께 하게 되었다.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친구를 다니엘이 초대한 것이다. 다니엘의 꿈속에서 에스더는 “너무 갈급하게 마실 것을 찾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다니엘은 그녀에게 계속 마음을 쓰고 있었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그녀의 갈급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어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만남은 다니엘과 그녀의 친구 에스더와 함께 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였고, 이후에는 참여자 마리아와 친구 다윗이 함께 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겪는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자유롭게 나누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있던 상처들을 나누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1) 답답한 마음과 강박

2013년 10월 23일, 처음으로 다니엘의 친구 에스더의 집에서 만남을 가졌다. 다니엘과 나는 에스더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스더의 집은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무언가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답답함은 무엇일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 혜: 저... 제 느낌을 나눠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돼서요. 이 집에 대한 느낌인데...

에스더: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 봐요.

지 혜: 집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한데, 제 마음에 무언가 답답함이 느껴져서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이 답답한 걸 수도 있고...

에스더: 시어머니랑 갈등도 많이 좋아지고... 난 요즘 괜찮은데.

다니엘: (심각한 표정으로) 그거 내 마음 같은데. 내가 요즘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지 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다니엘: 내가 요즘 설교를 지나치게 많이 듣거든요. 신앙서적도 그렇고.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답답하고 무겁고. 요즘 제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다니엘은 내적으로 혼란스럽고 힘겨운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다니엘을 만날 때부터 나는 막연하게 그녀에게서 어떠한 무거움과 염려를 느낄 때가 있었다. 다니엘 이외에도 나에게서 참여자들의 마음 상태가 막연한 느낌으로 찾아올 때가 있었다. 나는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막연한 느낌이 종종 그녀들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언젠가는 우리가 상처 입은 내면으로 향하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마음의 상처가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처의 나눔과 발견

나는 다니엘의 마음에 있던 답답함과 무거움, 그리고 강박은 내적인 상처로부터 비롯된 표면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삶을 열어 유년시절부터 겪었던 나의 상처에 대해, 그리고 신앙 안에서 치유를 체험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 혜: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꺼내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제가 겉으로 보이는 거랑 다르게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겪었어요. 엄마는 아빠랑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셨고, 그래서 항상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할머니한테 심하게 시집살이를 겪으셔서 매일 저희 집은 전쟁이었어요.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거든요. 언니는 계속 집 밖으로 나가고 일탈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공부를 도피처로 삼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겨워서 감정의 문을 닫고 공부를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잘 하는 걸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웃을 일이 없는 부모님한테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진지하게 이혼 생각을 하셨거든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하면서 엄마한테 들은 얘긴데, 엄마는 저를 낳고 자기 인생을 포기했대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 존재구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왔는데,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그랬는데, 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무언가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한다는 강박. 제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헌신이나 사명이라는 걸로 덮고 또 덮고...

그런데 주님은 저의 상처를 먼저 만져주길 원하셨더라고요. 내가 아픈 상처를 안고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은 예수님이 저를 치유하셨던 것 같아요. 몇 번씩 마음에 큰 수술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저를 과거의 기억 속으로 데려가시더니, 그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 주셨어요. 가장 깊은 상처였던, 어린 시절에 엄마가 저를 떠났던 순간까지...

다니엘: 지혜가 그런 상처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사실 나도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집이 잘 사는 형편이 아니라, 모자 보호소 이런 곳에서 살기도 했어요. 나는 어린 나이에도 추운데 언니 청바지를 손으로 다 빨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느 날은 보호소에 같이 살던 다른 아이의 엄마가 이유 없이 내 뺨을 때린 적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나한테도 가정을 돌봐야한다는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대를 나왔는데, 다시 교대로 가서 교사가 됐고...

지 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강박이 어떤 상처로부터 생길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열심도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집사님도...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다니엘: 맞아요. 아빠가 없었던 게 너무 힘들었어.

좀처럼 다른 이들에게 슬픔의 감정을 보여주지 않던 소탈한 다니엘이 아버지 이야기에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통해 막연하게 다가왔던 답답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다니엘과의 첫 모임에서 그녀와 함께 들었던 찬양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노래”...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윈 다니엘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시작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상처의 근원에 직면하는 것은 매우 아픈 일이지만,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내적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의 상처는 그저 의미 없는 조각들이 아닌,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타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밀려오는 막연한 아픔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자각하기도 한다. 다니엘과 나는 존재의 상처를 나누는 대화를 통해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상처를 자각할 수 있었다.

(3) “새로운 피조물”: 전환의 체험

다니엘의 상처가 만져진 그날 밤, 다니엘은 한 꿈을 꾸게 되었다. 다니엘은 이 날의 대화를 시작으로 자신의 존재에 새겨진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였고,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전환되는 체험을 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오전, 다니엘은 나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다니엘: 간밤 꿈에 내 ‘아토즈’ 차로 주차장 나오다가 앞으로 박고 뒤로 박고... 운전 잘 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앞뒤 찌그러진 차 외관이 통째로 들려 치워지고 안에서 강철로 된 경주용 차가 나와, 저와 제 남편이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ㅎㅎ 꿈 되게 좋지? 오늘 기도하는데 “저 아프고 외로울 때 그때도 함께

계셨어요?” 물었는데 문 두드린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만 오시는 겸손한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 다음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꿈이 다 해석되네요.

지혜: 아멘~^^ 트랜스포머 ㅎㅎㅎ

다니엘: 이사야 40장 4절 말씀도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제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어려운 얘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꼭 제 얘기 같아서 (제 상황은 좀 덜 심했지만.^^;) 내 성장과정이 돌아보아졌어요.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시고 치유해 주시네요.

지혜: 아멘. 사단은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서 실족하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곳까지 찾아와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의 상처 난 곳에 보좌를 베푸시고 생명수 샘을 주시는 분 같아요^^ 집사님~ 이사야 61장 1~3절이 떠오르네요♡ “주 여호와와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 찬양도 함께요^^ …(중략)…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surely I am with you always)♡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시 붙들니다^^ 영어로 보니 더 확실하네요 ㅎㅎㅎ

다니엘: 옛날엔 죽어있던 말씀들이 이젠 하나하나 살아서 움직이고 춤추네요. 아이 좋아~ 기쁜 하루 보내요.^^

타인과 함께 삶의 아픔과 상처를 나눔으로써 다니엘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자신이 자각하지 못했던 “나도 모르는 나”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막연했던 자신의 존재와 삶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 보이며 물었다. “제가 아프고 외로울 때 그때도 함께 계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깊은 상처 가운데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요청과도 같았다.

다니엘의 꿈에서 그녀가 타고 다니던 오래된 작은 차는 강철로 된 경주용 차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낡은 상처에 속박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된 것과 같은 존재의 전환이 이뤄졌음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자신의 존재에 담아보고

이해하려고 애쓰던 말씀들을, 다니엘은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 안에서 “죽어있던 말씀들”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고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내면의 상처를 깨닫게 되는 대화 속에서 다니엘은 존재의 전환이라는 계기를 맞이했다. 그녀는 이러한 존재 전환을 기반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것을 체험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녀의 열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지식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면이 있었다. 다니엘의 경우, ‘인식의 전환’은 더 많은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새 피조물”과 같은 ‘존재 전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는 ‘인식’의 토대와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인식을 넘어 존재로 향하는 대화를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4) 상처의 근원에 대한 이해

2015년 4월, 나는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연구하고자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상일지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학술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 하던 다니엘에게 연구계획서와 회상일지의 일부를 이메일로 전해 주었다. 2015년 6월 14일, 다니엘은 자신과의 만남을 기록한 회상일지를 검토한 후, 나와 만나서 자세히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다니엘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아후... 지혜가 기록을 남겨놓은 덕분에 내가 가진 기억보다 더욱 생생한 걸~ 난 세월 속에 보물을 묻어 놓았지 정도만 기억하는데, 지혜는 그 보물의 색깔과 모양과 반짝임의 강도까지 기록을 해 놓았으니... ㅎㅎㅎ 넘 고마워요!!! 내용에선... 몇 가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내 아버지 부재에 관한 부분이랑, 외로운 순간들에 대한 파노라마가 지나간 일들이랑, 이름 모를 소녀 “루시”가 떠나간 날이랑... ^^ 얼굴 보고 얘기 나눠요.

2015년 6월 15일, ‘연구자와 참여자’로서 나는 다니엘과 처음으로 대면하였다. 다니엘은 이날 자신의 신앙 여정을 기록한 ‘동행일기’와 자료집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다니엘의 일기 덕분에 나는 2013년부터 이뤄진 만남의 정황을 살려 회상 자료를 보충할 수 있었다. 당시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다니엘의 내면에서 겪고 있던 마음의 변화들을 그녀는 일기를 통해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다니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뒤, 면담의 내용을 휴대전화에 녹음하며 메모를 하면서 다니엘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주로 다니엘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비구조화된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다니엘의 내면의 치유와 그녀의 생애에 대한 구술이 중심이 되었다.

이 날의 면담을 통해 나는 ‘카카오톡’ 대화로는 알지 못했던 다니엘의 내면의 구체적인 변화들과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참여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면담을 수행하면서 참여자들을 또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면담을 통해 나는 참여자들의 전체 생애 속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며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나누는 대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1) 상실의 두려움과 강박

2013년에 만났을 당시 다니엘은 성령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고” 또한 “너무 신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다니엘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미지의 존재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나는 다니엘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을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다니엘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 즉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처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감정이었다. 다니엘은 면담을 통해 당시의 마음 상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다니엘: 그때 내 상태가 어땠냐면, 성령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성령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고, 내 눈 앞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라는 두려움이 같이 있었던 때야.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이제 운동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 성경을 혼자 읽어. 기도를 해. 그럼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더 해야 될 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후에 다시 성경을 펴 들어. 무슨 일을 하듯이 그 일을 자꾸 반복을 하는 나의 모습이... 아~ 그러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기쁘고 즐겁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무감처럼 계속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야. 우리 모여서 기도했을 때, 환상⁹⁾으로 보여주신 게, 그루터기에 칼 꽃힌 환상을 나한테는 보여주셨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

연구자¹⁰⁾: 그 시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응. 그 시간에 그루터기에 칼이, 네모난 이런 칼이 있었어요. 정육점에서 쓰는 것처럼 네모난 칼날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꼽혀 있었어요. 그루터기에. 그래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뭘까?’를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그때 지혜가 “하... 뭘지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해서 혹시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을 거야, 에스더한테.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내가 계속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기쁨이 없고 답답하고, 그런데 보여주신 건 칼이잖아. 하하하 (웃음).

연구자: (함께 웃음)

다니엘: 그리고 그 칼을 보면서 뭔가 끊어내라는 사인[sign]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안,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그때 그래서 고백을 한 거야. 그때 지혜한테 고백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좋은데 내가 돌아서면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지혜가 아버지의 부재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는 연관을 시켜본 적이 없거든. ... (중략)...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라는 걸 지금은 아

9)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vision)’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적 욕망의 표현으로서의 ‘환상(fantasy)’과는 구분된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환상’은 ‘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꿈이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방편으로 이해되었다.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역할을 한다(생명의 말씀사(2006), 라이프성경사전 참고).

10) 나는 연구의 맥락에서 수집한 면담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자’로 표기하여, 회상일지의 대화와 자료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는데, 그때 당시는 내가 그런 상태의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다니엘에게서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존재가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은 존재를 붙잡고자 하는 강박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존재는 그 본질상 소유하거나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존재가 떠나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기 위해 표현된 의무감의 굴레는 성령의 존재를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다니엘의 내면에서 점점 빼앗아갔다. 이러한 다니엘의 마음 상태가 나에게서는 그녀의 심각한 표정과 함께 막연한 답답함이라는 느낌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면담을 통해 나는 다니엘의 강박과 두려움이 더 근원적인 상처에 뿌리를 둔 것임을 알게 되었다.

(2)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아버지

나는 다니엘과의 면담을 통해 유년시절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아빠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다섯 살 어린 나이, 그녀는 아버지를 폐암으로 잃었다. 추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유년시절의 아버지는 학창시절에도 그녀의 꿈에 자주 나타나고는 했다. “근데 학창시절에 어떤 꿈을 꿨냐면.” 다니엘은 아버지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¹¹⁾

늦둥이 아들이라 곱게 자랐던 아빠. 농사를 하기 싫어했던 아빠는 사우디로 일을 하러 가셨다. ‘저 집은 사우디에 안가도 되는데, 저 아들은 갈 애가 아닌데...’ 동네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는 게으른 아빠가 사우디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다. 엄마는 딸만 줄줄이 넷을 낳아놓고, 농사일은 하나도 안하고 사우디로 간 아빠를 원망했다. 엄마의 인생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나쁜 아빠... 그런데 나에게서는 아빠에 대한 좋은 추억이 남아있다. 아빠가 사우디에서 돌아올 때면, 아빠는 나를 번쩍 안아 비행기를 태워주셨다. 그리고는 신기한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

11) 나는 면담 내용의 훼손 없이 어미를 수정하여, 아버지에 대한 다니엘의 추억과 꿈을 다니엘의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참여자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살리고자 할 때, 나는 면담 내용을 참여자의 1인칭 시점으로 전환하여 인용하였다.

보여주셨다. 3D 낙타 사진, 호랑이 사진... 오늘도 어?! 아빠가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아빠~!” 나는 아빠에게 힘차게 달려가 아빠의 품에 안겼다. 그런데... 꿈이었다. 아빠는 오늘도 이렇게 신기루처럼 나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꿈에서 깨고 나면 우리 아빠는 더 이상 내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장면이 나의 꿈에 자꾸만, 자꾸만 나온다.

자신의 꿈에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다니엘: (눈물이 고이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돌아서면 하나님은 나랑 끝 아닌가?’ 이런 생각.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지혜가 해 준 얘기가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라고. 강하게 붙들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하고 아빠하고 틀리구나[다르구나].’ 이제 그런 정도의 지각을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가 떠나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강박의 심층에는, 너무나 좋았던 아버지의 존재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외로움’이라는 더 근원적인 상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다니엘은 아버지의 꿈을 꾸지만, 꿈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아버지의 존재는 어느덧 사라져 버리고 만다. 아버지가 사라진 존재의 공허와 정적만이 방안을 가득 메우고, 다니엘은 홀로 남겨져 있음을 발견한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느낌과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두려움’을 상처로 안고 살아갔다.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들은 그녀에게 존재를 붙잡고자 하는 ‘강박’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3) 외로운 소녀 “루시”가 떠나가다

2013년 10월 24일, 다니엘이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처를 직면하게 된 다음 날, 다니엘은 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유년시절부터 다니엘에게 형성

된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자아가 그녀의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사건이기도 했다. 기도 시간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루터기에 꽂혀있던 네모난 칼”처럼, 그녀의 귀에 들린 한 음성은 그녀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끊어낼 부분”을 들려준 사건 같았다. 그 후, 다니엘이 겪었던 삶의 순간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착착착착착, 쭉~” 지나가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면담을 통해 그날의 체험을 들려주었다.

다니엘: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진짜로. (웃음)

연구자: 음~ 귀로?

다니엘: 난 지금도 음성, 마음으로도 그렇고 어떤 음성으로는 잘 모르고, 하나님이 거의 화면이나 환상으로 보여 주신다거나 꿈으로 보여 주시거나, 잠깐 얼핏 잤는데 무슨 단어 하나가 오거나 이런 거지~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적은 지금도 거의 없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름 모를 소녀야 떠나라. 루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연구자: 음~

다니엘: 그 소리가 들렸어요. ‘루시’라는 이름도. “이름 모를 소녀야 떠나라.”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이름 모를 소녀에게 이름을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루시”라고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 왜 외로운 소녀 있잖아요. 너무 외롭고, 내가 알아서 혼자 다 하려고 한 그 외로운 소녀~ 아마 그 ‘루시’라는 이름 자체가 ‘루시퍼’나 이런 데 다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스스로 쌓은 어떤... 내가 사단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내 외로움을 하나님께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그 몫을 다 하려고 열심히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 소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사단의 영에 속한 거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잖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삭 지나간 게 “이름 모를 소녀야 떠나라. 루시”였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그리고 잠시 기도를 하는데, 파노라마가 쭉 지나갔어요. 그 파노라마가 뭐였냐면, 내가 혼자 애쓰면서 살던 모습 있잖아.

다니엘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외로움을 형성했던 “이름 모를 소녀 루시”가 떠나가면서, 그녀의 눈앞에서는 지나온 그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년시절부터 성인기까지 그녀에게 외로움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했던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치유의 빛 가운데 재조명된 사건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순간들을 다니엘의 1인칭 시점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었다.

폐병으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가난이 찾아왔다. 가난은 나에게 수치스러운 기억을 만들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대학교 때, 나는 과외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혼자 과외로 돈을 벌어서 새벽 같이 수영도 다니고 운전면허도 땀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모습이였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내 눈 앞을 쭉 지나가기 시작한다. 너무나 외로운 모습,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모습들...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그럼 그때도 나랑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내가 의식적으로 꾸며낸 장면이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내 삶의 순간들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 것이겠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소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떠나실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밀려온다. 나에게서는 영원하신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유년시절부터 그녀의 정체성을 형성하던 “외로운 소녀”는 이제 그녀의 존재로부터 떠나갔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외로운 순간에서도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 “너무나 외로운 모습,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모습들”이 다니엘의 존재를 형성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녀는 삶의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니엘의 정체성이 “고아”에서 “자녀”로 변화된 전환의 순간이었다. 다니엘에게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상실된 상처와 외로움은 신이라는 영원한 아버지와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었다.

(4)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서

다니엘에게서 “이름 모를 소녀 루시”가 떠나간 날, 그녀는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깨끗해져” 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존재에 “평안이 그냥 찾아와” 버렸다. 그녀는 상처의 근원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어떤 한 빛이 비춰진 것만으로도 치유가 이미 다 된 그런 기분”이었다. 실제로 다니엘의 근원적인 상처가 치유된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하나씩 더듬어가며,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다시 찾아가는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다.

다니엘: 내 기억 속에, 삶 속에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뭐 그런 존재인데, 그냥 존재 자체를 내가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우리 엄마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아빠는 한량이었고, 도박했고, 먹지도 못하는 술 먹어서 맨날 토하는 사람이었고, 엄마를 구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요. (웃음) 근데 감사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빠는 사우디 가서 선물 사 가지고 오시는 아빠. 나를 [안아서] 비행기 이렇게 태워 주잖아요. 비행기 태워주던 아빠. 자전거 뒤에 새우깡 실어갖고 오시던 아빠. 그 모습이 남아있어. 나한테는. 그리고 병풍 뒤에서 피 토하시던 아빠. 그러니까 나는 좀 아빠가 가여우신 분. 그냥 나 사랑해주시던 장면 장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중략)… 나이로는 한 다섯 살? 그때 기억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나를 낳아주신 아빠가 있다는 거. 내 아빠가 나에게 소중한 사랑의 기억을 남겨주고 가셨다는 그 사랑의 기억들을 더듬더듬 더듬거리면서 내가 찾아갔던 기억들이. 그냥 아빠의 모습이, 그런 기억을 남겨주신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빠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다니엘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다시 더듬어가기 시작했다. 다섯 살 유년시절에 함께 했던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들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던 아버지의 존재가 점차 선명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아버지와의 소중한 사랑의 기억을 더듬거리며 찾아 가면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다시 채워 나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다. “내가 아빠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제 다니엘은 추억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되찾음으로써 ‘아버지가 있는 존재’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

다니엘: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풍성한 아버지인 거예요. (웃음) 하나님이 내게 뭐 부족해 갖고 나에게 이거는 주고 [이거는] 안주고 그런 아빠가 아니라, 그냥 너무 부요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다가 눈물을 흘린다) 다 주고 싶어 하는 그 아빠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서른아홉에 곱게 자라서 뭘 어떻게 감당해야 될 지도 모르는 아빠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겨주신 기억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부요하신 어떤 것을 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냥 나에게 다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이 혼자 힘으로 애쓰고 살아온 다니엘은, 육신의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듯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가며 단절된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과정에서, 그녀는 부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었다. 다니엘은 아버지라는 타인과 하나님이라는 타자와의 단절된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존재의 결핍을 채워갔다. 이렇듯 타자와의 관계와 존재의 결핍, 내면의 상처와 자아 정체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5)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연습

2013년 12월, 다니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녀는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였다. 참여자들과 다니엘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이어갔다. 새로 등록하게 된 교회에서 다니엘은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면의 상처에 직면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치유 프로그램이었다. 그 과정에서 다니엘은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처를 넘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아직 다니엘의 마음에는 “외로운 소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의 패턴, 생각의 패턴들이 남아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과거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벗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마음의 연습이 필요했다.

(1) 가난의 수치에서 고귀한 섬김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윈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며 살아왔다.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가난이라는 경제적 고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난으로 인해 모자보호소에 들어가 살기도 했던 그녀에게는 가난이 남긴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있었다.

다니엘: [내적 치유 프로그램 섬김이를 하면서] 내 유년시절에 가장 추웠던 기억 중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우리 엄마를 도우려고 시장에서, 분명히 수레가 아니었을 텐데 수레 같은 거에 짐을 싣고 가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 다니는 옆 반 남자 애가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사실은 엄마를 도와드리는 고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 거야.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까?’라는 생각에, 그 모습이 되게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야, 나한테는. 지금 생각하면 구지 그렇게 수치스러운 장면도 아닌데 나한테는 그게 추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섬김이로 하는데... 웬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억이 떠오른

다”고 나눴지. 근데 그게 아마 그 섬기는 자? 내가 섬기는 게 고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의 시선으로 내가 바라보게 됐을 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소유 지향적, 물질 지향적 사회 속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열등감과 초라함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가난이 만든 박탈감은 “자꾸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이들과의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초라함을 느끼게 하였다. 타인을 섬기는 행위 자체도, 남들보다 존재 가치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사고와 감정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니엘에게 아버지의 부재라는 ‘존재의 결핍’은 가난이라는 ‘물질적 조건’을 가져왔다. 이는 또 다시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참된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초라함과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 조건’을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관적 체험으로부터 형성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섬김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워가고 있었다.

(2) 역울함과 애쓰에서 힘을 빼는 안식으로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을 통해 겪은 결핍감과 수치심은 다니엘의 내면에 역울함과 애쓰는 마음을 만들었다. 다니엘이 새로운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전도사가 다니엘을 위해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도사의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그녀도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되어 어쩔 줄 몰랐다고 한다. “하나님, 역울해요. 하나님, 저만 거룩한 줄 알았어요.” 전도사가 자신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고 다니엘은 고민에 잠겼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에 세상과 타인을 향한 원망이 있음을 깨달았다. 다니엘은 그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면, “니들이 나처럼 아프고 힘들어봤어?!”하는 쓴 마음과 원망이 밀려올 때가 많았다.

다니엘은 중학교 때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했다.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다녔지만 성인기까지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휴직을 결정하게 된 시기

에 나를 비롯한 참여자들을 만났던 것이다. 이처럼 다니엘의 삶에서 오래된 신체적 고통은 세상과 타인을 향해 쓴 마음을 품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아버지의 부재라는 존재 조건과 가난이라는 물질 토대, 벗어나기 힘든 신체의 고통이라는 현실이 얽히지면서, 다니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과 타인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쌓여갔다.

2014년 6월, 다니엘은 물리치료를 받으며 치료사를 통해 “제대로 걷는 연습”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의 습관화된 걸음걸이 때문에 척추가 비뚤어져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계속되는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다니엘은 마치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처럼, 한발 한발 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다니엘의 걸음걸이를 보며 치료사도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다니엘은 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하면서, 비뚤어진 척추처럼 자신의 삶에서 비뚤어졌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4년 6월 27일, 다니엘은 ‘카카오톡’을 통해 나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이제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니엘: 주님께서 허리치료 이제는 가라고 하시더니 하루에 한 개씩 친절하게 저한테 빛으로 조명해 주시네요. 중2부터 있던 허리디스크 통증이 두려워, 저는 허리 대신 가슴과 어깨에 과도하게 힘을 주어 살아오며 여기저기 통증에 시달려왔어요. 힘 빼고 걸으니깐 너무 편안한 거예요. 물리치료사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고. 내 힘으로 악다구니? 써가며 착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애써왔어요. 그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반대로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억울해하며 분을 내고...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힘 빼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들 다 내게 주고 너는 내 안에서 좀 쉬렴. 내 사랑하는 자야.”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있을 때 나는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서고 앉고 걷고 뛰겠죠? 그 품에서 쉬렵니다. 세상 모든 것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 안에만 있으렵니다.

다니엘과의 첫 기도시간에 나에게 떠올랐던 마음이 다시 생각났다. ‘나의 사랑 안에 안기고,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서 안기고 안식하는 삶이었다. 과도하게 힘을 주고 애쓰며 살았던 삶, 그렇게 홀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과 타인을 향해 품었던 원망과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안식함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건네지고, 그녀는 안식의 자유를 누리하고자 한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닌, 창조주를 통해 빛어지는 모습대로 평안 가운데 살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삶의 주체가 되려는 존재의 애씀이 아닌, 존재 자체를 창조주께 맡기는 자유와 안식, 그리고 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었다.

(3) 타인을 향한 이해로 나아가기

다니엘은 내면의 치유를 체험하면서 그녀의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특히 그녀는 가장 외로워 보이는 둘째 언니를 향해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둘째 언니는 자신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다른 가족들과는 대화가 오가는 편이었지만, 둘째 언니는 그 누구와도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언니는 학창 시절부터 방황을 했고 결혼 이후에도 복잡한 가정사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런데 가족들은 모두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예전에 다니엘은 둘째 언니를 보며 생각했다. ‘재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다니엘은 언니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내면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부재가 만든 깊은 외로움을 발견했다. 다니엘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둘째 언니의 내면에 있는 깊은 외로움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가장 외로웠을 언니에게 다가가기 위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다. 다니엘은 면담을 통해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것을 다니엘의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언니한테 꼭 고백해야지 다짐했는데, 아직 고백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성적으로 왜곡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까? 나는 그저 호기심으로 언니가 자고 있을 때 언니의 가슴을 몇 차례 만진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는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성추행인 거였다. 언니가 만약에 깨어 있었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자존감이 낮은 우리 언니, 자기 자신에 대해 언제나 비하하는 우리 언니가 자기 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을 품으면 너무 죽을 것 같이 싫고 수치스러웠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장면이 떠올랐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용서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나의 상처들도 편지에 함께 적었다. 언니가 보기에는 내가 공부 잘 하는 모범생이었고 늘 여러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나는 항상 외로움 속에 있었다고... 그리고 이 모든 외로움의 근원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가장 큰 상처였다고. 언니도, 나도, 우리 가족 모두 서로 교통 없이 그렇게 외로움 속에 살던 사람인 것 같다고... 언니는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고 철저한 외로움 속에 살았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다니엘은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의 눈'을 갖게 되었다. 타인의 삶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상처, 즉 총체적인 삶과 마음의 동기와 아픔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한 순간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다. 타인을 향한 판단을 벗고, 긍휼과 이해의 시선을 갖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통해, 다니엘은 타인을 향한 이해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그로 인해 찾아온 가난, 기댈 곳 없이 자신의 힘으로 애쓰며 외롭게 살아왔던 다니엘은 잠잠히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치유의 여정을 거치며, 자신의 지나온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기록에 남겨 두었다.

아빠가 안 계셨다. 늘 내 힘으로 삶을 꾸려왔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은데, 내가 주께 가까이 붙어있지 않으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아빠 같았다. 돌아가신 아빠가 꿈에만 나왔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사라지는 것

같이... 아빠의 빈자리 대신 엄마를 늘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다. 엄마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행위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편이셨던 것 같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참만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 또한 늘 곁에 있는 남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와 성령님이 실재이기에 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약속도 나에겐 실재이다.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

다니엘은 치유의 여정을 통해 유년시절부터 형성되었던 내면세계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와 연결된 타인, 특히 가족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부재가 만들었던 빈자리,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외롭게 꾸려온 삶을 성찰하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근본적인 상처를 발견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의 존재를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새로이 깨달을 수 있었다. 육신의 아버지의 존재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 되찾은 다니엘은 이제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의 정체성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였다.

2018년 8월 29일, 앞에서 기술한 “다니엘과의 대화”를 읽고 다니엘은 나에게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나누었다.

다니엘: 논문을 통해 내 내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네요. 그 순간의 단편 단편들이 모여지니 신기하게 모르던 내 내면세계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네~ㅎㅎ ...(중략)... 지혜 논문을 보며 그런데 난 왜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려고 하지? 내 온 존재가 정말 버거운 아이들한테 쏠려있는 이유는 뭘까? 그들의 역기능적 부모와 나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방법이 세상과 통하기는 하는 걸까?...

머리로 진리체계가 정돈되면 손발이 기꺼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나면 행하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나는...ㅋㅋㅋ [그런데] 예외로 적용되는 게 아이들이야. 진짜 버거운 아이들 앞에서는 (지혜 표현에 의하면) 공황이 마구 부어지면서 물불 안 가리게 되고.. 아마 외로웠던 나, 혼자 끄끙대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글로 다 표현은 못하겠고, 여튼 논문 통해 내 내면과 세상을 돌아보는데 힌트를 얻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끝까지 잘 기록, 분석, 해석해 줘야해^^

초등학교 현장으로 복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다니엘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대학원 상담과정에 진학했다. 학교 현장에서 상처받은 아이들과 대면하며 좌충우돌하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자꾸만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이제 결핍된 존재가 아닌 충만하게 채워진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또 다른 타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니엘의 경우, 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감으로써, 존재의 상처와 결핍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것은 더 많은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타자와의 존재적 만남과 관계성의 회복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인식에서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나는 타인을 이해하는 관점을 존재론적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마리아와 나는 대화: 편견 없는 시선

사회적 존재로 길들여진 모습이 아닌 타인의 내면을 질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질적 이해는 내면의 치유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 것일까? 나는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는 사회적·문화적 시선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은 타인과 열린 대화적 관계를 맺는 데 큰 장벽이 됨을 깨달았다. 반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안아주는 대화는 타인의 존재를 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태도이자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대화의 방식임을 발견하였다. 나는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외부의 시선과 벽을 극복하고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깨달았다. 다음에서는 마리아를 향한 편견어린 시선을 극복하고 그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진

심을 나누는 친구 관계로 나아가기까지 겪었던 고투의 과정을 기술하였다.

1)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얼굴

(1) 사회적 ‘가면’과 ‘진심’ 사이

마리아를 처음 만난 곳은 교회의 영아부 예배에서였다. 마리아는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울동을 하며 아이들과 부모들의 예배를 돕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마리아가 아직 미혼인 교회의 전도사인 줄 알았다. 그러나 후에 나는 마리아가 평신도이며 초등학교 딸을 가진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나에게 비친 마리아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생기가 있는 모습이었다.

나보다 먼저 교회에 소속되어 사역에 참여하고 있던 다니엘은 마리아의 또 다른 얼굴을 본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어느 날 마리아가 아이들 앞에서 밝게 울동을 한 후에, 피아노 옆에 기대어 “죽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다니엘은 마리아의 두 얼굴을 보며, “저 여자 진짜 이상한 여자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어쩌면 다니엘은 친절하게 웃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 뒤에 가려진 삶의 버거움과 고통을 적나라하게 발견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병문안을 통해 마리아의 귀가 치유된 체험을 계기로 나와 마리아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그러나 마리아의 삶에 다가갈수록 그녀에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몰라 막막한 마음이 들었다. 파도처럼 인생의 고난들이 그녀를 향해 계속해서 덮쳐오고 있었다. 삶의 버거움과 쓴 마음을 가지고서도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마리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도 무척 안타까운 일이었다.

때때로 나는 마치 미로 속에 들어온 것처럼 마리아의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와 나에게만 털어놓는 그녀의 진심은 상반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녀는 때로는 마음속에서 그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 교회의 일에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그녀의 모습 이면에는 쓰디쓴 원망과 상처가 공존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러한 속내를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는 했다.

그러나 아직 그녀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다른 이들을 대하는 마리아의 사회적 얼굴을 바라볼 때면, 나는 마리아의 진심이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내가 마리아를 보며 느낀 혼란은 그녀가 자주 쓰는 ‘사회적 가면’과 나에게 열어 보이는 ‘진심어린 얼굴’ 사이의 괴리 때문이었던 것 같다. 2015년 5월 6일, 나는 같은 교회에 있던 마리아의 친구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이 자주 쓰는 ‘사회적 가면’이 교회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윌: 지혜야, 어른들은 가면을 자유자재로 잘 쓰고 벗는단다.

지 혜: 그런 거였어요? 저는 집사님들이 마음을 나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다 윌: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더 친한 척 하는 걸. (웃음)

지 혜: 뭐예요. 그런 거였어요. 속았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불편해하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더 두터운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도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온 현실이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일수록, 교회라는 곳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형식적인’ 사랑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속내를 감춰야 하는 곳이기도 했다. 서로의 진심을 나눌 수 없는 가식적인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서로를 판단하고 험담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함께 있지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갔다.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존재의 거리감은 사람들 속에 함께 있지만 정작 존재적으로는 고립된 외로움의 상태가 지속되도록 만들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오랜 시간 고립감 속에서 홀로 고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리아는 나에게 “그때 지혜에게 고백했던 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그것은 다른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참여자들에게 “고백”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존재를 열어 타인과 깊은 마음을 나누는 진심어린 대화의 순간과 관계를 뜻하는 것이었다.

‘함께 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나는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함께 있음의 다양한 깊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음의 차원을 넘어, 타인의 존

재를 마주하는 ‘관계의 깊이’까지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다.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를 통해 관계의 깊이를 체험하면서, 서로의 존재와 삶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 마음쓰임과 돌봄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대화적 관계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쓰임과 돌봄 속에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 갔다. 다니엘은 이전에 마리아의 얼굴에서 느낀 불편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향해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오히려 마리아의 이해할 수 없는 얼굴이 다니엘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른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타인을 향한 ‘관심’과 ‘마음쓰임’의 감정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어느새 다니엘의 불편한 마음은 타인의 존재와 삶에 다가서려는 구체적인 관심과 돌봄의 행위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어느 날 마리아 가족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마리아가 입원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에는 자신의 집 앞에 죽어있던 비둘기 한 쌍이 떠올랐다. 어느 날, 다니엘의 집 앞에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 비둘기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 ‘내가 저 비둘기들을 조금만 돌봐줬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다니엘은 죽은 비둘기들을 붙잡히 여기던 중에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고, 쓰러져있는 비둘기 한 쌍이 마리아 부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고 한다. 나 또한 어느 날, 커피숍 창가에서 비둘기 몇 마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마치 그 비둘기들이 마리아의 가족들처럼 느껴져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마리아가 퇴원한 이후에도 나는 다니엘과 함께 마리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돌보기 시작했다. 기도 안에서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마리아를 향한 마음쓰임은 계속 되었다. 2013년 9월 12일, 나는 찬양 속에서 마리아를 떠올리며 ‘카카오톡’으로 찬양의 가사를 보냈다.

지 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마리아: 아멘!!♡ 오늘은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빴네. 바빴던 만큼 피곤도 하고. 중간 중간 보내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불러보며 은혜도 받고. 지혜도 잘 지냈지? 날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은혜를 소망하게 되네. 다니엘 자매가 선교사님 책을 빌려줘서 책 속에서 있는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해보려고 해. 넘넘 고맙고. 평안한 밤 되그라 지혜야♡

나는 복음이의 유산을 겪으면서 마리아의 고난에 함께 마음 아파하는 긍휼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마리아의 귀가 치유되었던 일을 계기로 마리아와 나의 관계는 급속하게 가까워졌다. 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찬양이나 기도를 마리아에게 보냈다. 나는 주로 마리아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안부를 물었다. 마리아 또한 나의 건강과 첫째 아이의 안부를 물으며 우리는 가끔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당시 마리아는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했다. 나는 남편과 상의하여 마리아의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며 그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마리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통해 나는 점차 마리아의 복잡한 삶의 문제를 보게 되었다. 나 또한 마리아의 삶의 문제 안에 파묻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마리아의 일상의 문제와 영혼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관계를 통해, 마리아와 나 사이에는 점차 신뢰와 우정이 쌓여갔다. 마리아를 향한 마음쓰임은 돌봄의 행위로 이어졌고, 이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적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었다. 돌봄은 타인에 대한 마음쓰임에서 비롯되는 지향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돌봄은 타인의 결핍된 부분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응답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돌봄의 행위를 통해 참여자들과 나는 서로의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

2) 고백적 대화

(1) 마리아에 대한 꿈: “30억의 빛, 숨겨둔 아이의 장난감”

마리아와 개인적으로 만나 하나님에 대해 나누게 된 것은 2014년부터였다. 나는 마리아와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성경의 <시편>을 정리하여 나누었다. 마리아와 말씀 나눔을 하기 전날, 나는 마리아에 대한 꿈을 꾸었다. 나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혹시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2014년 1월 13일, 나는 마리아와 말씀 나누는 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꿈 이야기를 건넸다.

지 혜: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한 꿈을 꿨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꿈에서 집사님 집에 저랑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명의 남자들이 집사님 집 물건을 차압하려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벨을 누르는데,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포기한 표정으로 그냥 문을 열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 집에 아이 장난감이 든 가방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이 가방만은 못 가져가게 숨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롱에 숨겨뒀어요. 그 사람들이 집사님 집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가 빛을 갠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건들이라며 돌아가라고 울면서 간곡하게 설득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집사님 빛이 3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 빛이 정말 30억이나 되는지...

나는 마리아도 모르는 시아버지의 빛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 내심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마리아가 숨겨달라고 했던 아이 장난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마리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얼버무리듯 이야기했다. “우리가 모르는 아버님 빛이 더 있을 수 있지. 우리도 몰랐다가 알게 된 빛도 많으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화제를 바꾸어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리아: 지혜야, 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 다니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에스더가 나에 대해 힘들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에스더가 다니엘한테 그랬대. 마리아 집사님은 무슨 꿈꿉이인지 모르겠다고. 지혜야, 나 그런 사람 아난데. 나는 좋고 싫은 거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다니엘한테 에스더 이야기도 계속 듣고 있었고, 에스더가 나 입원했을 때 기도해줬다는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마리아는 다니엘의 친구 에스더에게 받은 오해로 인해 속상해 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다니엘과 에스더, 다윗이 함께 한 모임에 마리아를 초대할 적이 있었다. 그때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었지만, 나에게서는 조심스럽게 속내를 비춰 주었다. “지혜야, 나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마리아의 이 불편한 마음이 전해졌던 것일까? 영적으로 예민했던 에스더는 마리아에 대해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날 나는 마리아로부터 꿈에 대한 실마리를 얻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는 나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밝은 마음이 되어 돌아갔다.

마리아는 그날 저녁 나에게 ‘카카오톡’을 남겼다. “오늘 쏟고 진심을 얘기하니 시원해. 이제부터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쌓아가려고. 함께 해 줘서 감사해 지혜야.” 마리아가 나에게 쏟아놓은 ‘진심’은 무엇이였을까? 오해받아 속상한 마음이였을까? 약 열흘 뒤, 나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마리아가 나에게 쏟아놓고 싶었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값어치 없이 무거운 그녀의 마음의 빛과 죄책에 관한 것이었다.

(2) 숨겨둔 과거에 대한 고백

2014년 1월 24일 유독 추웠던 겨울 날, 나는 마리아의 건강이 걱정되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돌발성 난청이 나아져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마리아는 자주 몸이 아팠다. 마리아는 수척해 보이는 얼굴에 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아파트였지만, 현재로서는 난방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보일러를 켜지 않은 상태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집 안으로 스며드는 추위를 막기 위해 거실 가운데는 텐트가 놓여 있었다. 텐트 안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다. 학습

지 교사를 하는 마리아는 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텐트 안에서 수업을 했다. 마리아와 나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지 혜: 분위기 좋은데요? (웃음)

마리아: 텐트가 있어서 올 겨울 살았지 뭐야. 지혜야, 그런데 나 할 말이 있어. 놀라지 말고 내 말 들을 수 있지?

지 혜: 무슨 이야기인데요, 집사님? 안 놀라고 들을게요. (웃음)

마리아: 사실은 내가 말이지... 지난번에 지혜가 내 꿈 꿴다는 얘기했을 때, 이야기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 지혜야, 내가 예전에 좀 놀았다고 했잖아.

지 혜: 집사님이 껌 좀 씹으셨다고 하셨죠. (웃음)

마리아: 지난번에 에스더가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내가 숨기고 있는 과거 때문에 에스더가 나에 대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낀 걸까 해서. 지혜야, 사실 내가 청소년 때부터 방황하면서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거든. 나이트도 많이 가고. 그런데 그때 춤추는 한 오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오빠가 나를 강제로 임신 시켰어. 그 뒤로 결국 결혼까지 하고, 남자 아이를 낳게 되었고.

지 혜: 그러면 지금의 남편 집사님은...

마리아: 응. 전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한 거야. 지금 남편에게서 딸을 낳은 거고. 전남편이랑 살 때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 여자들을 사서 팔아넘기는 포주였거든. 술, 도박은 일상이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을 대더라고. 감방에도 여러 번 가고. 나도 그 사람한테 많이 맞기도 했지. 아들 앞에서 맞기도 하고. 이대로 맞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 나온 적도 있어.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야. 전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딸아이를 임신하고서 아들을 만나러 갈 때에도 압박 봉대로 배를 꼭 동여서 갔어. 전남편이 사람을 사서 남편을 죽이려고 했거든.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으면 아이까지 죽이려고 했을 거야.

지 혜: 아들은 전남편에게 있나 봐요. 많이 보고 싶겠어요. 집사님...

마리아: 지금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 아들을 돌봐주고 계셔. 아들이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 중이거든... 내가 부모님께 무거운 짐을 드렸지... 먼발치에서 아들을 보고 울면서 돌아올 때도 많았지...

지 혜: 집사님... 집사님,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눈물)

마리아: 매일 가슴이 아파서 사는 것 같지가 않았지. 뜬 눈으로 밤을 샌 적도 많았고. 아들도 너무나 데려오고 싶었는데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더라. 이제는 아들에 대한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 그리고 나니 지금은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해. 지혜야.

나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마리아를 꼭 안으며 흐느껴 울었다. 그동안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마리아의 삶을 그저 안아주고 싶었다. 마리아도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그렇게 안고 있었다. 마리아의 담담한 모습에 내 마음이 더 아파왔다. 그동안 남몰래 흘렸을 눈물, 어미로서 가슴을 치며 수없이 흘렸을 눈물이 마리아의 담담한 얼굴 뒤로 흐르는 것 같았다.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비로소 나는 마리아에 대한 꿈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의 존재와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마리아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아이의 장난감, 그것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키고 싶던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다.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마리아는 이후에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을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을 두고 떠난 어미의 마음, 그것은 30억이라 해도 모자란 값을 수 없는 마음의 빛과 쓰디쓴 죄책이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 둘 수밖에 없던 존재의 고통을 보게 되었다. 나는 멍멍해진 마음으로 마리아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험난한 그녀의 삶이, 그 거친 여정에도 불구하고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 같았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리아에게 ‘카카오톡’을 남겼다.

지 혜: 오늘 집사님이 나눠주신 삶이... 저에게는 감추어진 보석처럼 보였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언니가 저에게 했던 고백이 떠올라요.

“지혜야, 나 이제는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아.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야.” 집사님, 감사해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요.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기를♡ 사랑해요♡

마리아: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을 확신시켜 준 지혜에게 넘 감사하지. 지혜 언니의 고백을 통해서도 은혜가 넘치네.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내가 무얼 더 바랄 수 있을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 ...**(중략)**...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 말이야. 고난의 길 끝에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하잖아. 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 이 길 끝엔 분명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고 나를 통해 행하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도. 이후 금요기도회 때 호세아 6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회개함과 지고지순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뜻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싶어 지혜야. 오늘 완전 대박이지?!!^^ 자기를 만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은혜와 감사가 넘치네. 나두 사랑해. 잘자♡

지 혜: 아멘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4장 7~10절)”♡

마리아는 이 날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누르던 삶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타인에게 이해받기 힘든 얼룩진 그녀의 삶을 누군가에게 열어보였을 때, 비판받고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수용 받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과 존재에 대한 귀 기울임과 안아줌의 행위를 통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갔다. 타인의 존재와 삶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앞세우지 않고, 온전히 경청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안아줌과 수용의 대화는 고백하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마리아는 거부되고 지우고 싶던 그녀의 과거의 삶까지도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여정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실패와 고난, 죄로 얼룩져 있던 그녀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그 의미가 재해석되는 가능성을 가졌다. 고난 가운데 있는 마리아는 아직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고난의 길 끝에 자신의 삶을 해석한 성경의 인물처럼 그녀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얻었다.

3) 관계 속의 오해와 고립

(1) 판단의 시선들

2015년에 접어들면서 마리아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마리아와 그녀의 딸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험담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다. 마리아와 그녀의 딸을 질투하던 성도가 마리아와 딸의 행동과 이야기를 왜곡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마리아와 우정을 쌓고 있던 교회 성도들은 마리아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과 판단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마리아 자신은 한동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마리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전해 듣고 있었다. 나는 마리아의 삶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러한 오해를 받는 것이 안타까웠다. 마리아와 성도들 사이에서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한편 나는 마리아와 성도들이 화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리아를 변호하기도 하였고 그녀가 기도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초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리아와 성도들 사이의 신뢰는 상당히 무너져 있었기에, 그들이 한 자리에 있을 때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마리아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다. 성도들 사이에서 그녀를 위한 환대의 자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나에게서는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중재할 수 없이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들 속에 파묻혀 그 스트레스가 몸의 병으로 오기 시작했고 나는 입원을 하고

말았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척박하고 춥게만 느껴졌다. 나는 결국 이 교회에서 버틸 힘을 잃어 버렸다.

2016년 3월, 몸과 마음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연구를 위해 캠퍼스에 돌아와 질적 연구 실습수업을 들었다. 마리아는 여전히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는 그런 마리아가 가장 마음에 쓰였다. 나는 마리아와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말씀 나눔을 하면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아보았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실습수업의 주 참여자를 마리아로 선정하여 그녀를 만나 면담을 하면서 동시에 마리아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었다.

때로는 마리아를 대하는 나의 마음에도 의심과 혼란이 밀려와 괴로울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와 삶의 고난을 함께 통과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었음을 기억했다. 성도들 사이에서 마리아를 둘러싼 오해와 갈등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오해가 다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마리아를 둘러싼 관계의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러한 오해와 판단이 증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양가적 감정들

나는 마리아에게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그녀의 내면에는 양가적인 감정들이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조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친구에 대한 우정과 질투의 마음,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모습과 원망하는 마음, 자유를 향한 갈망과 타인의 시선에 속박된 마음 등. 마리아의 내면에는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팽팽하게 갈등하고 있었고, 이러한 감정들은 종종 마리아의 얼굴을 상반된 표정으로 만들었다. 마리아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고투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마리아의 ‘속내’를 이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마리아에 대한 오해와 갈등, 편견과 판단의 시선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켰다.

가. 우정과 질투

마리아는 당시 절친한 친구였던 다윗이 마리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리아는 다윗에 대해 “죽고 못 사는 친한 친구

사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다윗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마리아가 우리의 모임에 초대되었을 때, 마리아는 친구 다윗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 다윗이 모임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마리아는 낯설음과 동시에 질투의 감정을 느끼고 말았다. 2013년 12월 어느 날, 마리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나누었다.

마리아: 지혜야,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다윗이 이번에 전도회 회장이 됐는데, 나는 일하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괜히 마음이 이상한 거야. 다윗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질투하는 마음도 들고... 지금 남편이랑 문풍지를 붙이는데 자꾸만 떨어지는 거야. 붙여도 떨어지고, 붙여도 또 떨어지고. 꼭 내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조급함이 생겨.

마리아는 겨울을 대비해 남편과 함께 창문에 문풍지를 붙이고 있었다. 마리아는 붙여도 자꾸만 떨어지는 문풍지를 보며, 그 모습이 꼭 자신의 영적인 상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마리아의 친구 다윗은 2014년 여전도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마리아는 이런 다윗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질투심이 생겼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마리아와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 질투심 덕분에 일상의 문제들에 파묻혀 있던 마리아는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다. 인간적인 질투심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참여자들을 이끌기도 했다.

마리아와 다윗은 교회에서 만나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낸 사이였지만, 서로 다른 신앙적 관점과 삶의 태도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 2016년 4월 18일, 나는 마리아와 면담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들을 수 있었다.

마리아: 다윗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게 하신 거고 직진으로 갈 수 있었다.” 근데 난 “아니다. 하나님이 돌게는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나 같은 미련한 사람한테도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그리고 대립을 한 거야, 다윗하고. 아직 그 대립한 게 풀리지는 않았어. 개는

개의 생각이고 나는 나의 생각인데. 나는 변함은 없어. 분명 모~
든, 모든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보면 하나님을 그
때 내가 알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다윗은 오랜 시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를 보며 답답
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절친한 친구에게서도 자신의 신앙
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마리
아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며 자신의 삶을 변호하려 애쓰지만, 둘 사이
의 “대립”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나. 설렘과 두려움

마리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아직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
았다. 마리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어떨
때는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과 설렘을 압도하기도
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마리아의 내면에는 어느새 인과응보적인 신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새겨져 있었다. 2013년 9월 10일, 마리아와 나는 ‘카카오톡’으
로 이러한 마음을 주고받았다.

지 혜: 집사님~ 과일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든 마음
인데요.. 주님께서 집사님과 단 둘이 주님의 정원에서 만나길 원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주님이 직접 하실 거라고^^ 주님과
달콤한 데이트 나누세요. 저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게요.♡

마리아: 지혜야~ 내가 더 감사하지~ 너 감사해^^ 그리고... 메시지 읽고
또 읽어보게 되는데.....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두려운 맘도
들고~

지 혜: 주님께서 사랑하는 연인과 비밀히 만나고 싶으신가 봐요. <아가
서>처럼요^^ 두려워지 마세요. 집사님~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
오실 거예요.♡

마리아는 그동안 성도들과의 따뜻한 교제를 통해 절망 속에서 건져주는 하나님
을 만났다.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엄한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던 그녀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치유의 손길을 느꼈다.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이 궁금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예전에 마리아는 재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친구들을 만나 밤새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상선 암에 걸린 적이 있다. 장로였던 시아버지는 모텔 운영과 빚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멈추지 않자, 손님을 맞으러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머리가 곤두박질하여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 마리아에 대한 질투심으로 그녀에 대해 험담을 일삼던 한 성도는 자녀의 머리가 다쳐 뇌출혈로 입원을 하고 말았다. 마리아가 죽고자 결심했을 때는 갑자기 귀에 이상이 생겨 그녀는 하나님이 무서워 죽지도 못하고 입원을 했다. 그 가운데서 마리아는 “내 믿음이 헛된 믿음, 만약에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간다면 내 공동체도 영향을 받겠구나. 그래서 더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실되게 나가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다.

다. 순종과 원망

2015년 겨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교회의 강단을 장식하기 위해 마리아와 그녀의 남편은 며칠 동안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마리아가 마음에 쓰여 간식을 준비해 교회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교역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마리아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한 마리 순한 양처럼 조용하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마리아의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힘들거나 기쁠 때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마리아의 표정을 보아왔던 나에게, 이날의 정제되고 고요한 표정은 매우 낯선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표정은 어쩌면 마리아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2016년 4월 18일, 마리아는 면담을 통해 교회에서 봉사하며 목사에게 칭찬을 받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리아: 어. 수련회가 끝나면 비전 예배를 드리거든. 10월 달에 근데 비전 예배 때 인도를 하잖아. 유년부 인도 한 번, 초등부 인도 한 번 이러는데, 초등부는 아직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인도를 하거든.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어쩌면 이렇게 인도를 잘 할까? 아이들에 맞춰서 인도를 잘 할

까?’라는 생각을 하셨대. 그래서 되게 부끄럽긴 했지. 그 말 들 으면서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따로 좀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 전도사로, 찬양 사역 전도사 로 하면 어떨겠냐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연구자: 응~.

마리아: 목사님이, 부장님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갔었거든. “너무 잘 하니까 다른 개척 교회에 찬양 사역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님이 하는 걸 보고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되게 감사했어.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인데 이렇게 칭찬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

몇 년의 헌신 끝에 마리아는 교역자들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찬양 사역 전도사로 일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게 어떨겠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마리아가 신뢰를 얻기까지는 그녀를 향한 수많은 편견과 판단어린 시선을 극복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마리아가 재혼을 하고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강한 기질을 누르고 순종하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신뢰와 인정을 얻고자 하였다. 마리아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고립되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을 때에도, 성탄 연극에서 감초 역할을 하기 위해 진한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나는 면담을 하면서 마리아가 전해 준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 맞아 맞아. 어? 집사님 아닌 것 같아.

마리아: 분장을 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응. 난지 몰랐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연구자: 이때 그때죠, 집사님. 엄청 힘들었을 때.

마리아: 어어어.

연구자: 사마리아 집사님 일 때문에.

마리아: ‘정말 안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

연구자: (웃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완전 너무

힘들었을 때.

마리아: 어. ‘안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 했을 때. 진짜 이거 가면이야.
솔직히 말하면, 어, 진짜로.

연구자: (웃음)

마리아: 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정말 가면이야.

연구자: 맞아. 그때 집사님, 아유... 대사도 막 못 처가지고...

마리아: 그래~ 나 얼마나 욕먹고 했는데. “너 왜 그래~” 이랬던 때잖아.
“너 안 그런 애가 왜 그래.” 이랬던. 눈치 엄청 보면서. 그때야.

성도들이 그녀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보람되고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과도한 짐을 지는 것에 마리아는 버거움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는 교회에서 늘 자신을 평가하는 권위자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교회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사역에 헌신하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권위자에 대한 야속함과 원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나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교회의 목사나 사모, 교역자들과의 관계에서 갖는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많았다.

순종과 쓴 원망 사이에서 그녀는 늘 갈등하면서도,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봉사를 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다. 자궁 수술을 앞두고 몇 달간 계속해서 피를 쏟는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어느덧 교회 안에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자신의 속내와 고통을 감추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웠다. 그녀는 사회적 “가면” 뒤에 감춰진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보아줄 누군가와 진정한 친구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랐다.

라. 자유와 속박

그녀는 자유와 쉼을 갈망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했다. 늘 그녀를 따라다니며 존재를 옥여싸는 타자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속박하고 있었다. 이러한 마음은 때로는 자기 자신과 딸에 대한 지나친 엄격함과 완벽주의로까지 이어졌다. 교회나 학교에서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으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딸이 다른 친구들을 따돌린다는 말이 들려올 때면, 소문이 왜곡되어 퍼지게 될까

봐 마리아의 마음은 두려워졌다.

마리아는 교회나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면 그녀의 딸을 더 엄하게 단속했다.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이기적으로 비춰지거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딸에게 친구들과 동생들을 더 챙기도록 요구했다. 그래서 인지 딸에게 마리아는 언제나 “엄하고 무서운 엄마”로 다가왔다. 마리아의 딸은 나이에 맞지 않게 교회나 학교에서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녀의 친구들은 마리아가 딸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혹여나 상처가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마리아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마음은 배려를 넘어서 자신의 작은 선택의 자유마저도 구속하는 속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6년 4월 1일, 마리아는 면담을 통해 이러한 내적 갈등을 나누었다.

마리아: ‘내가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이려고 있어야 되나?’ 내가 그 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 다윗한테 연락이 온 거야. “너 내일 나 좀 만나자.”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아침에 만났어. 만났는데, 다윗이 자기 은혜 받은 거, 자기의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그 자신의 쓴 뿌리들 내려놓으면서 남편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이러한 간증을 하고 나서, “너가 가야될 자리에 니가 눈치보고 안 갈 건 아닌 것 같아.” 딱 그러는 거야. 다윗이.

작은 결정 하나에도 마리아는 타자의 마음을 신경 쓰고 있었다. 그녀의 대화 속에서는 유독 타자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했다. 마리아의 존재는 늘 타자들 속에 둘러싸여있는 것 같았다. 마리아는 내면의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과 타자의 시선에 속박된 마음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내면에 있는 ‘양가적 감정’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계속되는 소통의 어려움과 장벽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마리아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리아의 진심을 알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 모순되고 충돌되는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립의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탓이기도

했다. 마리아의 삶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나는 비로소 마리아의 내면에서 양가적 감정들이 충돌하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얼굴 이면에 감추어진 그녀의 존재의 아픔과 상처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었다. 내면에 숨겨진 존재의 고통과 상처의 근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관계’와 편견어린 시선을 내려놓는 ‘질적인 눈’이 필요했다.

4) 진심을 나누는 대화

2017년 4월, 나는 마리아를 만나 또 한 번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의 만남을 통해 나는 마리아와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면담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어떠한 가식이나 가면을 벗고, 서로의 존재를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의 과정이었다. 무겁고 심각하게만 느껴졌던 마리아의 고난 속에서 나는 존재의 가벼움과 익살스러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다. 나와 마리아는 경쾌한 리듬과 웃음, 진지한 분위기와 눈물을 오가며 진심을 나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2017년 4월 6일, 나는 마리아와 함께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며 그녀의 귀가 치유된 사건과 텐트 안에서 고백했던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만남을 회상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1) 죽음보다 강한 삶의 의지

가. “희망조차 나한테는 과분하다”

마리아는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위기에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마리아 가정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마리아는 이제 생계가 걱정이 되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이 꼴 저 꼴” 보는 것이 싫었다. 두 번째 가정을 이루면서 바랐던 그녀의 한 가닥 희망조차 이제는 과분한 것처럼 느껴졌다.

마리아: 사실은 우리 생계가 걱정 됐어. 아이가 있었고, 또한 남편도 아버님이 정말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아이 아빠 앞으로 빚을 끌어당기고 그랬잖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겠구나. 이 꼴 저

꿀 보기 싫었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죽으면 아버님이 끝나겠구나’ 이것도 있었는데, 더 깊이 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 꿀 저 꿀 보기 싫었어. 왜냐하면 그 전에 과거가 있잖아. 그때도 그 숨통 막히고 지옥 같은 과거에서 탈출을 해서 새 희망을 봤지.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희망조차 나한테는 과분하다는 거였구나. 그것까지 간 거야. 그 시점이 그랬어.

마리아는 전남편과 살면서 재정적인 풍요를 누렸다. 그녀는 130평이나 되는 노래방과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삼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그 지역 일대 직원들을 꽉 잡고 있을 정도”로 마리아는 “화류계에서 알아주고 날리던 여자”였다. 그러던 그녀가 전남편과의 관계에서 누리던 경제적인 풍요를 뒤로 하고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된 것은 큰 결심을 필요로 했다.

전남편을 떠나면서 그녀는 어린 아들도 함께 떠나야 했다. 임신한 사실을 듣지 않기 위해 마리아는 “만삭 때까지 복대로 허리를 꼰꼰 감고” 그리운 아들을 만나러 갔다. 그렇게 아들을 만나고 온 날은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가 죽은 것은 아닐까 놀라며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아가야? 아가야?!” 하며 다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깨웠다. 우여곡절 끝에 마리아는 새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삶의 희망마저도 이제는 그녀에게 과분한 것 같았다. 두 번째 가정의 위기를 맞은 그녀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죽고자 결심을 했다.

나. 죽음보다 무서운 공포

마리아는 유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집을 정리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나 그냥 세상 등질 거야.” 마리아는 죽을 준비를 하러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거기서 떨어지면 죽겠지. 설마 내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아서 창피한 꼴 보겠어?’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며 “혼자 중얼중얼 미친년처럼” 죽음을 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귀가 멍해지더니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정적은 죽음보다 무서운 공포로 밀려왔다.

마리아: 근데 갑자기 귀가 딱 안 들리는 거야. 아무 소리도. 갑자기 정적이 흘렀지. 갑자기. 안 들리는 거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웅~’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는 미세

한 소리도 들었던 나인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나한테 뭐가 밀려왔냐면 공포가 밀려왔어. 나를 죽음, 그것보다 더 무섭게 하는 공포를 주신 거야. 그건 뒷전이야. (목소리를 높이며) “어! 내 귀 왜 그래!” 나 죽으려고 했던 애잖아. 근데 “어머어머. 내 귀 왜 그래! 주여!” 나 지금도 생각나.

연구자: (웃음)

마리아: “어머! 내 귀 왜 그래! 어머어머!” 막 두드리고 난리를 쳤지. 근데 그러고 나니까 ‘웅~’ 소리가 나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뭐 기차소리, 나중에는 비행기 뜨는 소리, 탱크 소리 난리가 난 거야. 귀에서. 애네 왜 이러는 거야. ‘귀신들이 싸우는 거야.’ 이 정도로. 그리고 내가 이틀인가 삼일인가 지나고 갔는데 벌써 청력은 아예 없고, 거의 없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 지금 빨리 소견서를 써서 가라고 하시더라고.

죽음까지 결심했던 그녀에게 귀에서 정적이 흐르는 사건은 죽음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마치 그녀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삶과 죽음 사이의 다툼을 잠재우듯이, 그녀의 귀에는 이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후, 시끄러운 소음들이 그녀의 귀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 속 고통과 다툼은 청력을 잃을 수도 있는 신체적 고통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한 의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삶을 향하고 있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과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다. “징글징글하다 내 인생”

그녀는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귀 주사를 맞았다. 약이 귓속에 들어와서 한 바퀴를 도는 느낌이 났다. “싫을 듯이 기분이 더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하루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녀는 이 와중에도 씻어야 되는 사람이었다.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씻기는 해야” 됐다. 시원하게 씻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리아의 마음은 상쾌해지는 것 같았다.

마리아: (웃으면서) “어떻게 씻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씻고, 물도 마

음대로 써서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연구자: (웃음)

마리아: (웃으면서) 9월이라 그랬거든? 물도 마음대로 쓰고 막 샴푸질 해
대고 막 너무 상쾌한 거야. 그렇게 씻고 나오니까. 머리를 막 말
리고 혼자 휴게실에 앉아 있다가 사실은 성경책도 들고 올 마음
이 있어서 들고 온 게 아닌데,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가방에다 제일 먼저 넣는 게 성경책이야.

연구자: 그 와중에 (웃음)

마리아: 넣으면서도 너무너무 웃겼어. ‘나 읽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서도
‘그래도 챙겨가자’ 이렇게 성경책도 챙겨갔던 거 같아. 그래서
그날 성경을 보고. 들어오나? 안 들어왔어, 그날은. 그날 그렇게
밤에 계속 눈을 감고 내 삶을 또 생각했던 거 같아. 주님을 생
각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생각했던 것 같아. 그때 생각하면 하나
님께 죄송하지. 그런 내 자신이 싫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면 또 다시 시작하는 그 지옥이 싫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독하니까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 독
한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릴까봐 밥을 먹고 있는 나를 보면서 (웃
음)

연구자: (함께 웃음)

마리아: (웃으면서) 나를 보면서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다. 내 인생
왜 그러냐. 진짜. 너 뭐냐?’ 막 이러고 밥을 먹는데. 이런 생각
하고 먹다 보니까 그 많은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더라.

연구자: (계속 웃으며) 아, 웃겨.

마리아: (웃으면서)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더라고. ‘니가 그 죽으려고 했던
애 맞냐?’ 이러면서 스스로 또 이래 내가. 그러면서 지났는데,
오후에 왔어. 자기가. ‘짤’ 하고. …(중략)… 내가 그 전에 자기
한테 고백했을 때는 내가 좀 홀리[holy]할 때 인가봐.

연구자: (웃음)

마리아: 홀리하려고 노력할 때?

연구자: (웃음)

마리아: 그때 이렇게까지는 리얼하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

마리아는 “리얼”하게 전개되는 자신의 삶의 모습들과 존재가 “징글징글”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삶과 죽음 사이를 너무나 쉽게 오고가는 이 생존 본능 앞에서 어이없이 “징글징글”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다. 익살스럽고도 참을 수 없이 가볍게 다가오는 생존을 향한 만족감. 그것은 무겁게만 다가오는 삶의 고난과 마음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가벼운 삶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삶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일으키는 것이었다.

(2) 낯설지만 알고 싶은 타인

마리아가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내 병원비라도 줄 수 있어? 어? 상황도 안 되잖아!’ 그리고는 밤새 고민에 잠겼다.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이혼을 하자. 그리고 딸을 데리고 원룸에 가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해야겠다. 하~ 이런 삶을 또 시작해야하는구나.’ 그녀는 또 다시 시작될 힘겨운 삶을 생각하며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그때 나는 마음속에 부여진 마리아를 향한 공황 때문에 잘 알지 못했던 마리아를 위해 병원비를 챙겨서 무작정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마리아를 생각할 때 마음 중심이 너무나 아팠다. 나는 마리아의 귀와 가슴에 기도를 해 주었다.

마리아: 근데 거기에 뭘 꿩 맞은 기분? ‘어떻게 애가 내 마음 아픈 걸 알았지?’ 여기서. 그래서 내가 계속 울었잖아. 그때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 자매가 여기가 아픈 줄을 알지요?’ 난 사실 여기는 안 아팠어. 귀가 먹었던 거지. ‘어떻게 여기가 아픈 줄 알지요?’ 그랬지. 신기했던 거야. 그때는 자기는 안 궁금해.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그러더니 기도를 한참 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한 거야. 아픈 곳을 만져 주라고 해서 왔다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웃으면서) 그때부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물음표가 하나, 둘, 셋, 넷.

연구자: (웃음)

마리아: 그때부터 물음표가 시작이 된 거야. …(중략)…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가 갔어. “집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주더라고. 봉투를 딱 받았는데, 사실 돈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편지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편지에 돈을 넣었나...?’ 이렇게 만졌을 때의 느낌은.

연구자: 응~

마리아: ‘나한테 편지~?’ 그때도 ‘처음 본 나한테 편지?’ 막 이제 그랬지. 그랬는데 이제 가고 나서, ‘아, 이게 뭐지?’ 그랬어. 한참동안 멍했지. 멍하게 앉아 있다가, ‘그래, 한번 보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떨어뜨렸어. 그것도 화장실에서.

연구자: (웃음)

마리아: 그것도 이게 병실에서 본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떨어뜨렸더니까 그거를? “엄마야!” 그러고 화장실에서 떨어뜨렸던 기억이 내가 생생해. 이거 화장실에서 떨어뜨렸던 봉투가 아직도 보관이 돼 있거든.

마리아가 가장 아팠던 곳은 신체적인 귀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었다. 나는 마리아를 생각할 때 마음 중심이 아파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마리아가 가장 아픈 곳은 마음이 아닐까?’ 마리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신기했다. 병원비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낯선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병원비를 주고 갔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삶에 나타나 그녀의 아픈 곳을 알고 만져준 이 낯선 타인을 마리아는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는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나는 당시의 마리아의 마음을 그녀의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했다.

지혜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애 뭐지?’ 밤새 이 자매를 떠올리다보니 물음표가 하나, 둘, 셋, 넷, 저 끝까지 쌓여만 간다. 자매가 주고 간 병원비 봉투를 멍하게 바라본다.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다고 하고 아픈 곳을 만지라고 했다고 하고. 이게 뭘까? 아, 이 느낌은 뭐지? 궁금해서 미치겠다. 그런데 알고 싶다. 애가 뭐를 근거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는지, 아픈 곳을 만지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음성을 들었는지 궁금하다. 이 궁금증이 가슴팍에 새겨지고 나니 이제는 내 삶도 전혀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 이 자매를 좀 알게 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도 좀 얘기해주시면 안돼요?

막막한 자신의 삶을 보며 한숨짓던 마리아에게 이제 생존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그녀는 현실에 집착하던 눈을 들어 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실존의 문제로 관심을 돌렸다. 어떻게 이 낯선 타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마리아는 그 친밀함이 궁금해졌다. 그리고 이 궁금증은 신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날의 방문 이후 마리아의 귀는 치유되었고 생각보다 빨리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에서 이른 퇴원을 할 수 있었다. 마리아의 삶에 찾아온 낯선 타인은 이제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새롭게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마리아의 마음에 닿기까지, 그녀의 내면에 형성된 두터운 관계의 벽과 상처를 넘어야 했다.

(3) 마음의 벽을 만든 관계들

가. 사회적 낙인

마리아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마음의 벽은 마리아가 타자들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시선들과 관련이 있었다. 평소 마리아는 항상 많은 인간관계 속에 둘러싸여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타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 늘 외로움을 느꼈다. 타자를 향한 마음의 벽은 그녀가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배제의 체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마리아는 면담을 통해 그때의 심경을 나누어 주었다.

마리아: 근데 교회에서도 몇몇 아는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내 장점을 통해서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때는 내 일이었던 것 같아. 인정을 해 주니까. 데려다 쓰고 “오~ 잘하네?” 데려다 쓰고 “오~ 잘하네?”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엄청 많아진 거야. 나도 그렇게 하는 것마다 내

가 잘하리라는 생각을 못했거든.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살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데려다 쓴다.” 그리고 잘 해내는 그녀를 인정하며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졌다. 이제 그녀는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존재 자체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도구적 존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다. 도구적 존재는 언제나 또 다른 존재로 대체 가능하기에,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와 삶을 고유한 것으로 느낄 수 없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좋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마리아는 두고 온 아들을 늘 그리워했다. 친구들은 마리아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봉사를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고집스럽게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 한편에는 두고 온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기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마리아: 사람들이 금요 9시 예배 때 왜 그렇게 우냐고 그러는데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다른 자매들은 앞에서 찬양하고 싶어서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난리인데, 나는 그 자리가 싫었어. 나는 아들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국에 앞에서 자꾸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찬양하면 “보여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또 낙인도 찍혀야 됐고. 앞에서 하는 거라 미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도 됐어야 됐고. 근데 그냥 열심히 일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원한 건 하나, ‘아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였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면 우리 가정도 가정인데 내가 버리고 온 아들이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더 많이 봉사를 했던 거 같아. 진짜.

마리아는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만, 예배 때 앞에서 찬양을 해야 한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타자들은 그녀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사람”으로 낙인찍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적인 봉사는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행위이기도 하다. 나는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 전체적인 삶의 맥락과 내적인 동기와 상처를 알 때, 비로소 그 행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타인의 행동의 단편을 보고 선불리 판단하지 않는 마음은 타인의 존재를 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대화의 자세임을 알게 되었다.

나. 마음 속 응어리: 어머니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유년시절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마리아는 이날의 면담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가난에 대한 쓴 마음을 나누었다. 마리아에게는 유년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방치되고 돌봄 받지 못했던 깊은 상처가 마음 속 응어리로 남아 있었다. 마리아는 돈 때문에 자신의 아픈 몸을 돌봐주지 않고 방치했던 어머니에 대한 쓴 원망이 있었다.

마리아: 근데 나는 뼈에 금이 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가 병원을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 그런 생각하면 또 엄마에 대한 생각이 옥하고 올라오긴 해. 어. 내가 다리가 짝 다리가 심한 경우도 다리가 다쳤는데도 그냥 동네에서 피만 빼고 병원 한번 안 갔잖아. 분명히 사람들이 인대가 늘어 나고 뼈 검사도 해야 된다는데, “됐어. 됐어.” 학교도 못 갔거든. 다음날. 그러면 다른 엄마 같으면 데리고 갔을 거야. 근데 “그냥 하루 쉬어! 그러면 돼” 얼마나 돈이 든다고 그렇게...

마리아의 부모는 생계를 위해 당구장을 운영했다. 그녀의 집은 당구장 위에 있었는데 당구장을 이용하는 남자 손님들은 그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그녀가 몸을 씻을 때면 그녀의 몸을 몰래 훑쳐보는 낯선 타자의 시선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녀는 폭력적인 타자의 시선에 노출된 채로 그렇게 유년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방치되는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가난, 그리고 돈에 집착하는 어머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리아: 돈 한 푼이 아까워가지고, 방 한 칸에 살고 이랬으니까. 내가 요 강도 비우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긴 했지만. 어렵게 사는 게 너 무너무 싫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다시 가난에 가난하게 되고, 우

리 아이를 또 돈에 전전긍긍하면서 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왔어.

마리아는 “돈에 전전긍긍하는” 가난한 삶이 싫었다. 가난의 굴레가 그녀의 삶에 반복되는 것은 유년시절부터 이어진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자녀에게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생계를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가난이라는 물적 조건과 부모로부터 돌봄 받지 못한 상처가 결합되면서, 어느새 마리아의 마음에는 단단한 응어리가 생기고 말았다.

그녀는 청소년기부터 일탈을 하며 비뚤어진 삶을 살았다.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도 모두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마리아는 어머니를 원망할 때가 많았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엄마답지 않은 엄마’였다. 재정적인 풍요를 버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 마리아는 전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를 학대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리고 말았다. 마리아는 그 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엄마는 전남편이 사업 수완이 좋다는 이유로 내가 헤어지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랑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돈을 많이 만질 수 있어서 좋았지만 힘든 상황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전단지부터 붙여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는 내가 얹혀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찌검을 한다. 그래서 어느 날 욕하는 마음에 엄마를 때려버렸다. 엄마를 때려서 엄마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나도 피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옷을 벗어서 베란다에 던져 놓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길가를 전전하다가 친구네로 들어갔다. 아들을 데리고 갔으니 눈치가 보였다. 나는 그렇게 어두운 삶을 계속 살았다. 그래서 내 탈출구는 또 다른 결혼이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향해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가 돈을 갖다 줄 때는 “예쁜 딸”이었지만, “조금 힘들기만 하면 그렇게 못되

게” 굴며 그녀를 구박하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여동생과 함께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저 못돼 처먹은 엄마”라고 욕을 했다. 돌봄 받지 못한 마리아의 청소년기는 일탈로 이어졌고, 일탈하던 삶은 원치 않는 임신과 결혼이라는 굴레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녀는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를 향한 마리아의 마음 속 분노와 원망은 가난이라는 물질 조건과 부모로부터 방치된 상처와 함께, 유년시절부터 성인기까지 지속된 단단한 응어리였던 것이다.

(4) 진심을 나누는 관계

가. 진심으로 기도해줄 누군가

그녀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열어 고백하고 싶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다. 그때 마리아의 추운 집 거실에 텐트가 세워졌고, 마침 나는 마리아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텐트 안은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켜주는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마리아는 숨겨두었던 과거의 삶을 고백한 그날을 회상했다.

마리아: 지혜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또 한 번 나의... 어떻게 보면 그거를 허물 아닌 허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너무 추운 가운데 그 텐트가 세워지고 그 텐트 안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가 그때 혼자 그랬던 거야. ...**(중략)**... [지혜가] “집사님이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데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랬어. 그래서 “그럼 와 볼래?” 그랬지. 근데 입김은 허~ 나는데.

연구자: (웃음)

마리아: “진짜 춥다.” 그래서 “들어와. 들어와.” 그러고. “저기 안에는 팬츠야.” 그리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 ‘얘기하고 싶다’라는 계획 밀려왔어. 왜냐하면 너라면 어... 그냥... (밝고 명랑하게 이야

기를 이어갔던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정적이 흐른다) 그냥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필요했거든 사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 불쌍한 사람. 내 아이인데도 내가 기르지 못했으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얘기하면, 누군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 기도를 하면, '지혜가 기도를 하면 진심으로 기도해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야, 사실은. 중보자가 필요했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거든. 내가 얘기가 있다고 아는 사람들도 그냥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뿐이었지, 그 삶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냥,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또 예민하니까 다 알잖아. '아. 재 저런 애' 이런 시선을 늘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들을 안다고 해도 '기도해주세요' 말도 못했어. 내가 먼저 정죄당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정죄당하고 있는 애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정말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그래서 자기한테 고백을 했던 거야.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열어 타인에게 고백했다. 그녀를 늘 따라다니던 정죄와 판단의 시선은 그녀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따뜻한 긍휼의 시선으로 자신의 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누군가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과거를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진심어린 친구가 필요했다. 마리아가 자신의 허물진 과거를 타인에게 고백한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고백적 대화의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사실의 나눔이 아니라, 마음의 나눔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 자신의 존재가 깊이 공감 받는 수용의 대화를 통해 점차 치유될 수 있었다.

나. 엄마다움의 발견: “아, 엄마답다”

어머니를 향한 마음 속 응어리로 가득 찼던 마리아가 최근에는 어머니에게 “엄마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리아의 아버지에게 빛이 있었는데, 돈이 없던 상황에서 빛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일을 통해 마리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고, 마리아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마리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때리고 모질게 했던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엄마가 본인이 다리병신이 됐는데도, 수술을 해서 다리를 절뚝거리시거든. 다리병신이 됐는데도 하나님 그 일하는 게 좋아서 그 식당을 교회 주방 봉사를 하시거든. 근데 음식 솜씨가 좋아서 다들 엄마 음식을 좋아하셔. 그 교회에서. 병신 다리 끌고, 질질 끌고 가서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야. 난 엄마의 그 못된 모습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엄마도, 지혜야 이런 고백을 하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 “어느 상황에서도 봉사해라” 딱 그러시더라. 그래서 진짜 얼마나, 태어나고 몇 십 년 만에 ‘아, 엄마답다.’ 내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아, 엄마다운 말을 하네.’ 이랬네.

그녀가 어머니에게 원했던 것은 ‘엄마다운 엄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러한 어머니의 존재를 찾아 헤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를 “때리고 모질게” 대하는 어머니를 보며 그녀의 기대는 항상 좌절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러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마리아에게 말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봉사해라.” 그녀는 어머니의 권면이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과 겹쳐진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로 향하며 고집스럽게 헌신하는 그녀의 삶과 겹쳐진다. 어머니를 향한 마리아의 마음 속 응어리는 이렇듯 그녀가 찾고 싶었던 ‘엄마다운 엄마’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풀어질 수 있었다.

5) 기도하는 미래

2017년 4월 6일, 마리아는 마지막 면담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마리아: 삶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남편 이랑 결혼해서 남편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어느 순간 했었거든 사실은.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었으니까. 그러더라고. 높이도 올라가봤지. 건물도 사 봤지. 평평거리고 살아봤지. 가장 낮은 곳에서 천원이 없어서 전전공공도 해봤지. 진짜 끝과 끝을 살아본 사람? 진짜로. 어. 진짜. 끝과 끝을 살아본 사람.

“끝과 끝을 살아본 사람”, 그녀는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처하며 지독한 삶을 체험했다. “순탄하지 않는 삶”이 그녀의 새로운 가족에게까지 되풀이되는 것 같아 그녀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폭넓은 삶의 스펙트럼을 체험한 그녀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는 타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녀는 이러한 기대를 그녀의 아들과 딸에게 조심스럽게 두며 기도해 본다.

마리아: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이 기도가 진짜 너무 과분한 기도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거든. 어, 진짜로. 아픔이 많은 애라 사역하면 진짜 잘 할 거 같다는 생각? 그래서 ‘어느 통로든 좀 하나님 써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 요새는.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외우고 이런 애로, 어찌됐던 엄마가 무섭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든 그렇게 자란 애잖아. 자란 애니까 좀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녀의 기대가 “진짜 너무 과분한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자녀들에

게 자신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가난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같은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있다. 나는 이날의 대화를 통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로부터 받았던 마음 속 응어리와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또 다른 부모 세대가 되어 자신의 자녀들에게 소망하고 있는 미래를 보았다. 마리아의 삶은 단지 개인의 삶이 아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아픔을 동시에 지닌 중간 세대로서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날의 면담을 통해 나는 마리아의 존재와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마리아의 존재를 가리고 있던 베일이 벗어지면서, 나는 그녀와 진심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로서 깊은 대화를 나눌 것 같았다.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리아에게 ‘카카오톡’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연구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리아 집사님. 오늘 집사님께 참 큰 선물을 받았어요. 집사님의 마음과 삶을 나눠주신 시간..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사랑해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또한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님^^

마리아: 지혜야~~♡ 내가 더 감사하고 있는 거 알지?!!^^ 주님 안에서 참다운 교제가 자기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닐까...란 생각~~ 오늘 나눠준 얘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 작은 생각부터 큰 생각까지~ 이런 생각의 문을 열어주고 기도하게 해 줘서 고마워~~♡ 그곳에서 자기를 통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사랑하고 축복해 지혜야~~♡

연구자: 집사님~ 우리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아름다운 교제 계속 이어가요^^ 주님 맺어주신 소중한 인연,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돼서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마리아: 나두~~~~^^♡ 담엔 더 오래~ 찼하게 만나자~~~~♡

“참다운 교제”, 그것은 타인의 존재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을 나누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대화적 관계를 통해 우리의 존재와 삶이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공감됨으로써, 숨겨둔 마음 속 고통이 떨어지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다. 또한 서로의 닫혀 있던 마음의 문

을 열어주고 새로운 “생각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상호 성장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반복되는 고통과 상처의 굴레가 아닌, 소망스러운 미래로 향하는 생각의 문이 열림으로, 우리의 삶에는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마리아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일주일 후, 마리아의 가정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그토록 기도했던 새 보금자리를 구하게 된 것이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잘 표현하지 못하던 그녀의 딸은 이 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나는 마리아의 삶에 찾아온 작은 회복의 소식이 소망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2018년 현재, 마리아는 상처받고 소외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어둡고 소외된 곳에 있는 타인들에게 진실한 도움의 손길이 될 또 한 사람의 친구가 마리아가 될 것을 소망하며, 나는 그녀가 기도하는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 있다.

4. 만나와 나는 대화: 기다림의 시간성

앞서 참여자 다니엘과 마리아에 대한 기술을 마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안나의 이야기를 기술하게 되었다. 2015년 겨울 무렵, 안나의 사전 동의를 얻어 회상일지를 작성하였지만, 그녀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였다. 안나의 머뭇거림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고, 연구를 시작한지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연구자로서의 나의 자세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신앙을 함께 하는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연구자-참여자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관계의 전환 속에서도 어떻게 우정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나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특히 참여자가 연구에 대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일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점차 나의 연구는 ‘연구자’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연구에 대한 안나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나는 타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며 연구자로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다.

안나에 대한 연구를 마음에서 내려놓았을 무렵, 뜻밖에도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나는 안나가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 매우 신중한 고심 끝에 내

려진 결정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삶이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그녀의 겸손한 고백 앞에서, 나는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느꼈고 그녀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나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와의 만남과 대화는 오랜 머뭇거림과 기다림이라는 시간성을 특징으로 한다. 긴 시간을 거쳐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를 다져가며 깊은 상처의 근원에 닿아가는 과정, 그리고 전인격적인 존재의 회복과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이 만나와의 만남과 대화 속에 담겨있다. 한 사람의 깊고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치유의 여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격적인 관계 맺음과 대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다음에서는 만나가 신과의 대화,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이뤄가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1) 신앙의 침체기

2012년, 나는 지역 교회에 등록하여 처음으로 배정된 구역 모임에서 만나를 만났다. 모임에서 만나를 만날 때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거리감을 두고 간단한 기도제목을 나누는 정도였다. 그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위해,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 만남은 당시 네 자녀를 기르면서, 몇 명의 주부들을 고용하여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3년에 새롭게 구역이 편성되면서, 나는 몇 번 만날 기회가 없이 만나와는 다른 구역으로 배정되었다. 그 해, 만남은 다니엘과 같은 구역으로 편성이 되면서 다니엘을 자주 만날 수 있었고 동갑내기였던 마리아와 종종 교제를 나누었다. 나는 전도회 기도모임을 통해 만나와 가끔씩 얼굴을 보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2013년 가을부터 나는 마리아의 입원과 치유의 사건을 계기로 마리아, 다니엘, 만나와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가까워질 수 있었다. 당시 만남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말 못할 고난과 상처들 속에서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었다.

(1) 타인의 얼굴에 드리운 수심

2013년 5월, 그날은 전도회 기도모임에 자주 나오던 만나가 보이지 않았다. 나

는 안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웬지 그녀에게 마음이 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해 보았다. “집사님, 아프시다는 소식 들었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다행히도 안나는 나의 전화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지혜 자매, 내가 몸이 한 번 가라앉으면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요즘 기운이 없이 지냈어.” 어쩌다보니 우리의 대화는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안나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이후 안나와 더 깊은 관계가 되었을 때 나는 그녀가 회복하기 힘겨운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안나를 보며 “뜨겁게 기도하는 집사님”,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수심이 드리워진 것 같은 인상을 자주 받았다. 안나의 얼굴에 드리운 수심에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쉽게 나눌 수 없는 고민이 담긴 것 같았다. 나는 안나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 삶의 버거움은 안나의 신앙을 점점 침체되게 만들었고, 그녀의 침체된 마음은 그늘진 얼굴로 조용히 표현되고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지 햇수로 7년이 흐른 2018년 7월 17일, 나는 면담을 통해 그녀가 겪었던 깊은 침체의 시간들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빚, 많은 자녀를 키워야 하는 물질적 부담감, 이전 교회 목회자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복합되어 안나의 신앙은 침체기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면담을 통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수심이 그녀의 힘들고 버거운 상황을 총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음을 상황적 맥락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2) 물질적인 부담감

안나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 20대에 결혼을 하고 네 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다. 안나의 남편은 친정아버지와는 달리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녀를 많이 좋아했다고 한다. 안나는 남편이 자신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게 해줄 거라는 생각은 안했지만” 아버지처럼 술로 “내 속을 썩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결혼은 안나에게 일종의 가족으로부터 “도피”와 같았다.

그러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안나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당

시 안나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1억원 가까이 빚을 지고 말았다. 먹고 살 길이 막힌 안나는 “영영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성경에 빚을 탕감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빚도 탕감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안나는 한참을 울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개인회생제도가 생기면서 그녀는 빚의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는 몇 년에 걸쳐 차근차근 갚아 나갈 수 있었다. 안나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며 살 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안나에게 뜻하지 않은 생명이 찾아왔다. 그녀가 넷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다. 안나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생명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막내는 축복”이고 “선물 같은 존재”지만, 당시 안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온전한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나한테 주셨을까...” 안나는 많은 자녀들을 키워야하는 현실적인 부담감 앞에 마음이 짓눌리는 것 같았다.

몇 년간 안나의 가족은 방방마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는 집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안나의 집 주인이 죽게 되면서 재산이 주인의 자녀들에게 분할 상속이 되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오랜 기간 막히게 되었다. 그녀는 자녀들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자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다. 안나는 물질적인 어려움과 신앙의 침체기가 함께 겹쳐있던 당시의 상황을 면담을 통해 이야기해 주었다.

안 나: 남편이 일을 하면서 이제 다른 알바, 택배 알바를 하고, 그거를 내가 이제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고, 어린 막내를 놔두고 일을 도와주고, 저녁에 늦게 오고. 되게... (울먹이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분주하게 세상일을 했던 상태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침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왔었던.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 중에 가장 심한 침체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렇게까지 침체기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 늘, 늘 새벽기도 하면서, 어린 아이들 놔두고 늘 새벽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침체기였었고.

안나는 부업 일을 시작했고, 남편의 택배 아르바이트를 도우면서 밤낮 없이 일

을 하기 시작했다. 어린 막내를 두고 나와야 하는 불안감 속에서도 그녀는 일을 계속 해야만 했다. 안나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욱 힘겹게만 느껴졌다. 재정의 어려움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안나의 신앙은 점점 침체기로 빠져들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어느새 안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다.

(3) 권위자에게 받은 상처

안나를 침체되게 만들었던 것은 물질적인 고난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오랫동안 헌신했던 교회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지금의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는 신앙의 침체기를 촉발하게 한 원인이었다.

안나는 빛을 갠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와중에도,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었다. 목사와 사모, 나이 많은 성도들과 권사의 자녀 몇 명이 다니는 작은 교회에서, 당시 안나는 30대의 젊은 성도로서 “일인 다역”을 하며 교회의 많은 일들을 맡았다. 주일학교와 찬양인도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음식을 해 먹이면서, 그녀는 열정적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했다.

그러나 안나가 다니던 교회 목사는 평소에 성도들에게 자주 화를 내는 성격이었다. 목사는 젊은 조카에게 교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기 위해 조카를 부목사로 임명했지만, 목사는 점점 부목사인 조카를 시기하게 되었다. 한편 안나는 부목사와 중고등부 사역을 함께 하고 있었기에, 가까이에서 부목사의 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부목사와 안나를 목양실로 불렀다. 목사는 부목사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안나에게 이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면담을 하면서 안나는 그날의 일을 회상했다. 나는 안나의 회상을 그녀의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하였다.

굳은 얼굴로 목사님이 나와 부목사님을 목양실로 불렀다. “뭐하는 거야!” 목사님은 나와 부목사를 앉혀놓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부목사님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정확하게 무엇

이라고 말씀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때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목사님이 나에게도 뭐라고 혼을 내는데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앉아있었다. 목사님은 내가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았다며 화를 냈다. 새벽기도에 안가고 공과공부만 참여한 거?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았다. (눈물을 흘리며) ‘저런 분이 목사님이 라고?’ 나에게서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안나는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의 권위자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지금의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목이 메며)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날의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가 안나의 마음에 상처로 새겨졌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안나의 열정은 자꾸 식어졌고 그녀의 신앙에는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안나의 마음에 물질적인 곤란이 더해지면서, 안나의 마음속에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이 쌓여갔다. 하나님에게 실망한 안나의 마음은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고, 안나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했다. 이러한 속사정을 나눌 수 없었던 그녀는 신앙의 침체를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몰라 홀로 힘겨워하고 있었다.

(4) 돌봄의 부재

안나는 “언제든 편하게 갈 수 있던” 교회를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안나와 나는 이 시기에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안나가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며 마음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챙기는 “사교적인”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안나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다.

안 나: 목회자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갖고 교회를 옮겼는데, 여기 와서도 (잠시 침묵이 흐른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 나름 내 영혼을 돌봐주고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들이 그 침체기를 오래 가도록 만들었던...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 (눈물을 닦으며 잠시 침묵이 흐른다)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일 수

도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는 어떤 성도로 인해서, 차라리 그런 말은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차라리 편찮은데, 자기가 누구 누구랑 되게 친하고, 남편들, 남편 집사님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부부는 전혀 초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남편의 일을 도우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던 안나는 그들의 사교적인 즐거움에 초청받지 못했다. 안나는 “새로 온 성도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품어주고 더 잘 챙겨주고 신앙으로 끌어주는” 관계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들 사이에 안나 부부를 위한 환대의 자리는 없는 것 같았다. “여기도 끼리끼리구나...” 자신들의 친한 관계를 “자랑”하며 “기존 교회 성도들끼리만 그냥 좋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들이 그녀에게는 상처로 다가왔다. 안나는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진실한 관계를 원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안나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안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돌봄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은 그녀가 유년시절부터 겪어야했던 상처의 근원과 연결된 감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2) 회복의 시작

안나는 상한 마음을 안고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홀로 고투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상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나봐. 이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이러는데 (웃음). 내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처와 상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시기에 그녀는 교회에서 몇 명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타인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상처 입고 메마른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생수”가 부어지는 것 같았다.

(1) “거룩한 질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안나의 열망은 뜻하지 않게 질투의 마음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나도, 나도 저랬는데.’ 안나는 같은 구역에 있던 다니엘을 보며, 그리고 마리아의 귀가 치유된 소식을 접하며, 예전에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목마름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어느새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고 있었다. 안나는 면담을 통해 당시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었다.

다니엘처럼, 지혜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회복하고 싶었다. 거룩한 질투가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났다. 지혜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치유가 일어났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꾀다.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다. 분명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나는 혼자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의 내 모습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나요? 지금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것들이 없나요? 지혜랑 다니엘한테 있는 것들이 왜 나한테는 없나요? 나는 이런 내 상황이 너무, 너무 싫었다. 나도 저랬었는데 저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지?

안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질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회복하고 싶은” 영혼의 갈망으로 표현되었다. 안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만 같은 지금의 상태가 견딜 수 없이 싫어졌다.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이전의 시간들을 생각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조급하고 답답해졌다. 안나의 마음에는 어느새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긴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안나의 마음에 일어난 질투는 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으로 승화되면서, 안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이 파인 골을 뛰어넘도록 그녀를 재촉하였다.

(2) “향유 옥합”: 타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위로

그 시기에 안나는 지인으로부터 화장품 업체의 한 지부를 맡아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몇 개월간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앉아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화장품 업체에서 몇 개월간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교육” 받으면서 안나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다. 그녀는 고민하며 매일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요?”

2013년 10월 14일, 안나는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지혜 성도~ 지금 기도할 수 있으면 나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지혜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달라고요~” 안나는 나와 만나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 2013년 10월 28일, 나는 안나와 자주 기도하던 다니엘을 초대하여 나의 집에서 셋이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장을 정리하고 화장품 업체의 지부장이 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안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그녀의 사업 문제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한 마음이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지 혜: 집사님,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언제 주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신 적이 있으신지... 주님이 집사님이 드린 향유 옥합을 받으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사님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하시며, 주님이 집사님의 머리에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안나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녀와 하나님 사이에는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향유 옥합... 이 단순한 한마디가 안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간 것일까? 안나는 면담에서 그날의 만남을 회상하며 말했다. “난 정말 그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와서 주님 앞에 드렸던” 은밀한 사랑 고백이 타인을 통해 들려오자, 안나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단순한 한 마디는 안나의 영혼을 조용히 깨우며 하나님과의 잊었던 시간을 다시 생각나게 했다. 나는 면담을 통해 당시에 표현하지 않았던 안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안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되게 많이 드렸어. 한번을 한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교회에 있을 때 늘 했던 고백이었어. 새벽기도 가서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나는 또 내가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잖아.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가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뭔가를 드릴 게 없으니까, 그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던 향

유 옥합을 드린 그 마리아의 그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갔었
거든. …(중략)…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 같아. 위로
하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긴 침묵이 흐른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있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막 그런 하
나님에 대한 오해와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어...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내 기도 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다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시는구나.

물질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절, 안나는 매일 새벽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과 찬양을 드렸다. 그것은 안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
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 눈물로 드렸던
사랑의 고백, 그녀가 부르던 옥합 찬양을 다시금 조용히 읊조려보았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어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빛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어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어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동안 안나는 계속되는 고난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녀를 무관심하게 잊고

있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상처들이 쌓여가면서 안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안나가 부모에게 버림 받은 뼈아픈 상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를 잊고 있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나에게 너무 가혹한 아버지’처럼, 안나는 하나님이 그녀를 잊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안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타인을 통해 매개되어 실망했던 그녀의 마음에 닿기 시작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풀려”가며, 차가웠던 안나의 영혼이 차츰 녹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3) 눈물의 “회개”와 깨어짐

몇 달 후, 설 연휴가 되었다. 안나는 신종플루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오고 며칠간 방 안에 혼자 지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없던 방에서 “비몽사몽 잠이 들락 말락 몽롱한 상태”에서 누군가 안나에게 한 목사의 이름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안나는 인터넷에서 목사의 동영상을 찾아보았다. 안나는 한 목사의 삶을 통해 그동안 “물질을 쫓아가고 있던” 자신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느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었다. ‘난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런데 내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영영 울면서 회개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목사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같았다.

자신의 재산과 특권을 포기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안나는 눈물로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다. “나는... (잠시 침묵이 흐른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안나는 깊은 고민에 잠겼다. 안나에게 평생 고민하며 풀어야 할 “속제”가 주어진 것 같았다. 안나는 그 이후로 화장품 회사에 나가던 일을 정리하였다.

안 나: (한숨을 쉬며) 하... 하나님께서 나한테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계속 주시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부으셨던 것 같아. 생수의 물들을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고 메말라져있는, 찢겨져있는 내게, 나에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부어주고 계시는 그런 시기들이었던 것 같아.

면담을 통해 안나는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하나씩 하나씩,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서”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생수가 조금씩 부어지고 있었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타인들은 그녀에게 신의 마음을 매개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신앙을 함께 하는 교제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로, 때로는 단호한 진리의 말로 타인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안나의 침체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그 회복의 손길은 오랜 시간을 거쳐 안나의 표면적인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존재의 깊은 상처를 향해 들어갔다.

3) 더 깊은 상처의 근원으로

안나에게 회복이 시작된 지 약 1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예전보다 한층 더 밝고 생기 있는 얼굴이 되었다. 안나는 새 사업장을 열어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구역 예배도 드리기를 시작했다. 안나는 활동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전도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는 안나와 전도회 연합 기도회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안나가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 안나의 마음은 더 깊은 상처의 근원까지 다뤄지고 있었다.

(1) 쏟아낸 상처: “너의 아픔이 무엇이나”

2015년 2월 16일, 안나와 나는 한 성도와 함께 전도회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나의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기도를 하던 안나는 성령의 임재¹²⁾를

12) 임재(臨在, presence)는 문자적으로 ‘~위에 존재하다’, ‘오다’, ‘이르다, 만나다’라는 뜻

느끼며 힘이 빠져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안나가 충분히 설 수 있도록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잔잔한 찬양을 틀어주었다. 그리고 안나가 힘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기다렸다. 안나는 한참 동안 그렇게 누워있었다. 안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흘렀을까... 안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지 혜: 집사님, 괜찮으세요?

안 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지 혜: 그랬군요. 집사님...

안 나: 응. 하나님께 나의 상처를 보여드리길 원하시는 것 같아.

안나의 상처는 무엇이였을까? 이 날의 만남 이후에도 안나는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녀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나에게 아픔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 안나는 하나님이 그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길 원한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 안나는 자신의 상처들을 기도 안에서 모두 토해내듯 쏟아내었다고 한다. 안나는 면담을 통해 당시 새벽기도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안 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들, 상처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막 쏟아냈던 것 같아. “하나님, 나 이래서 힘들었다, 이래서 힘들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시간이었던 거 같아. 그리고 지혜네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쓰러져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그 성품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런 하나님의 그

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임재’란, 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인간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하는 순간을 뜻한다(생명의 말씀사(2013), 교회용어사전 참고).

따뜻한 성품들...

안나는 수십 년간 쌓아두었던 아픔과 상처를 기도를 통해 토해냈다. 그리고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상처로 인해 차가워졌던 안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묵상하며 차츰 녹아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떠올리며 안나의 추웠던 기억과 상처들은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고 있었다. 이제 안나는 타인을 매개로 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상처를 더 깊이 발견하고 표현하게 되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쌓여있던 오래된 상처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발견하고 자각함으로써, 안나는 억눌러왔던 아픔을 표출할 수 있었다.

(2) 타인에게 열어 보인 상처

안나가 나에게 그녀의 아픔에 대해 암시하였던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가 오며 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다. 안나와 나는 집 앞에서 헤어지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다. 그때 안나는 나에게 희미한 한 마디 말을 남겼다. “지혜 자매, 사실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어...” 그날의 회색빛 하늘처럼 안나의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안나가 자신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다. 안나는 상처를 열어 보이는 것에 대해 오랜 시간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

2015년 3월 23일, 그로부터 약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안나는 나에게 자신의 상처를 나누길 원했고 안나와 나는 오늘의 만남을 준비하며 기다렸다. 그날 안나는 긴 시간동안 그녀의 지나온 삶과 상처에 대해 나누었다.

안 나: 내가 지혜한테 스치듯이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 나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다고...

지 혜: 생각나요. 언젠가는 집사님이 마음을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나: 나도 그동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나누게 되네. 내가 원래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 안하거든. 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상처를 지혜와 나누라고 하

시는 것 같았어. (안나는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깊은 상처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안나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어렸을 때, 아빠와 엄마 사이가 매우 안 좋았거든. 아빠는 술을 많이 드셨고, 술에 취하면 엄마를 많이 때렸어. 칼로 위협한 적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 그 광경을 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나랑 동생을 데리고 밖에 피해있던 적도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나랑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갔어. (안나는 마치 안개 속에서 기억을 더듬어가듯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저녁 무렵이었을까, 새벽이었을까. 어둑할 때에 엄마가 짐을 들고 나가는 걸 봤어. 나는 엄마의 뒤를 쫓아가면서 엄마 가지 말라고 울면서 따라갔어. 그런데, 결국 엄마는 나와 동생을 버리고 떠났어.

지 혜: (안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안나의 아픔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안 나: 엄마가 그렇게 떠나고 나랑 동생만 남았어. 아빠랑 같이 살았지만 아빠는 술만 마시고 우리를 전혀 돌봐주지 않았거든.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올 때도 많았어. 그런데 친척들도, 그 누구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어.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일찍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 동생도 더 공부를 했으면 지금보다 삶이 나았을 텐데... 엄마, 아빠 없이 살아온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미어져. (동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나는 가슴이 아픈 듯 눈물을 흘렸다. 안나에게 동생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 있는 것 같았다.)

성인이 돼서 엄마를 만났는데,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가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너무 삶에 찌든 모습인 거야. 내 기억 속에 있는 엄마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생한 엄마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우리를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흐느끼는 안나의 마음에는 엄마를 향한 연민과 원망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것 같았다.)

아빠는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아빠가 좀 아파. 최근에 친척분에게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내가 전화하면 아빠

는 왜 전화했냐고 화만 내시고... 아빠가 나를 매몰차게 밀어내
서,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 (안나는 숨죽여 울었다.)

지 혜: (순간 나의 마음도 함께 아파왔다.)

안 나: 못 배운 게 그렇게 한이 돼. 내가 더 배웠다면 그렇게 고통스럽
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안나는 한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지 혜: (나는 흐느끼는 안나에게 다가가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안 나: (안나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한참을 울었다.)

지 혜: (나도 안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를 위한 기도가 흘러나왔
다. '사랑한다. 안나야.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 품에서 이제 쉬
렴.' 안나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안나
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불을 가져왔다.)

안 나: (안나는 이불 위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 혜: (안나가 누워있는 동안 나는 기타를 연주하며 조용히 한 찬양을
불러주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안 나: (울고 있던 안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지 혜: (나도 잠잠히 안나의 곁에 누워 쉬면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았다.)

안나는 이 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아픔과 상처를 타인에게 열
어 보였다. 부모로부터 버려져 홀로 남겨져야 했던 시간들, 방치된 채 배고픔을
견뎌야 했던 어린 시절의 고통, 생계를 책임지며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하루하
루, 그리고 지금도 매몰차게 자신을 밀어내는 아버지께 대한 아픔, 안나에게 이
모든 시간들은 뻗속 깊은 고통으로 남아있었다.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방치되어

돌봄 받지 못했던 시간들은 안나의 영혼에 상처의 근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안나는 오늘 그 뼈아픈 고통의 근원을 처음으로 타인에게 열어보였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깊은 상처를 나누길 원했던 것이다.

안나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나의 마음은 한동안 멍멍해져 있었다. 그때 안나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나는 안나에게 밝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사실은 그녀의 지나온 삶을 떠올리며 한동안 가슴이 아프고 멍멍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안 나: 오늘 정말 감사했어^^ 지혜야~~~♡

지 혜: 저두요 집사님^^ 귀한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고난 속에 핀 한송이 꽃 집사님♡

안 나: 사순절 묵상 하는데 여기 말씀이 내 고백이 되네^^ 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시절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이기에 감사합니다!^^

지 혜: 집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 또한 삶의 고난이라는 주제 앞에서 겸허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마음과 지식들을 더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을 통해 오늘 저의 삶도 한 단계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오늘의 만남.. 제 삶에 진한 여운이 돼서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안 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나눈 것들, 모든 걸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고 귀한 통로가 되길 기도할게~♡^^

지 혜: 집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해요.

안 나: 나도 오늘 많은 것들을 얻었고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랬던 시간이었어~ 마음도 후련하고 한 단계 껍질을 벗은 것 같은ㅋㅋ 근데 오늘 큐티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 같아^^ 난 지혜 존경하는데~ㅋㅋ

지 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더 아름답게 활짝 꽃 필~ 집사님과 저의 삶을 기대해봅니다^^

내밀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관계, 그것은 치유가 일어나는 대화의 본질적인 관

계 맺음이 아닐까.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공감과 경청, 눈물과 안아줌이 있는 대화를 통해, 고통은 덜어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안나는 이날의 대화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재해석하는 소망스런 힘이 생긴 것 같았다. 삶의 고난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고통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2015년 4월 무렵, 안나는 드디어 비가 새던 집에서 나와 새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안나는 이사 준비를 하느라 고된 와중에도, 새 보금자리를 얻은 기쁨으로 얼굴빛이 환해 보였다. 나는 안나의 내면의 고통이 덜어진 만큼, 현실의 고통도 함께 덜어진 것 같아 감사했다. 뺏속 깊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넘어, 안나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그려가게 될까? 나는 아름답게 꽃 필 그녀의 소망스러운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

4) 다시 구술하는 과거의 상처

안나가 깊은 상처의 근원에 이른 것은 오랜 시간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신과의 대화,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안나는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자각하고 표현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안나는 그렇게 한발 한발, 깨어진 내면의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갔다.

한편 친구였던 우리가 연구자와 참여자로 만나 지나온 삶을 다시 구술하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나는 이 연구가 안나의 삶에 도리어 누(累)가 되지 않을까 고심하였다. 2018년 7월 17일, 연구를 시작한 지 3년 반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안나는 자신의 삶을 다시 조명하며 지나온 시간을 담담히 구술할 수 있었다. 안나가 자신의 상처를 떠올리는 것이 너무 아프지 않도록, 그녀가 상처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었다. 안나는 면담을 통해 자신의 유년시절의 상처를 다시 구술함으로써, 자신의 생애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

(1) 거부하는 아버지: “아빠가 계속 나를 밀어내셨거든”

안나의 상처의 근원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한동안 안나

는 오랜 시간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딸로서 아버지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만나가 연락을 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었다. 2015년 어느 날,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가 다시 생각났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한동안 아버지에게 대해 잊고 있던 만나에게 근심이 밀려왔다. 그리고 얼마 후, 친척으로부터 아버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다.

안 나: 그 새벽에 아빠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를 품길 원하셨으니까 나한테 그런,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정말 '이건 뭐지? 이건 뭐지?'라고 하고 있는데 기다렸어. 아빠가 연락 올 수 있으니까. 나한테, 아빠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근데 정말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아빠가 위암이고 안 좋은 상황이라고 연락이 오고. 마음의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 아빠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던 것 같아.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 새벽에 아빠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 아빠에 대해 생각나게 하시고, 아빠한테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다는 메시지를 어쨌든 주셨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목이 메며 잠시 침묵이 흐른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야. '니가 얼마만큼 힘든지 알고', 다 보고 계시니까, '니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도 알고, 니가 얼마만큼 애썼는지도 안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 그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너가 아빠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그렇게 거부하는 아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빠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분명하니까.

유년시절 그녀를 떠난 어머니에 대한 기억보다 안나는 자신과 동생을 돌봐주지 않고 방치했던 아버지에게 대해 더 고통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돌봄 받지 못한 상처와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에게 거부된 상처는 안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안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려는 자신의 애씀이 도리어 미움으

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모든 애씀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기다렸다.

“너의 아픔이 무엇이나, 너의 상처가 무엇이나”하며 그녀에게 묻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녀는 상처 난 마음을 쏟아내었다. 안나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는 깊은 존재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오래된 상처의 근원이었으며, 그 상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안나는 상처를 안고서도 다시 한 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리게 되었다.

(2) 방치된 고통

아버지에 대한 안나의 상처는 얼마나 깊은 것이었을까?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안나가 어렸을 때 그녀와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는 곧 돌봄의 부재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셨고, 안나와 동생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울 때가 많았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그녀의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동생과 안나는 헤어지게 되었다. 동생은 큰 집에 맡겨졌고, 안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갔다. 그러나 안나는 그곳에서도 긴 시간을 홀로 지내며 배고픔을 견뎌야 했다.

안 나: 내가 6학년 때 이사 왔을 때 동생은, 큰 집에 있었어. 큰 집에 할머니가 계시고 하니깐... 큰 집에 있다가, 근데 6학년 때, 거의 아빠가 집에 안계셨어. 집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나 혼자 되게 많은 시간들을 있었던 거 같아. 그래서 맨날 굶고,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 먹는 정도. 그것도 주인집에서 얹혀서. 왜냐하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 그때는, 주인집에서 얹혀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정도.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려고 하는데 그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는 다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아빠가 오지도 않고, 등록금도 낼 수도 없고. 그 근처에 작은 집이 살아서 작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작은 엄마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아빠 아는 분을 통해서 서울로 가게 된 거지. 공장으로.

동생과 떨어져 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왔지만, 이곳에서도 안나는 홀로 배고픔을 견디며 아버지를 기다려야 했다. 안나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공장에 취직을 하고, 안나 홀로 서울에 있는 공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돌봄의 부재로 인해 안나는 일찍부터 생계를 위해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유년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시간들, 외로움과 배고픔을 견디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려야 했던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은 안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어린 안나에게 기본적인 물질적, 정서적 돌봄 모두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3) 노동과 이주: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

동생과 헤어져 아버지를 따라 지방으로, 그리고 다시 홀로 서울에 있는 공장으로 오게 된 안나는 후에도 일터를 따라 여러 번 거처를 옮겨야 했다. 안나는 면담을 통해 그녀의 기억 속에 조각조각,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이주의 경로들을 다시 더듬어갔다. 이주의 과정 속에는 아버지와 동생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었다. 안나가 서울에 올라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왔다. 아버지는 그녀가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을 했고 동생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안나는 미용 기술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안 나: 공장 근처에 슈퍼가 있었어.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 아줌마가 나보고 미용 기술을 배워보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야. 여기 있지 말고 서울에 자기 아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구한다고 그러더라. 거기서 하는 그거를 배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래서 그 미용실을 가게 됐어. 동생하고 아빠는 거기에 있고, 나는 종로로 가고. …(중략)… 거기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술집 동네였어. 종로에 가면, 종로에 가면, 어... 요정이 있는 골목들이 있어. 어디라고 해야 되지? 익선동. 그 왜 낙원상가 있지. 그쪽. 낙원상가 있는 그 동네거든. 근데 그 낙원상가에서 그쪽으로 해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요정이 있어. 옛날 그 요정 집 있지. 근데 그 미용

실이 거기였거든. 근데 그러다보니까 예쁜 젊은 손님들이, 아가씨 손님들이 되게 많은 거야. 술집에 가는, 나가는 아가씨 손님들이. 근데 그 언니들이 되게 예뻐해 줬어. 나이도 어리고, 어, 싹싹하게 잘 하니깐 언니들이 되게 예뻐해 주고 잘 그랬던 것 같아.

십대 중반에 안나는 아버지와 동생과 다시 헤어져 종로로 와서 미용 기술을 배웠다. 아직 미혼이었던 미용실 원장의 집에서 안나도 함께 생활하면서 미용 일을 돕게 되었다. 안나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 손님들”에게 꼬박꼬박 팁을 받을 수 있었다. 안나는 매일 은행에 가서 팁을 저금하며 차곡 차곡 돈을 모았다. 그런데 가끔씩 아버지와 동생을 보러 갈 때면, 아버지와 남동생 둘만 사는 집 상태는 늘 엉망이었다. 안나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미용실 근처에 집을 얻어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살림을 병행하며 일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또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근데 아빠가 그렇게 와 놓고 아빠가 사라져버렸어.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동생이랑, 내가 동생을 책임지면서 어, 거기서 그렇게 살았던 거지.” 아버지마저 동생을 두고 떠났고, 그렇게 안나는 몇 년간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냈다. “아빠가 다시 온 게, 다시 찾아온 게, 내가 스무 살이 넘어서였으니까.” 부모가 부재한 상황으로 인해, 안나는 십대 때부터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4) 가장의 무게와 한(恨): “내가 개한테 부모잖아”

아버지와 몇 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고 밤에는 야학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틈틈이 집안 살림을 챙기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미용실 허드렛일을 하면서 안나의 손에는 심각한 습진이 생겨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을 맞을 수 없었다. 손님들의 팁을 매일 저축한 덕분에 당시 이천만원 정도의 큰돈을 모았던 안나는, 결국 미용실 일을 그만 두고 야학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오랜 시간 떨어

져있던 아버지와 다시 생활하려고 하니 안나와 동생은 아버지와 계속 부딪혔다. 사춘기를 지나던 안나의 동생은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방황하기 시작했다. 동생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았다. 안나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진 상처 때문에 동생이 방황하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안 나: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서 그 사춘기 때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 내 나름대로는 동생한테, 같이 있으면서 동생한테, (울먹이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나한테 밖에는, 내가 개한테 부모잖아. 나한테만 의지하고, 나름대로 동생하고 나는 사이가 되게 좋았어. 손 붙잡고 다니고. 근데... 하... (한숨을 내쉬 후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근데 동생이 사춘기를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랬던 거 같아. 그러면서 나는, 어, 기숙사가 있는 회사로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런 거거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학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던 안나와 달리, 동생은 청소년기를 방황하며 지냈다. 안나는 그런 동생이 안타까웠다. 안나는 이제 동생에게 부모나 다름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안나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학교에도 나가지 않는 동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근심 속에 살아갔다. 안나의 마음에는 어느새 깊은 한숨이 쌓여만 갔다. 안나는 남편을 만나 일찍 가정을 이루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방황하는 동생을 생각할 때면 그녀의 마음은 버거워졌다. 면담을 하기 얼마 전, 안나는 동생과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힘들었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일이 있었다.

안 나: 지금까지 나 혼자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막, 했던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막 폭발하면서 며칠을 울었어. 방에 들어가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되게 내가 막 누르고 누르면서 생활해온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확 폭발을 했다고 해야 되나. 나도 모르고 있었던, 누르고 있었던 감정들부터

해서, 내가 왜 동생한테, 내가 지금까지 도움을 주고 했던 동생한테, 동생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나는 내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내가 왜 이 무게를 내가 왜 지고 있어야 되고, 가장의 무게를 내가 왜 지고 있어야 되고부터 해서 하나하나가 다 터지는 거야. 터진 거지 한번에.

상처의 폭발, 그것은 안나의 응어리진 마음을 울음으로 풀어내야 했던 해소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른 나이에 가장으로서 생계를 짊어지고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던 안나의 마음에는 깊은 한이 맺혀 있었다.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 그 사전적 의미처럼 안나의 마음에는 원망과 억울함, 안타까움과 슬픔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이 ‘한’이라는 정서로 응어리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부모 세대가 지나온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 안나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 같았다.

5) 온전한 회복으로 가는 길

유년기부터 결혼 전까지의 시간은 안나의 존재에 깊은 상처의 근원을 형성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농축된 시간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된 안나는 지나온 시간을 조금은 먼발치에서 회상하며 구슬렸다. 안나는 지난 몇 년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온전한 관계성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1) 부모를 향한 연민

안나가 스무 살 무렵이 되었을 때 그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8~9년 있다가 만난 거니까, 어색하지. 엄마와의 관계도 어색하고. 그리고 엄마가 사는 모습도 이해가 안 되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짧은 한숨을 내쉰다) 하, 지금은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다 그냥 용서가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아. 응. 지금은...” 안나는 짧은 한숨과 함께 어머니와의 만남을 다시 회상했다.

안 나: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찾았던 거는, 그...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남편 분이 사고로 이제 죽게 된 거야. 엄마... 엄마의 거기서 낳은 아이들이 있거든.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상태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는 지금도 큰 엄마랑 연락을 해.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였고, 나쁜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아빠의, 아빠가 술만 먹으면 이제 그 주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였어. 아빠도 평상시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술만 마시면 주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뭐 맨 정신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또 술을 많이 하시고. 그런, 그랬던 거지. 지금은 사실은 (목이 메며 눈물을 흘린다) 참 엄마 인생도 너무 불쌍하고, 아빠 인생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내가 받은 상처도 많이 크지만 ‘저 분들의 삶도 정말 고단한 삶이고, 힘겨운 삶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연구자: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의 부모를 생각한다)

스무 살의 안나는 그렇게 어머니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과 그 주름진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다. “좋은 며느리”였던 어머니, “좋은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그 “고단하고 불쌍한” 부모의 인생을 바라보며 안나는 연민의 정을 느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가장 행복했겠지만, 어찌할 수 없었던 부모들의 선택 앞에서 안나는 이제 부모의 연약한 인생을 긍휼한 마음으로 조용히 감싸 안아주었다. 안나의 마음에 깊이 파여 있던 상처의 깊이만큼, 이제 그 원망이 씻긴 자리에는 부모를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었다.

(2) 회복된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는 위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안나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2017년경, 안나가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찾아가고 후로 아버지와 안나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다.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아버지는 이제 자녀를 향한 모진 마음을 내려놓고 안나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찌면 아버지는 자

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 때문에 안나를 더 모질게 밀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찾아가고 난 뒤에... 그 뒤로는 아빠가, 거부를 안 해서. 거부를 안 하시고, 내가... 거부를 안 하셨던 것 같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부”라는 단어는 안나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의 감정임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거부된 상처, 그것은 돌봄 받지 못하고 방치된 고통과 함께 안나의 존재를 고유하고 존귀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상처들이었다.

안 나: (침묵이 흐른다) 하나님이... (잠시 침묵이 흐른다) 다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셨던 것 같아. (다시 긴 침묵이 흐른다) 그러면서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숨을 내쉰다) 하... 아빠와의 관계는... 지금은 회복돼서 괜찮아. 아빠가 나한테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거든. (웃음)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셔서, 밤마다 전화를 하셔서 “날씨 덥지” 잘 챙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지금은 괜찮아. 아빠에 대한 상처도 괜찮아진 것 같아. 엄마에 대한 것도, 괜찮아진 것 같고. (다시 긴 침묵이 흐른다) 어쨌든 아빠와 연락을 하고 지내니까.

안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침묵에 잠겼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 안나에게는 아직 긴 침묵과 한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 오랜 시간의 고통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안나의 마음에서 쉽게 잊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딸로서 챙기게 된 모습을 보며 안나는 작은 위로를 얻는다. 항암치료 후 약해진 아버지를 안나는 자신의 집 근처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서울에 혼자 있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쇠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녀의 안부를 물으며 ‘아버지 됨’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안나는 매일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3) 상흔(傷痕): “상처가 치유가 되도 그 자국이 남아있는 거 같이”

안나는 부모에게 살가운 딸이 되고 싶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긴 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싹트는 친밀한 정(情)을 안나는 오랫동안 체험하지 못했다.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끊어져있던 시간으로 인해 안나는 “차가운” 성격의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 오랜 세월의 거리를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안나는 고민이 되었다.

안 나: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 거리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게 내가, 우리 애들이 나한테 대하는 것처럼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안, 안 되는 거야. 약간 낯선 그런 느낌? 그게 뭐 자식이면 부모한테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하는데, 어...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지. 편안하게 “엄마, 나 뭐 해줘.” 보통 다른 애들 보면은 막 그렇게 하잖아. 편안하게 요구하고 그냥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같아. 그만큼의 거리라는 게 있어서. 같이 정말 몸 부대끼면서 살아온, 음, 그렇게 그러지 못하는? 엄마는 되게 나한테 미안해 해. 늘 미안해하고 그러거든. 늘 미안해하고 그러는데. 나부터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못해서 조금, 미안하지. 그렇게 살가운 딸이 못돼서. (가볍게 웃음)

연구자: (웃음)

안 나: 어, 그런 거 같아. 살가운 딸이 아니어서. 내가 그래서 되게 차가운가봐. 뭐지, 정을 막 이렇게 받고 자라지를 앓았잖아. 사람한테 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막 이렇게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막 이런 거를 잘, 못하는, 못하는 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나 혼자만의 어려움? (웃음) 어, 나 혼자만의 어려움? 인 거 같아. 그 상처가 치유가 되도 그 자국이 남아있는 거 같이, 그런... 그런 상태?

상흔(傷痕), 마치 상처가 치유되고 난 후에도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안나의 마음에는 아직 부모와의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몸을 부대끼면서” 사는 관계, 살가운 사랑과 정을 주고받는 관계는 유년시절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부로 전해지는 그 살가운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안나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살가운” 관계

가 결핍되었던 오랜 세월의 거리를 극복하고 어떻게 부모에게 편안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 안나에게 어려운 숙제처럼 남아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금, 안나의 마음에는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여유와 편안함이 찾아온 것 같았다.

안 나: 난 내가 생각하기에 아빠랑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고... 이제 편안하게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좀 더 편안하게.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나가셨구나'라는 거를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 같아. 그런, 이제 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부모님이거든. 엄마, 아빠에 대한 거. 특히 아빠하고의 이제 좋지 않은 관계.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회복해서, 이렇게 아빠랑 같이 저기하는 것들이 시간들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해야 하나? 음... 동생은 아직도 숙제지만.

연구자: (웃음)

안 나: (웃음)

관계의 '편안함', 그리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편안함의 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안나를 보며 나는 이제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안나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나의 아픈 상처에 대해 다시 면담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안나가 또 한 번 아픈 기억들을 상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과연 윤리적인 것일까?'하는 고민들이 나를 자꾸만 머뭇거리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안나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조금은 편안하게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면담을 위한 3년 반의 기다림은 안나와 나에게 모두 필요한 값진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4) 의미 있게 구성된 삶의 조각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는 몰랐지만, 그 시간을 먼발치에서 회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과거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재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고통이나 상처, 아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때에 진실하게 만난 관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난 진정성 있는 만남과 대화의 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 있는 삶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다.

안나는 사실 면담을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고 한다. “나만 퐁퐁 싸매두고 있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안나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학벌 위주의 나라”에서 사람들의 “또 다른 시선”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나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자신의 삶을 구술하면서, 조각난 삶의 기억들을 재구성하고 배치해 갔다. 안나는 자신의 삶을 구술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과 관계들을 엮어가면서, 조각난 기억들을 의미 있는 삶의 그림으로 맞춰갈 수 있었다. 나는 위에서 기술한 안나와의 대화를 안나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한 방식에 기초하여 기술하였다. 안나는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나누었다.

안 나: 나도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약간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다시 돌아본 거 같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그냥... 정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가고 있었네?’ ‘나를 이렇게 치유해가고 있었네?’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나가고 있었네?’ 지금 와서 그 모든 게 약간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 드는 거 같아. 그 전에는, 어... 내가 뭐... ‘내 이야기가 뭐가 할 게 있나?’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잖아.

안나는 면담을 통해 과거의 일들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의미 없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과

거의 기억들이 만나 자신의 구술을 통해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안나는 자신만의 구별된 삶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삶의 역사를 구술할 수 있었다.

안 나: 나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막 보여지고 막 이렇게 크게 막 역사하고 이런 게 없는데, 없는 거 같은 (웃음), 다니엘처럼 그런 거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고, 치유해 나가시고,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랬던, 다 하나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 결국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의 방식으로 나를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때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치유될 수가 있었구나.’ 지금 내가 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뭔가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물론 완성되어있지 않지만 (웃음). 완성되어있지 않지만, 음.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나는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자신의 삶에 대한 거친 스케치를 할 수 있었다. 지나온 삶을 구술하는 과정을 통해, 안나는 자신의 과거를 고통이나 수치 이상의 것으로, 의미 있는 삶의 일부로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만나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스토리로 승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아직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 있지 않은 과정 속에 놓여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안나는 흩어져있던 기억의 퍼즐을 맞춰가며 자신의 삶에 담긴 고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5) 기다림의 시간을 통한 성숙

우리는 깨어짐과 흔들림의 과정 속에서도 회복의 계기들을 맞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을 이뤄갔다. 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회복을 체험한 우리는, 비록 “지금 다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온전한 회복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놓여있었다. 만나와 나는 그 길에서 서로의 마음과 삶

을 돌보며 진실한 친구로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 연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나는 안나와 면담을 마친 후에야 이 연구가 나와 안나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었음을 깨닫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연구자: 제가 많이 큰 거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안 나: 다 그 시간을 지내면서 다 성숙해져가는 것 같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있는 거 같아. 고난도 유익이고. 음... 음...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런 말씀 있잖아. 응.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은 늘 좋은 걸 주시는데 (웃음). 근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어쨌든 수고, 오래 기다리느라고 수고했고 (웃음).

연구자: (웃으며) 기다림의 의미를.

안 나: 기다려줘서 고마워 (웃음).

연구자: (웃으며) 의미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웃음).

안 나: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 안에 약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나봐. 해결되지 않은 불편한 것들? 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좀 다 정리가 되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나로가 아니라 약간 내가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던 것 같아. 근데 너무,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했다는 게 사실은 되게 그게 참 음. 어디서 어떻게 그 시간대에 (웃으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어, 했다는 게 참, 응.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구나' (웃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연구자: 저희들을 그 장소에 모아놓은 것처럼. (웃음)

안 나: (동시에) 모아놓으신 것처럼. (웃음) 그치, 그리고서는 또 때가 되면 다시 흩어지고.

연구자: (웃으며 동시에) 흩어지고, 그러니까. (웃음)

안 나: (웃음) 정말 너무, 너무 신기하지. 응. 그런 거 같아서. 참,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알 수가 없고 참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해. …(중략)… (웃으며) 어, 정말 강권적인, 내가 뭘 어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 같아. 그래서 그게 너무 그리워 (웃음). 그게 너무 그리워 (웃음). 늘 그렇게 살 순 없나요? (웃음)

연구자: (함께 웃음)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안나는 힘겨웠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은 떨어져서, 이전 보다 편안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 우리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치유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진한 시간들을, 안나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필연 속에서 다시 바라보았다. 그 생생했던 만남이 너무나 그리울 정도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했다. 이렇게 안나의 삶에 대한 연구는 서로를 향한 만족감과 웃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나는 연구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기다리며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상대방의 머뭇거림을 존중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의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기다림이 허락된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온전히 열어 보일 수 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열어 보임을 통해 대화는 타인의 존재 깊숙한 곳까지 다가가는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신뢰하는 만남과 대화,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숙하게 익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IV. 상처의 근원과 치유적 대화

우리의 대화는 오랜 시간을 거쳐 내면을 향해 가면서 상처의 근원이 있는 존재의 심층에 다다르게 되었다. 존재의 심층에 자리 잡은 상처의 근원에 마주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의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발생적인 연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신과의 대화,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막연하고 익명적으로 남아있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의식으로 보다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었다.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대화로 나누었을 때, 상처 난 마음에 지배받던 존재는 상처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치유는 참여자들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관계의 회복 안에서 이뤄졌으며, 나는 이러한 대화 관계의 회복을 돕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연구를 시작한지 1년 반이 흐른 시점에서, 나는 우리의 대화 체험을 개념화하면서 대화 체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는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회상하고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대화가 상처의 근원을 향해 가는 지향적 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대화를 통해 치유를 체험하게 되는 현상을 ‘치유적 대화’로서 잠정적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는 아직 잠정적인 형태의 개념화 작업이지만, 내면의 치유를 향한 대화 체험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치유적 대화’는 내면의 상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 주체와 타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성을 실현하는 가운데 체험되는 대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인간 존재의 상처와 내면의 치유라는 실존적 관심을 유지하면서,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서는 신과의 대화 체험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뤄진 대화 체험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다음에서는 먼저 참여자들의 존재를 형성하는 생존과 실존 차원의 문제가 어떻게 상처의 근원으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고 치유하는 대화의 과정은 어떠한 과정과 성격을 띠는지를 탐구하였다.

1. 상처의 근원에 대한 이해

참여자들이 유년시절부터 겪었던 체험들은 어떠한 의미구조를 갖고 상처의 근원으로 형성되었는가?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녀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심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오랜 시간 그들의 존재에 구체적인 상처의 체험들이 쌓여 가면서, 내면의 상처가 현실의 문제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불안이나 강박, 신체적 아픔, 크고 작은 관계의 갈등이나 신앙의 침체와 같이, 참여자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생존’과 ‘실존’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표출된 현상이기도 했다.

참여자들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의 대화는 표면적인 현실의 문제로부터 점점 심층적인 내면의 상처로 거슬러 올라갔다. 특히 유년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은 실존적 상처와 가난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는 그들의 존재에 상처의 근원을 형성하는 체험들을 발견하였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 거주 불안정이라는 체험이 실존적, 생존적 차원에서 참여자들의 존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것이 상처의 근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면의 상처에 대한 지향적 관심을 갖고 있는 치유적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상처의 근원에 대한 분석이 선행적으로 수행되었다.

1)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

인간의 모든 경험이 상처의 근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며,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모든 활동들은 일상적 차원에서 소소하게 이뤄진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타자’¹³⁾를 만났을 때, 이러한 평범한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뒤바뀔 수 있다. 참여자들의 삶에서 체험한 일상성의 깨어짐과 상실은 친밀했던 관계의 깨어짐과 상실이라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 일어났다. ‘고난’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타자는, 일상을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혼란스러운 실존적 물음이 뒤엎힌 장(場)으로 우리들을 밀어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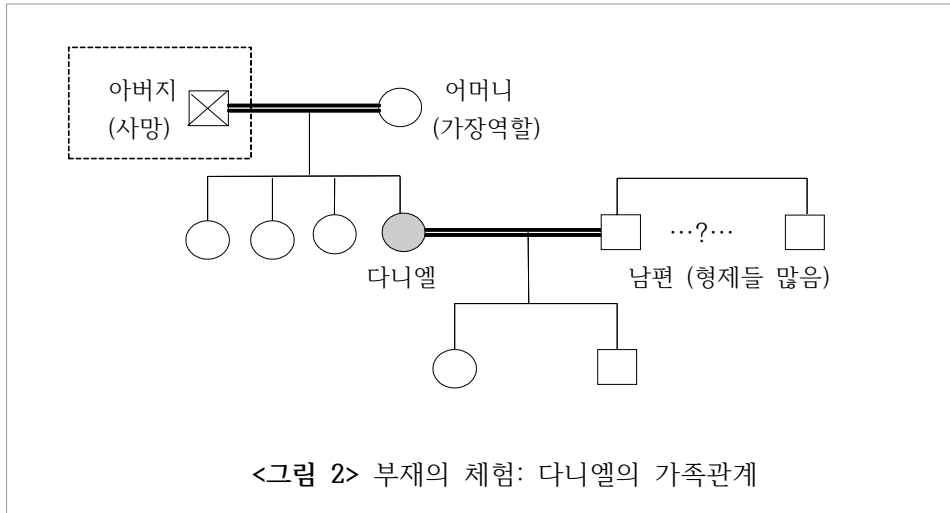
13) 레비나스에게 ‘타자’는 고통, 죽음, 미래, 고아와 과부의 얼굴을 한 타인과 같이 “주체가 내부에서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 즉 외재성”을 본질로 한다(조용환, 2008b).

참여자들과 나는 모두 관계의 깨어짐과 상실의 체험을 통해 존재의 결핍과 불안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과 상실의 체험은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다뤄진 상처의 근원이기도 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가 우리들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나는 인간의 존재에서 '관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근원적으로 자리한 실존범주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1) 관계의 상실과 빈자리

친밀한 관계가 상실되는 가장 큰 체험 중 하나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 떠나간 경우일 것이다. 특히 의식주를 함께 하며 오랜 시간 삶의 행복과 고난을 함께 겪는 '가족'이라는 관계는 그 친밀함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존재자에게 가족 구성원의 죽음은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주는 존재의 상처로 각인된다. 무엇보다 가족을 통해 생존을 함께 유지하기 때문에, 특히 생계를 부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죽음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일상의 불안정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참여자 다니엘의 경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빈자리는 아버지 대신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에게로 전가되었다. 어린 다니엘은 언니들의 역할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부모의 죽음은 관계의 상실이라는 아픔에서 시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문제 앞에 마주하게 한다. 아래 다니엘의 가족관계를 보면,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없음'이 아닌, 가장을 잃어버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겪어야 하는 상실과 부재의 체험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죽음을 통해 존재자가 부재한 상황은 ‘없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관계의 상실과 그로 인한 실제적인 고통과 불안정이 ‘찾아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존재자의 부재는 관계의 상실이라는 고통과 함께 때로는 생존적인 불안정까지 수반하는 사건이었다. 실제로 어린 자녀들의 생존은 부모의 존재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죽음은 자녀들의 생존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죽음을 통해 가까운 관계를 상실한 이들이 겪는 이러한 ‘빈자리’의 체험은 생존적인 불안정과 함께 실존적인 아픔을 수반한다. ‘빈자리’의 체험은 비단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 이별을 통해서도 겪을 수 있는 상실의 체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겪게 되는 ‘빈자리’의 체험은 존재자의 부재 상황을 더욱 여실히 느끼게 하는 체험이다. 이는 존재자는 부재하나 존재자의 ‘빈자리’는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모순의 체험’이기도 하다.

다니엘의 꿈에서 이따금 아버지가 나타나 유년시절에 그녀와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을 공유한다. 그러나 꿈에서 깨면 그녀의 아버지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 나의 꿈에서도 유산된 아이 복음이가 나타나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보면 복음이는 더 이상 나의 곁에 없음을 확인한다. 존재자의 부재를 확인하는 이 ‘없음’이 인식되는 순간에, 타인과 함께 더 이상 시간과 공간, 관계와 신체의 교차를 나눌 수 없다는 실존적 고통이 밀려온다. 이처럼 타인

의 ‘빈자리’가 나의 삶 속에 여전히 현존하는 것, 그것은 ‘빈자리’ 그 자체의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부재의 현존’이라는 모순의 체험이었다.

레비나스는 존재자가 없을 때에도 ‘막연히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존재의 본질을 설명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존재는 반드시 존재자에 붙박여 있는 것은 아니다(강영안, 2005: 89). 마치 “어둠으로 덮인 사물들”이나 “형상 없는 우글거림(grouillement)”처럼(Levinas, 1947a), ‘없음’ 그 자체는 ‘무(無)’가 아닌 ‘존재’의 영역에 속한다. 이는 무규정적이고 익명적인 상태로 있는 “존재자 없는 존재”가 가능함을 말해준다.¹⁴⁾

인간의 삶에 있어서 타인의 죽음과 같이 “존재자 없는 존재”를 극적으로 확인하는 지점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타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존재자가 우리의 곁에 없지만 그와 함께 나누었던 추억이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 맺고 있음을 발견한다. 죽음을 통해 존재자는 부재한 상황이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타인과의 관계 안에 현재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다. 이때의 존재는 무규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레비나스의 ‘익명적 존재’ 개념과는 구분된다. 체험적 시간과 공간, 관계와 신체를 함께 나누는 존재는 존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이름과 얼굴을 갖고 타인의 삶에 공존할 수 있다. 존재자가 죽음을 통해 사라졌을 경우에도, 그와 관계를 맺었던 이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이름과 얼굴을 가진 존재’에 대한 이해는 레비나스의 ‘익명적 존재’와는 구분되는 지점이다.

존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 공유했던 삶은 살아있는 자의 신체 속에서 여전히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물리적인 부재로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실재하는 것이다. 타인의 존재는 나의 삶 속에 여전히 공존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다니엘에게 아버지의 상실과 그로 인해 갖게 된 외로움의 정서는 아버지 없이 혼자 애쓰며 살아온 “외로운 소녀 루시”의 정체성으로 형성되었다. 이처럼 가까운 타인의 부재는 그리움을 넘어,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실존적 차원의 결핍으로 이어지면서, 특정한 존재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살아있다는 것은 본래 ‘지금-여기’에서 타인과 신체로 더불어 존재함을 의미한

14) 레비나스(Levinas, 1947a)가 “존재자 없는 존재”를 확인하는 예로 든 것은, 권태와 무기력, 피로와 같은 체험이나 밤의 침묵과 같은 “익명적 있음”의 상태이다.

다. 그러나 부재하는 존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타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살아있는 자는 ‘부재’ 그 자체의 공허를 느끼며, 타인을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의 정서를 키워가게 된다. 친밀함을 공유하는 신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라짐은 존재자의 빈자리를 더 깊이 확인하게 되는 상실과 외로움의 체험이다. 이는 지향의 대상이었던 존재자가 사라지고 존재자를 향한 지향성만 방향을 잃고 남게 된, 관계 상실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2) 관계의 깨어짐과 숨겨진 고통

존재자의 죽음으로 관계가 상실된 체험이 상처의 근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혼 등과 같은 가족과의 이별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다. 참여자 마리아와 안나의 경우가 그러하다. 마리아의 경우는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아들이 항암치료를 받는 중에도 아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나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버려지고 아버지에게서 방치된 고통 가운데 놓였다. 마리아와 안나는 이렇듯 자신이나 부모의 이혼을 통해 부모-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마리아와 안나의 경우는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양상은 동일하지만, 관계의 깨어짐이 가져온 상처는 서로 다른 정서를 만들고 있었다. 마리아에게는 자녀를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안나에게는 부모에게 버려진 고통과 거절감으로 상처의 정서가 형성되었다.

참여자들의 내면에는 유년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고통이 상처의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겪었던 유년시절의 상처의 기억을 찾아가고, 그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나아갔다. 부모-자녀 관계는 생존의 차원을 넘어 보다 실존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자들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겪은 상처와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내면 깊숙이 자리한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벤 매넨(van Manen, 1990)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음’ 혹은 ‘남겨졌다는 느낌’이 어떠한 의미의 체험인지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한다.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잠시 외출을 하는 상황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떠나는 상황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있음’을 체험한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와 떨어져있는 일상적인 상황도 ‘남겨졌다’는 느낌이나 ‘버림받음’의 느낌으로 체험될 수 있다.

벤 매년이 인용한 상황 중, 『나와 너』의 저자 부버(Buber, 1923)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는 유년시절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사건이 갖는 체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부버가 어릴 때 그의 부모는 이혼을 했고 부버의 어머니는 그를 떠났다. 부버는 네 살 때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웃집 소녀와 발코니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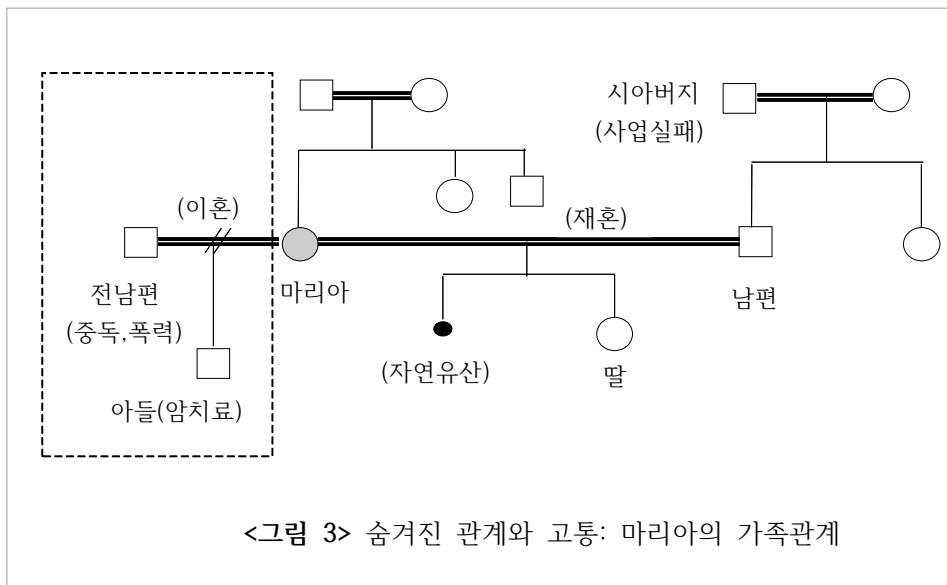
우리 둘은 난간 가까이에 서 있었다. 나는 나보다 나이가 위인 여자 친구에게 엄마에 관해 이야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지금도 그 소녀가 내게 해 준 말을 기억한다. ‘아냐, 네 엄마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 말없이 잠자코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소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 속에 남아 해마다 가슴속 더 깊이 자리를 잡아 갔다. 그러나 열 살쯤 이후부터 나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도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van Manen, 1990/1994: 117 재인용).

어머니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버는 이웃집 소녀와 나누었던 대화의 순간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확인했다. 그 이후로도 해마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기다림은 계속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버는 그 ‘기다림’을 ‘단념’해야 했다. 어린 자녀는 오랜 기다림과 단념을 반복하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관계의 깨어짐과 단절을 체험했다. 유년시절,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만나에게 이와 같은 상처를 발견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을 통해 자녀가 부모와 이별하는 경우, 이는 죽음을 통한 헤어짐과 관계의 상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상처를 만든다. 그것은 부모를 향한 기다림과 단념, 그리움과 원망의 감정이 이중적으로 교차하는 상처의 성격을 가진다. 이별을 통한 관계의 깨어짐은 타인을 향한 기약 없는 ‘기다림’과 그 기다림을 체념하는 ‘단념’ 속에서 상처를 형성한다. 보고 싶은 타인을 향한 ‘그리움’과 돌아오지 않는 타인을 향한 ‘원망’의 교차, 그것은 ‘홀로 남겨짐’과 ‘버림받음’의 정서를 형성하면서 존재에 추운 기억과 상처로 남게 된다.

한편 참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마리아의 이별은 전남편과의 관계의 깨어짐보다는, 보고 싶은 아들을 데려올 수 없는 어머니의 고통에 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리아는 아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과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단념'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했다. 이혼을 통한 관계의 깨어짐이 만든 '숨겨진 가족관계'는 마리아의 내면에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과 그리움이라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교차하도록 만들었다.

이혼한 부모는 두고 온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버리고 온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리움과 죄책감은 사회적 관계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숨겨진 마음 속 고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부모의 이혼이나 자신의 이혼을 통한 관계의 깨어짐은 가족구성원의 죽음과는 달리, 타자들에게 '숨겨진 가족관계'로 남아있었다. 또한 이혼을 통한 관계의 깨어짐은 타자들의 사회적 시선과 판단에 노출되어야 하는 위험을 수반하기에, 그 고통 또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존재자'로서 우리는 타자와 일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때 타자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프레임'에 속한 가족관계는 일상적인 대

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그러나 마리아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점선 안에 담겨있는 가족관계는 그녀가 타자와 일상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관계됨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절반의 가족관계를 숨기고 타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다. ‘드러난 관계’와 ‘숨겨진 관계’들이 공존하는 경우, 주체와 타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일어나기 어려웠다. 그녀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실재하며, 자기 자신을 타자 앞에서 숨기고 의식하도록 만들었다.

죽음으로 인한 관계의 상실과는 달리, 이혼과 같은 이별에서 비롯한 관계의 깨어짐은 이중적 고통을 감내하도록 했다. ‘관계의 단절’이라는 고통과 함께 ‘타자의 부정적인 판단의 시선’에 노출되는 위험 속에서, 그들의 고통은 더욱 숨겨진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통은 이혼한 부모를 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상처일 것이다. 안나의 경우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겪었던 버려짐의 상처를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마음 속 고통이 있었다. 이처럼 타자와 공유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은 존재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지며, 타자와 함께 있지만 여전히 홀로 있음을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의 정서를 만든다.

2) 거주와 불안정

참여자들의 삶에서 ‘거주(居住)’의 문제는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만큼이나 비중 있는 상처와 고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집’이라는 공간은 내밀한 가족관계가 살아 숨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체험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참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 참여자들 모두가 유년시절에 ‘거주의 불안정’을 겪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물리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관계의 불안정을 내포하는 체험이기도 하다. 실제로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거주’의 개념은 실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 참여자들에게서 부모와의 관계가 상실되거나 깨어지고 불안정해지는 체험은 생계의 곤란과 가난, 돌봄의 부재와 방치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거주의 불안정’은 존재자가 세계로부터 잠시 피해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감을 빼앗아가는 체험이었다.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안에 기본적인 먹거리와 돌봄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면, 존재자는 집 안에서도 불

안정을 느끼게 된다. 집 안에서조차 외부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다. 거주자의 불안정을 느낀 존재자는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주고 애를 쓰는 존재 방식을 갖게 된다. 내면의 방어벽을 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왔다.

(1) 돌봄의 부재와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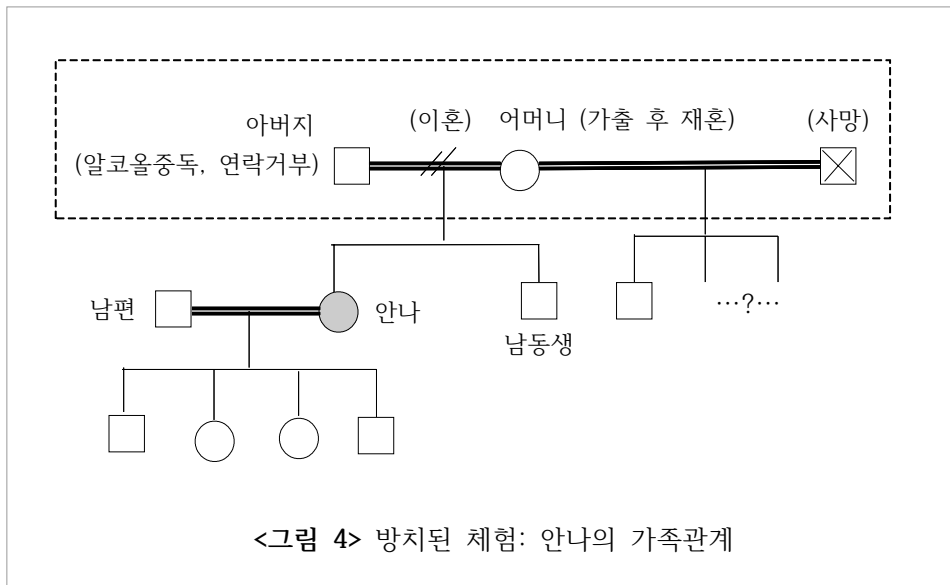
레비나스(Levinas, 1947b)에게 ‘거주’란 존재자의 피난처가 되는 곳이며 자기를 정립하는 삶의 형태 중 하나이다. 존재자는 거주를 통해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피난처를 삼는다. 그리고 친밀성의 공간 안에서 좀 더 깊은 자기의식을 형성한다(강영안, 2005). 그런 의미에서 ‘거주’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안에’ 살고 머무르는 것 이전에, ‘자신 안에’ 살고 머무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거주’라는 것은 존재자가 자신의 신체 안에서 자기를 정립하며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주체로서의 안정감을 얻는 ‘거주’라는 삶의 형태가 그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고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존재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주’라는 삶의 형태가 유년시절부터 외부로부터 침해받고 불안정해지는 체험을 했다. 다니엘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모자보호소에서 지내면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있었다. 마리아는 당구장을 운영하는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위층 집에서 혼자 지내며 손님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안나는 아버지의 폭력과 위협이 있는 집에 살다가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로 배고픔 속에 방치된 생활을 했다. 이렇듯 부모와의 관계가 상실되거나 깨어지면서 돌봄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 방치될 때, 거주자의 불안정은 ‘존재의 불안정과 결핍’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족으로서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안에 함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친밀한 돌봄이 있는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가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며 부모로부터 먹거리를 제공받고,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자녀는 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돌봄이 결여된 가족관계는 자녀에게 생존을 위협받는 상처와 고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참여자 안나의 가족관계를 표현한 가계도이다. 안나의 삶을 통해 가족관계의 깨어짐이 친밀한 돌봄의 부재와 방치라는 거주의 불안정으로, 그리고 생존과 실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볼 수 있다.



참여자 안나에게 부모로부터 버려진 상처는 홀로 남겨진 '실존적 고통'과 함께,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적 고통'이라는 이중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체험이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어머니가 어린 안나와 남동생을 버리고 떠난 후, 안나와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방치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돌봄을 맡아야 했던 아버지의 잦은 부재는 방치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안나는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의 고통을 견디며 처절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생존을 위협받는 '배고픔'은 신체로 전해지는 쓰라린 '고통'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무기력과 울음'으로, 타자의 밥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치'로 체험되었다. 신음과 울음으로 표현된 존재의 고통은 타자를 향해 그 고통을 제거해줄 것을 호소한다(손봉호, 1995). 그러나 도움의 부재는 홀로 고통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타자로부터 버려

진 현실을 직면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가족관계의 깨어짐은 생존과 실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참여자들의 존재에 고통스러운 상처와 추운 기억들로 각인되어 있었다. 가족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가난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참여자들의 유년시절은 돌봄의 부재와 방치로 이어졌다. 부모로부터 돌봄이 부재한 상황은 거주의 불안정과 함께 존재의 불안정과 결핍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 나아가 기본적인 먹거리의 부재 속에 방치된 경우는 뺏속 깊은 곳까지 고통이 각인되는 존재의 상처를 만들었다.

(2) 가난의 수치와 노동의 애씀

참여자들은 유년기나 청소년기 이후에도 거주의 불안정을 또 다시 체험하기도 했다. 마리아의 경우는 재혼 이후에도 집이 차압되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안나는 비가 새는 집에서 몇 년간 나가지 못한 채 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지냈다. 이러한 고난이 마리아와 안나의 마음을 더욱 힘겹게 했던 이유는 유년시절 겪었던 가난의 굴레가 다시 반복되는 것만 같은 고통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녀들에게 거주의 불안정은 ‘가난’과 그로 인한 ‘수치’를 떠오르게 하는 “지긋지긋한” 고통이었다.

참여자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가난으로 인해 겪었던 수치의 감정을 발견할 수 있다. 다니엘은 어머니의 수레를 함께 끌어주는 모습을 같은 반 친구에게 보였던 장면을 “추운 기억” 중 하나로 갖고 있었다. 마리아는 돈에 집착하는 어머니로 인해 그녀가 다쳐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상처의 응어리를 갖고 있었다. 안나의 경우는 생계를 위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남들처럼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의 정서로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에게 가난의 체험은 왜 수치의 감정이나 추운 기억을 유발하게 만들었을까? 모든 가난의 체험이 곧 수치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난이라는 물질적 곤란은 엄밀히 말하면 일차적으로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난이 곧 수치의 ‘감정’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또 다른 상황적 맥락이 개입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안나의 삶에서는 물질의 결핍이 곧 학력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또한 학력의 결핍이 곧 허드렛일을 해야 하는 노동의 수고와 자본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

타난다. 소유와 학력이 맞물리는 이중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학력’은 곧 안전한 ‘소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력이나 자본과 같은 ‘소유’가 존재자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는 신념체제는 소유 중심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가난’이라는 조건과 ‘수치’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기보다는 소유 중심의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감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소유 중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프롬(Erich Fromm, 1900~1980)이 익히 지적한 바 있다. 프롬은 인간이 생존하는 두 가지 양식을 ‘소유양식’과 ‘존재양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소유와 존재라는 두 양식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지향형”(Fromm, 1976/1988: 48)으로서, 세계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준다. 존재양식에서는 타자의 “진정한 본성, 진정한 실재”와의 만남을 추구하지만, 소유양식에 기초한 세계에서는 “소유와 점유의 관계”로 점철된다(Fromm, 1976/1988: 48). 소유양식에 기초한 ‘취득사회’의 구조 속에서 존재자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힘을 가진 주체로 자신을 확립하려 한다.

따라서 ‘수치’라는 감정은 소유양식이 생존의 한 양식으로 강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상대적으로 못가진 자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소유 지향의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 더 나아가 ‘주관적 빈곤’으로 인해라도 ‘수치’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결핍, 소유의 결핍은 곧 타자에게 동등한 힘을 가진 인간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체험을 만든다. 소유 중심 사회에서 가난은 타자로부터의 버려짐과 나약함, 상처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비대칭적인’ 경험 자체로부터 존재자는 ‘존재의 수치’를 체험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가난의 수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열심히 억척스럽게 일을 했다. 실제로 이들은 가족관계가 상실되거나 깨어지면서 생계를 책임지며 가장으로서의 짐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나눠져야 했다. 참여자들은 ‘노동의 애씀’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수치의 감정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노동의 애씀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노동의 애씀은 소유나 성취를 통해 주체성을 확인하고 존재의 수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존재자를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즉 쉼과 여유를 상실한 노동의 굴레에 갇히게 만들기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존재자는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동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존재와 삶의 무게

를 느끼게 된다. 노동의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 주체는 한 존재자의 자유 속에 함축되어 있는 존재의 무게를 다시 발견한다.”(Levinas, 1947b/1996: 74) 버거운 노동의 무게 아래에서 존재자는 오히려 주체의 소외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익명적인 존재의 상태에서 벗어나 존재 안에서 지배와 자유를 갖게 되면서, 비로소 존재자는 주체로서의 자유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자연과 먹거리 등 주변세계를 ‘향유(jouissance)’하면서 존재자는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맺고 세계를 이해해간다(Levinas, 1947b/1996: 65). 그러나 이러한 세계는 여전히 존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협적인 환경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존재자는 세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며, 세계의 위협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노력한다. 레비나스는 그러한 존재자의 노력이 바로 ‘거주’와 ‘노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본다.

참여자들은 유년시절 가족관계의 상실과 깨어짐을 겪으면서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잃고 말았다. 부모로부터 돌봄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해 그들의 거주는 외부의 위협에 노출된 채로 불안정해졌다. 가난의 수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던 노동을 통해 오히려 참여자들은 자신을 정립할 수 있는 힘과 여유마저 잃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삶의 굴레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로서 자신의 내면에 견고한 벽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내면에 벽을 쌓아갈수록 존재자는 자신 안에 갇히게 되며, 타자와의 소통은 어려워지게 된다. 소통의 어려움은 다시 자기 안에 갇히는 외로움과 고립으로 이어지면서, 참여자들은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주체-타자로서의 삶을 체험할 수 없었다.

벤 매넨은 공간성, 시간성, 신체성, 관계성이라는 네 개의 범주를 통해 생활세계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다. 이러한 범주는 “모든 인간 존재가 세계를 경험하는 실존적 근거에 속한다”(van Manen, 1990/1994: 139). 이와 같은 실존 범주는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인간의 근원적 체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각각의 범주는 독립적으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체험한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은 체험적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실존 범주였다. 또한 불안정한 거주를 통해 체험하는 공간과 신체의 불안정은 부모-자녀 관계의 결핍 및 물질적인 결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처럼 실존 범주 중 하나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의 존재는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치유적 대화는 우리의 존재를 불안정하게 만든 근원적인 실존 범주, 결핍되고 흔들린 실존 범주가 어떻게 상처의 근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상처의 발생적 연원을 찾아가는 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참여자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내면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며,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열어 보이는 용기 있는 소통의 과정이기도 했다. 타인과 함께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고 그 고통을 나눠지는 대화는 오랜 시간의 만남을 필요로 했다. 유년시절의 상처는 성인기의 체험과는 달리 의식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차츰 존재하기 위한 애쓰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안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타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존재자가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 타인과 더불어 소통하는 대화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내면의 치유’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며 이를 총체적인 삶의 스토리 속에서 재조명하는 대화의 과정과 성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대화가 교육에 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지 염두하며 다음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

손봉호(1995: 57)는 “고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통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키키(Scarry, 1985)는 고통은 “다른 어떤 현상보다 더 언어로 객관화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한다(손봉호, 1995: 63 재인용). 이처럼 상처의 고통은 존재자에게 주관적이고 사적이며 외롭게 체험될 뿐만 아니라, 언어로 객관화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을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러한 만남과 대화가 인간의 실존적 삶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앞에서는 참여자들의 내면에 형성된 상처의 근원에 대한 현상학적인 분석과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상처의 근원을 먼저 다룬 이유는,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는

존재자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상처의 근원을 함께 찾아가며, 내면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 자신과 관계를 맺은 타자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과 타자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었다. 다음에서는 타인과 함께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고 나누는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을 살펴보고, 이러한 대화의 과정이 자신과 타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지 고찰하였다.

1) 타인과의 관계 형성

앞서 나는 참여자들의 삶을 통해 존재자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상처의 근원을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은 유년시절부터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낯선 타자를 마주하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고투했다. 죽음, 이별, 가난, 고통과 같은 모습으로 참여자들의 삶에 침범한 낯선 타자는 그들의 존재와 삶을 깨뜨리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존재의 깨어짐과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타자로부터 주체의 내면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를 형성해갔다. 타자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생존적·실존적 몸부림과 애씀, 이를 통해 형성된 거칠고 방어적인 존재의 결은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되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신앙 안에서 타인과 맺게 된 ‘인격적 관계’는 자신의 내면을 열어 존재의 고통을 나누는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성을 초월하여 타인을 만나고 타인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1) 타인을 향한 지향적 관심

참여자들과의 만남에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은 타인을 향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에서 비롯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타인에 대해 느끼는 호감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나는 불안하고 버거워 보이는 마리아의 얼굴과 때때로 심각해 보이는 다니엘의 표정, 안나의 그늘진 낮빛을 보게

되었다. 그녀들의 얼굴을 통해, 나는 그녀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고민이 무엇일지 그 내면을 향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심이 담긴 얼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타인을 향한 일종의 ‘말 건넨’과도 같았다. 나는 그러한 타인의 ‘말 건넨’에 대해 ‘마음쓰임’과 ‘관심’으로 응답하게 되었다.

레비나스는 ‘얼굴’을 통해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를 그 자체로 드러낸다고 말한다. 존재자는 얼굴이라는 표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표현하며,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얼굴의 “벌거벗음”과 “자기 표현, 곧 말 건넨 옴은 얼굴이 타자로서 나에게 현상하고 나에게 소통 관계를 터옴을 뜻한다.”(강영안, 2005: 180) 실제로 타인의 얼굴을 통해 표현되는 표정과 시선 등은 타인에 대한 나의 관심과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얼굴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혹은 감추려하는 가장 표면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로 작용하고 있었다.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서 울동을 인도하다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죽상”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상반된 얼굴을 보면서 다니엘은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마리아의 얼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차츰 마리아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시아버지의 빛으로 속병을 앓고 있는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되는 대화의 계기가 되었다.

타인의 얼굴로 표현된 느낌이나 인상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주체가 타인을 향한 ‘무관심’ 속에 있을 때는 타인을 향한 지향성 자체가 결여된다. 그렇기에 무관심 속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이 불가능해진다. 그것은 일종의 ‘비지향적’ 체험으로서 대상과의 관계가 결여된 상태이다. 그러나 관심은 타인을 향한 ‘지향적’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한다. 조용환(2012c: 13)은 ‘관심’을 통해 생성되는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관심은 영어로 ‘interest’이다. 이는 사이를 뜻하는 ‘inter’와 존재를 뜻하는 ‘est’의 합성어이다. 즉 관심은 ‘존재와 존재의 사이’이다. 관심이 없으면 관계도 없다. 그러다가 관심이 생기면 비로소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관심은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 맺기이다.

조용환(2012c)은 관심을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 맺기”라고 말한다. 이때의 관심은 존재자와 타자 사이의 표면적 관계를 넘어선 존재적 차원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다양한 차원과 깊이로 체험될 수 있다. 의식의 전경

(前景)에 놓인 '지향적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의식의 배경(背景)으로 물러난 '비지향적 관심'도 있다.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의식의 배경으로 물러난 관심은 완전한 '무관심'이 아닌 '비지향적 관심'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배경에 존재하던 대상에 대한 비지향적 관심이 어느 순간 '촉발'(Affektion)을 통해 지향적으로 일깨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남인, 2004: 296-297).

시간과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타인은 사실상 주체의 완전한 무관심 속에 놓여 있기 불가능하다. 타인은 존재자가 관심을 주지 않더라도 존재자를 자극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알려온다. 실제로 인간은 항상 “자아를 자극하는 그 무엇과의 관계”(이남인, 2004: 296) 속에 놓여있으며, 그 무엇은 존재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타인은 얼굴로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오고 있다. 존재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생성됨으로 비로소 타인과 지향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처럼 존재자들은 서로를 향한 다양한 관심의 깊이 속에서 특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나는 그 중에서도 '존재를 향한 지향적 관심'이 가장 깊은 관심의 차원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다. 상처를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는 존재적 차원의 깊은 관심과 관계 맺음을 필요로 하였다.

(2) 타인의 얼굴과 돌봄의 관계

때로는 타인의 얼굴로 표현되는 '말 건네 옴'이 상호적인 대화의 차원을 넘어 나에게 윤리적으로 호소하고 명령하는 부르짖음으로 표현될 때가 있다(강영안, 2005). 나는 참여자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녀들이 얼굴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점차 그들의 수심 너머에 있는 존재의 고통에 주목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자신의 오래된 상처와 고통을 수심이 드리워진 얼굴로써 드러내고 호소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고아와 같이 외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다니엘은 종종 심각하고 염려에 둘러싸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교회에서 조차 외인과 같이 배척받았던 마리아는 가까운 이들에게도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방치된 상처를 안고 살아온 안나는 수심이 드리워진 창백한 얼굴로 보일 때가 많았다. 레비나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은 “배고프고 헐벗은 가운데, 사회적 불의 가운데 나에게 호소해오

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얼굴로(강영안, 2005: 181-182) 자신의 오래된 상처를 표현하고 있었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는 내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타인의 얼굴과 그를 향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타인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그들이 얼굴을 통해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타인의 상처 입은 존재의 고통을 발견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로부터 오는 윤리적 호소” 앞에서, 주체는 응답해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강영안, 2005: 182-183). 고아와 과부의 얼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타인은 생존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 이들은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거부되고 상처 입을 가능성에 노출된 채로 도움을 요청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고아와 과부의 얼굴로 호소하는 타인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일상적인 만남 속에 있던 참여자들의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책임과 무게를 느낄 때가 많았다. 때로는 타인을 향한 마음쓰임이 나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통해 느껴지는 막연한 고통에 함께 잡혀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나는 참여자들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들의 내면에 상처 입은 존재를 호소하는 타인의 얼굴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타인을 통해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된다. 고통 받는 타인의 얼굴은 누군가의 ‘돌봄’과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요청과 같다. 타인이 얼굴로써 표현하는 것이 신체적 고통이든 내면의 고통이든, 그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얼굴로, 시선과 외침으로 나타냄으로써, 그 고통을 덜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레비나스의 말처럼,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 호소를 통해 주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책임적 존재’로서 타인 앞에 세워진다(강영안, 2005: 185-186).

나의 경우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얼굴에 대한 관심과 그 호소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돌봄의 행위’를 통해 표현되었다. 관심과 돌봄의 관계를 통해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그녀들의 내면과 상처의 근원은 조금씩 어루만져질 수 있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쓰임과 돌봄의 책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의 대화는 존재의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갔다. 타인에게 또 다시 상처받거나 버림받지 않을 안전한 관계와 신뢰 속에서, 참여자들은 존재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열어 보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고립된 주체의 내면성으로부터 벗어나 타인과의 진실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대화 관계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는 돌봄의 행위를 통한 감성적, 정서적 차원의 교감이 대화 관계의 근원적인 측면을 형성하고 있다. 이때의 대화는 비언어적 차원의 감성적 공감과 정서적 돌봄을 포함하고 있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에서는 언어적 차원의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차원의 교감은 깊은 대화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들의 내면에는 부모-자녀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돌봄의 부재 상황이 상처의 근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봄의 관계를 통해 깨어진 실존 범주로 존재하던 '관계성'의 차원이 채워짐으로써, 참여자들은 안전함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형성할 수 있었다.

2) 상처에 대한 자각

타인의 내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타인의 상처 입은 존재의 고통은 나에게 막연한 느낌이나 분위기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타인의 존재로부터 오는 느낌이나 분위기는 마음의 답답함이나 무거움 같이 나의 신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막연한 양상에서나마 그들의 상처를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과 나는 아직 상처의 근원을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참여자들은 신체의 고통이나 물질적 고난, 신앙의 침체, 관계의 어려움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다. 상처의 근원에서 비롯된 존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상처의 고통이 자리한 의식의 심층과 체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대화가 필요했다.

(1) 막연하게 느껴지는 타인의 상처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상처는 망각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존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가벼운 어제의 일상이 망각되어 기억에서 사라질 수는 있지만, 큰 고통이나 상처의 체험은 표면적인 기억에서 망각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유년시절의 상처는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큰 고통이기 때문에, 존재의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

가 상처의 근원을 형성하면서 특정한 분위기와 정서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경우, 다니엘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상실감과 그리움이 외로움과 불안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었다. 안나의 경우도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방치된 고통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고투가 슬픔과 한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경우,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타자로부터 침해되었던 유년시절의 상처가 타자를 향한 원망과 방어적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서와 분위기는 때로는 그들을 사로잡아 조급함과 불안, 버거움과 절망의 분위기 속에 몰아넣고는 했다. 이처럼 분위기는 의식의 심층을 포함한 의식의 전체 흐름 속에서 존재자를 사로잡고 에워싸고 있는 그 무엇, 즉 존재함의 한 형태였다.

하이데거(Heidegger, 1927)는 현존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태를 ‘기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분잡혀 있음”이라고 표현한다. “기분잡혀 있음” 속에서 현존재는 그 자신이 실존해야 하는 존재로 떠맡겨진 채 놓여 있다. 기분은 우리가 “세계-내-존재”로서 존재론적으로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기초적인 실존 범주라고 할 수 있다(Heidegger, 1927/1998: 186-190).

한편 레비나스(Levinas, 1947a/2001: 32-42)는 권태나 무기력과 같은 경험의 예로 들면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존재 상태는 내용이나 명사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으로 존재한다. ‘권태’는 특정한 무엇에 대한 권태로움이기보다는 “존재 자체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존재함(exister)에 대한 거부의 현상이 실현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무기력’ 또한 무엇에 대한 무기력이 아닌 “행위에 대한 거부, 시작의 불가능성”으로서 “떠맡고 소유하고 전념하기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레비나스가 설명한 권태나 무기력이 존재자의 존재함 자체를 동사적으로 나타낸 표현인 것처럼, 하이데거의 “기분잡혀 있음”이라는 현상 또한 존재자를 사로잡고 있는 특정한 존재의 상태와 분위기를 동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셀러(Scheler, 1923)는 인간이 타인을 인식하는 다양한 감정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한 존재자의 감정을 다른 이가 함께 느끼게 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타인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비자의적이며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슬픔에 빠진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올 때, 나 또한 슬프고 우울한 기분에 빠지기도 한다. 셀러의 감정 현상은 존재의 분위기와 정서, 기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분이 존재

자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실제적인 느낌으로 전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분이나 정서, 분위기는 존재자 안에만 갇히지 않고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 존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존재의 분위기와 정서를 느낄 때가 많았다. 다니엘에게서 느껴지는 답답함과 염려, 마리아를 만날 때 느껴지는 미로와 같은 혼란스러움과 알 수 없는 마음의 벽, 안나에게서 느껴지는 무겁고 침체된 분위기를 통해 나는 그들의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느끼게 되었다. 기분이나 분위기는 존재자 안에 거하면서도 존재자의 신체를 통해 타인에게 표현되거나 발산되고 있었다. 존재자가 어떠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은 언어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의 존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기분이나 정서, 분위기는 존재의 근원적인 상처와 고통을 타인에게 막연하게나마 표현하는 존재자의 존재 방식이기도 했다. '막연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존재자의 분위기와 정서는 비록 명확하게 파악 가능한 영역은 아니지만 마치 '얼굴'과 같이 상처 입은 내면을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정서나 분위기가 타인의 존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며, 꿈이나 느낌, 혹은 기도를 하며 드는 단편적인 마음을 통해 막연한 양상으로 짐작할 뿐이었다. 참여자들과 나는 유년시절의 상처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비로소 이러한 분위기와 정서가 형성된 상처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었다.

(2) 정서와 분위기의 무의식적 지향성

막연하고 익명적으로 의식의 심층에 남아있는 유년시절의 체험과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자각할 수 있었을까? 특정한 기분 속에 사로잡혀 있던 존재 상태에서 그러한 기분을 형성하는 상처의 근원에 직면하게 된 상황을 우리는 교육학자 프레이리(Paulo Freire, 1921~1997)의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프레이리는 7년간 자신을 절망과 비애에 빠지게 했던 우울한 감정과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유년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걸어갔다.

나는 이따금씩 절망과 비애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 순간들은 너무나 끔찍해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절망과 비애에 사로잡히면 항상 적

어도 이삼일은 흥역을 앓았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거리에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예고도 없이 나를 엄습해 왔다. …(중략)… 그런 순간이 7년 동안이나 반복되었고 나는 그 중 3~4년을 그 이유를 찾아 헤맸다. …(중략)… 내 우울증은 의심할 여지없이 비, 진흙, 초록빛 등나무 숲, 그리고 어두운 하늘과 상관이 있었다. 이런 요소들은 각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중략)… 비가 내리던 레시페의 어느 날 오후, 나는 내 아동기를 찾고자하는 일념으로 잿빛 하늘의 자부아탕으로 향했다. …(중략)… 나는 내가 살던 집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1934년 10월 21일 오후 늦게 돌아가셨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어릴 때 축구를 즐기던 그 집 앞의 넓은 잔디밭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망고 나무와 그 푸른 잎을 다시 보았다. 언덕을 오르던 진흙투성이 내 발과 온통 젖은 내 몸을 다시 보았다. 나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나 자신과 아버지의 죽음, 망연자실한 어머니와 슬픔에 잠긴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중략)… 비 내리던 그 날 오후, 밝은 초록빛 땅 위를 흠뻑 적신 어두운 납빛 하늘 아래서, 나는 우울증의 패브릭을 발견하였다. 나는 드러난 현상과 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본질 사이의 다양한 연관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 ‘이유’를 분명히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 나는 내 고통의 고고학을 탐구하였던 것이다. 그 날 이후, 비와 초록빛 그리고 진흙이 어우러져서 수년간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우울증이 찾아오는 일은 다시는 없었다. 자부아탕을 다시 찾았던 그 날 오후, 나는 우울증을 땅에 묻고 왔다(Freire, 2000/2002: 41-45).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프레이리는 유년시절에 살던 집에 찾아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그의 존재에 밀려들어온 절망감을 발견했다. 아버지를 잃은 순간에 찾아온 절망과 상실, 그 고통의 기억은 프레이리도 모르게 존재의 저 깊숙한 곳으로 숨겨져 버렸다. 그러나 의식의 저편으로 밀려난 상실의 아픔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고통스럽게 하며 때때로 절망과 우울의 분위기로 그를 엄습해왔다. 이해할 수 없는 우울과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프레이리는 마치 땅 속 깊이 묻힌 유적을 발굴하듯이 유년시절의 기억의 층을 더듬어가다가 의식의 심층에 감춰진 고통의 근원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 경우, 고통에

서 벗어나는 데는 그 고통이 생겨난 패브릭을 아는 것으로 충분했다.”(Freire, 2000/2002: 46) 프레이리는 이 모든 과정을 “내 고통의 고고학”이라고 표현했다.

참여자 다니엘의 경우도 무엇인가를 붙잡고자 하는 불안과 강박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관계의 상실을 체험한 이후, “신기루 처럼 사라져버리는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었다. 나는 다니엘과의 만남에서 느껴졌던 답답한 마음에 대해 나누고 나의 유년시절의 아픔을 이야기함으로써, 다니엘이 지배받던 분위기와 상처의 근원 간의 관련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의식의 심층에 자리했던 상처를 다니엘이 자각하게 된 순간, 그녀는 자신을 둘러싸던 막연한 강박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후설은 그의 후기 현상학에서 기분이나 정서를 ‘무의식적인 지향성’의 한 형태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기분은 모든 현상하는 개별적 대상에 색조를, 그러나 통일적인 색조를, 하나의 통일적인 기쁨의 빛, 하나의 통일적인 어두운 슬픔의 색조를 부여하는 정서적 통일체이다.”(이남인, 2004: 309 재인용) 후설은 “사랑, 비굴함, 원한 등의 정서와 그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동기 지워진 행동방식”이 의식의 심층에 “무의식적 지향성”으로서 자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이남인, 2004: 310 재인용). “체험의 밑바닥에서 작동하고 있는 저 어두운 지향성의 심층”, 다시 말해 “근원질료적인 것”(이남인, 2004: 383)에 특정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무의식적 지향성이 놓여있다. 우리는 후설이 설명하는 ‘근원질료적인 것’을 ‘존재’로서 다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존재의 상처와 막연한 분위기가 서로 무의식적인 지향적 관련을 맺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프레이리와 참여자 다니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분과 분위기라는 것은 뚜렷하게 자각할 수는 없지만, 유년시절에 형성된 존재의 상처와 같이 막연한 형태로 결부되는 경우가 있다. 막연한 분위기와 정서의 형태로 표현되는 상처의 근원은 아직 의식과 대상, 노에시스(noesis)와 노에마(noema)의 상관관계가 불명료한 존재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프레이리나 다니엘의 경우, 막연한 분위기가 어떠한 대상을 향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분위기의 지향성이 향하고 있는 대상, 즉 고통의 근원을 발견함으로써, 그들은 존재를 사로잡던 막연한 분위기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막연한 분위기와 상처의 지향적 연관을 찾게 되었을 때, 존재자는 익명적으로 엄습하던 분위기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익명적인 분위기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존재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는 존재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연한 정서와 분위기가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상처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그 지향적 관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상처의 지향적 관련은 자기 성찰을 통해 존재자 스스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여정이다. 한편, 나와 참여자들의 만남에서처럼 타인과의 만남과 대화의 과정에서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상처의 근원을 조금 더 잘 조명하고 있는 타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에 직면하는 대화가 가능하다. 참여자들의 경우 신앙을 기반으로 한 만남이라는 특성상, 타인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신과 소통하는 대화의 과정 모두를 통해 상처의 근원을 발견해갔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타인의 신앙적 조력과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자각하고 그 앞에 직면하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뚝 수 있었다.

3) 상처의 고백과 응답

상처는 왜 고통 받는 이의 내면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표현되려는 것일까? 상처와 고통이 존재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차원을 넘어, 언어와 대화로써 타인에게 표현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처와 고통을 타인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손봉호(1995: 78)는 “고통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며, 철저히 사적이면서도 공적이 되려는 충동을 가진 독특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또한 고통은 언어를 거부하고 파괴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유와 언어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험”이라고 말한다. 고통은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누군가에게 표현되고자 하는 강력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고통을 호소하는 단순한 외침을 넘어선,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이해받고자 하는 ‘소통의 갈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의 갈망은 나의 고통을 아무와도 나눌 수 없다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넘어 존재자가 타인을 향해 다가서도록 촉구한다.

(1) 소통의 갈망과 머뭇거림

하이데거는 ‘현존재(Dasein)’의 본질을 ‘공존재(Mitsein)’로 설명하면서, 타인과

더불어 있는 현존재의 실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동존재(더불어 있음)는, 타인이 한사람도 현사실적으로 눈앞에 없고 지각되지 않을 때라도, 현존재를 실존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존재의 혼자 있음도 세계 안에 더불어 있음인 것이다. 타인은 오직 더불어 있음 안에서만 그리고 더불어 있음에 대해서만 **결여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혼자 있음은 더불어 있음의 결여적 양태의 하나이며, 그 가능성은 더불어 있음에 대한 증명이다(Heidegger, 1927/1998: 168).

일상적인 함께 있음의 상태에서 깊은 차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존재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더불어' 놓여 있다. 참여자들에게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이 상처의 근원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현존재의 실존에 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있음'이 결여된 '혼자 있음'의 상태가 지속될수록 타인과 만나고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은 주체 안에서 깊어지며, 주체를 자신의 '바깥에' 서 있도록 촉구한다.

타인과 나눌 수 없었던 말 못할 상처의 고통은 참여자들을 자신의 내면 안에 더욱 고립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고립감과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참여자들의 마음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더욱 깊어졌다. 참여자들은 자기의 내면성을 견고히 하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을 갈망하는 '이중의 갈망' 속에 놓여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밖에 섬으로써 비로소 다른 주체와 공존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기 보호'와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내적 갈등과 갈망 속에서, 마음속 깊은 상처를 나누기 위해 자신의 밖으로 나와 타인에게로 한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열었다가 다시 감추기를 반복하며, 내면의 상처를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가능성과 안전함을 가늠해보려 했다. 그것은 타인 앞에서의 '머뭇거림'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머뭇거림의 양상은 참여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다니엘의 경우는 타인들과 생각이나 마음을 나누는 일에 비교적 적극적이고 소탈한 편이었다. 다니엘은 친구 에스더와 내가 함께 있던 모임에서 자신의 유년시절의 아픔을 이야기하였다. 반면 마리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좋고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조차 민감한 편이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의 '편견어린 시선'에 자주 노출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방어적인 마음의 벽

을 형성하게 되었다. 마리아는 ‘그녀의 집 안’ 거실에 세워진 ‘텐트 안’에서, 나와 단 둘이 들어갈 수 있는 내밀한 공간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깊은 대화를 위한 ‘이중의 보호막’이 필요했던 것이다. 안나의 경우는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녀의 마음이 충분히 준비된 후에 타인에게 상처를 보여줄 수 있었다. 안나는 유년시절부터 성인기까지 부모로부터 버려진 상처를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으며 그 고통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타인에게 쉽게 보일 수 없었다.

이처럼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전함과 신뢰를 느끼는 정도는 참여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 나와 관계에서 참여자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을 보여주게 되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기까지 존재자가 보여주는 이 ‘머뭇거림’의 시간은 그 자체로서 타인에게 존중받아야 할 시간이었다. 타인의 ‘편견 없는 시선’과 ‘기다림’ 속에서 존재자는 관계의 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열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처의 고백: 존재의 열어 보임

누군가에게 내밀한 상처를 노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약함을 보여줌으로써 타인으로부터 공감과 수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또 다시 거부되고 버림받을 수 있는 상처 입음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열어 깊은 상처를 노출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이 아닌, ‘최대한의 안전’이 보장된 신뢰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치유적 대화는 신뢰하는 타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열어 보이는 ‘고백적 언어’를 통해 무르익었다. 치유적 대화에서 고백적 언어는 자신의 상처 입은 존재를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 열어 보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사랑을 고백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고백’이라는 말은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마음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타인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면담을 통해 나와 대화를 떠올리며 “그때 (지혜에게) 고백했던 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나는 이 “고백”이라는 표현이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다.

참여자들이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열어 ‘고백’하게 된 이 대화의 순간은, 존재자가 사회적 형식¹⁵⁾을 벗고 자기성에서 나아온 순간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열어 보여준 사건이었다. 상처의 근원이 있는 그곳에는 상실과 깨어짐, 불안정과 연약함, 어두움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상처 입은 존재의 모습이 살아있는 그곳을, 참여자들은 고백의 언어를 통해 타인에게 진솔하게 나누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에 있는 상처와 약함을 열어 보임으로써, 자신의 내면성을 견고히 하던 방식에서 차츰 나아와 자신과 타인 ‘사이’에 설 수 있었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의 한 측면은 바로 이러한 ‘고백적 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고백적 대화’는 존재자가 자신의 밖으로 나아와 타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감춰둔 진심을 나누는 ‘진실한 소통의 언어’였다. 이처럼 주체가 자신의 고립을 깨뜨리고 존재를 열어 보이며, 자신의 밖으로 나아와 주체와 타자 ‘사이’에 서는 것, 그것은 자신이 타자로부터 부정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소통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존재자가 자기성을 뚫고, 나와 너 사이에 마주 서는 존재의 체험은(Buber, 1923), 인격과 인격 사이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함께 있음(Mitsein)’이라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근원적인 관계는 함께(mit)라는 전치사를 통해 묘사될 수 없으며”, 타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face à face) 관계”가 더 근원적이라고 말한다(Levinas, 1947b/1996: 31).

자신의 바깥으로 나아와 타인과 ‘근원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차원의 관계 맺음을 필요로 한다. 이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만남을 넘어선 심층적인 관계의 깊이가 요구되는 만남이다. 존재적 차원의 깊은 관계 맺음을 기반으로, 자신의 내밀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치유적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너’에 대한 ‘나’의 책임과 사랑이 있는 ‘기다림’ 속에서, 타인은 자신을 열어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자기 밖으로 나아올 수 있다.

15) 레비나스(Levinas, 1947a)는 세계 속에서 만나는 타인을 “옷을 입은 존재들”이라고 표현한다. 세계 속에서 “인간 존재는 하나의 형식을 입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는 보편성, 형식성, 전형성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존재의 “벌거벗음”을 감추는 형식이라는 옷을 입은 만남 속에서, 존재자들은 자기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자아에 머무를 수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3) 존재를 기울인 응답

부버(Buber, 1923)가 말했듯이, 타인과의 접촉을 갈망하며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는 대화는 타인을 ‘너’라는 존재와 인격으로서 마주하는 순간이다. 타인을 향한 존재의 열어 보임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에 들어서는 순간이며, 사회적 형식을 넘어 ‘나와 너’의 질적인 관계와 만남이 무르익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는 대화의 순간에 듣는 이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존재로서 만나는 대화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백하는 이’와 더불어 ‘응답하는 이’가 존재해야 한다. 나는 상처를 고백하는 대화의 순간에, 참여자들의 존재에 ‘응답하는 이’로서 마주하고 있었다.

타인의 고백을 향한 나의 응답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언어적 측면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두 눈의 마주침과 진지한 표정, 기다림의 침묵, 경청과 공감을 표현하는 끄덕임, 함께 아픔을 느끼는 눈물과 안아줌의 몸짓 등으로 표현되는 비언어적 측면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대화라는 구분이나 경계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마주 대하고 있는 ‘나의 존재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자신의 상처를 넘어 진정한 너를 만나고자 하는 타인의 갈망에, 나는 듣는 이로서 존재를 기울여 응답하고자 하였다.

상처를 고백하는 타인은 ‘나’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다시 거부되고 상처 입을 수 있는 ‘너’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고아와 과부의 모습을 한 연약하고 깨어진 ‘너’로 다가와 자신의 상처를 열어보였다. ‘나’는 상처를 고백하는 ‘너’의 이야기에 단순히 공감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상처의 근원을 열어 보이는 고백의 순간에 타인은 나와 대등한 관계 속에 마주 서 있는 ‘너’(Buber, 1923)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상처의 아픔을 호소하며, 나의 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비대칭적으로 서 있는 ‘타인의 얼굴’(Levinas, 1947b)로 다가왔다. 나와 너의 비대칭성 속에서, 나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존재의 기울임으로 응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타인의 고백이 자신의 깊은 상처의 근원을 향해 있을 때, ‘고백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에서 비대칭적인 구도로 전환되는 것을 체험하였다. 상처를 고백하는 이는 또 다시 상처 입을 가능성을 안고서도 자신의 밖으로 나아가 타인 앞에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때 듣는 이는 고백하는 이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가운데, 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고통의 호소에 응답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응답은 자신의 주체성을 깨고 자신을 초월하여 타인의 존재로 향하고자 하는 타인 지향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치유적 대화에서 상처를 고백하는 이를 향해 ‘존재를 기울인 응답’은 부버가 설명하는 ‘존재의 기울임’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부버(Buber, 1923)는 ‘너’를 만나는 것은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말해질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 그는 “나의 존재를 기울인 행위”를 통해서 ‘너’를 전체로서 만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부버는 주체와 타자의 ‘상호적인’ 관계와 사이에 주목하여 ‘나’와 ‘너’의 만남을 이해하고 있다.

반면 레비나스는 “타인을 위해서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고자 하는 ‘대속적 주체’ 혹은 ‘윤리적 주체’의 모습을 제안한다(강영안, 2005: chap. 5). 고아와 과부의 얼굴로 호소하는 타인을 상호적이고 대등한 ‘너’가 아닌, 나의 책임을 필요로 하는 고통 받는 ‘너’의 얼굴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상처 입은 ‘너’에게 응답하는 ‘나’는 타인에게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비대칭적인 구도 속에서,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온 존재를 기울여 응답하고자 한다. 상처를 고백하는 치유적 대화의 순간에는 상호적이고 대등한 나와 너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나와 너의 관계로 전환되면서 관계의 무게중심이 타인에게로 전환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과의 대화에서 ‘존재를 기울인 응답’의 행위는 ‘공감적 경청’의 태도로 표현되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는 자아중심적인 방향을 초월하여 타인을 향하는 지향성을 가졌다. 상처 입은 타인의 고백을 듣는 ‘공감적 경청’의 자세는 타인에게로 나의 존재를 열어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짊어지고자 하는 ‘공감적’ 행위로 나타났다.

셸러(Scheler, 1923)에 따르면, 공감(sympathie)¹⁶⁾은 ‘함께 기뻐함’이나 ‘함께 슬퍼함’과 같이 다른 자아를 체험하는 현상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공감은 자아투사적인 감정이었으나 타자와의 동일시와는 구분된다.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하는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숙고하는 것은, 오히려 공감의 본질적인 성격을 말해주지 못한다. 공감은 본래 타인이 겪는 고통이나 기쁨을 함께

16) 셸러가 말하는 “sympathie”는 ‘공감(共感)’ 또는 ‘동감(同感)’으로 번역되고 있다. 조정옥(2006) 번역본에는 ‘동감’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나는 주체와 타자 사이의 감정의 공유와 참여라는 점을 강조하여 ‘공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고통스러워하거나 함께 기뻐하는 타인 지향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감은 “타인의 존재를 지향”하며, 동시에 “타인의 개인적으로 유일한 고통(또는 기쁨)을 지향”함으로써 자아를 넘어서는 감정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Scheler, 1923/2006: 99-105). 치유적 대화에서 이뤄진 ‘공감적 경청’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Scheler, 1923),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고자 존재를 기울이는 행위였다.

4) 삶에 대한 이해와 존재의 회복

자신의 상처 난 존재를 열어 보이는 고백적 대화와 상처를 고백하는 이에게 온 존재를 기울인 응답 속에서 뜻하지 않은 치유의 결실이 맺어졌다. 이러한 ‘치유’의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참여자들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존재의 모순을 견뎌내는 내적인 힘과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깨어진 실존 범주가 회복되는 실제적인 변화 속에서 내면의 치유가 일어남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 이별, 예기치 않은 고난과 같은 문제들과 그로 인해 생긴 유년시절의 근원적 상처는 대화를 통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었을까?

(1) 존재의 모순을 견뎌내는 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 혼란과 고통을 느낀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다른 어느 느낌이나 경험보다 더 그 의미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사실이다.”(손봉호, 1995: 78) ‘살아 있음’ 자체는 죽음과 고통을 함께 떠안고 있는 모순적인 사태로서, 존재자에게 그 의미를 물어오며 존재자의 살아 있음을 괴롭히기도 한다.

하이데거(Heidegger, 1927)는 존재자가 존재물음을 던지며 자신의 존재함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을 현존재의 실존으로 본다. 현존재의 실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타인을 포함한 타자는 가족의 죽음이나 헤어짐, 질병이나 물질적 고난과 같이 명확하게 그 의미

를 알 수 없는 타자로 다가와 존재자의 존재와 삶에 상처를 입힌다. 타자와의 대립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첨예화된 상태, 그리고 “내가 나의 타자와 대립하면서 곧 나 자신과 대립해 있는”(김준수, 2012: 325) 이중 부정의 상태가 바로 헤겔(Georg Hegel, 1770~1831)이 말하는 ‘모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죽음이나 질병의 위협과 같이 타자가 존재자를 강하게 부정하는 강도로 마주 서 있을 때, 존재자는 타자를 긍정할 수도, 자신을 긍정할 수도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모순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존재자는 점점 자신의 설 곳을 잃어 간다. 이러한 힘겨움은 때로는 침체나 우울, 더 나아가 자살의 충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마리아의 경우,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감당할 수 없는 빛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빛은 가난이라는 그녀의 유년시절을 떠오르게 했다. 가난과 방치된 유년시절의 고통이 마리아에게는 견딜 수 없는 타자로서 체험되었기에, 그녀는 이러한 삶의 굴레를 끝내려는 충동으로 자살을 결심했던 것이다. 안나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방치된 고통을 생존을 위한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성인기까지 계속되는 고난을 겪으면서 타자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과 애씀이 무력화되는 체험이 축적되었고, 안나는 점점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다니엘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타자를 통해 관계의 상실과 아픔을 체험하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다시 이을 수 없는 존재의 거리감을 느끼며 외로움과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존재자의 일상성을 깨뜨리는 타자의 엄습은 의미의 깨어짐과 혼란 속에서 존재의 모순을 일으킨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처의 고통 속에서, 존재자는 부정의 긴장과 상처로 아파하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기도 한다. 헤겔은 모순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을 재생산하는 것은 자기 안의 모순을 견뎌내며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생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김준수, 2012).

실제로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에 엄습한 타자를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치유적 대화는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존재자가 존재와 삶의 모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는 인격적인 격려와 위로의 대화이기도 했다. 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죽음과 삶, 절망과 소망, 결핍과 풍성함을 오고가는, 모순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두 차원을 이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밝은 빛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2) 삶에 대한 재해석

상처가 제거되거나 존재 조건이 변화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여자들은 존재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치유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 참여자들과 깊은 대화를 마친 후, 나는 참여자들에게 공통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상처를 고백하며 지난 삶을 구술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의미 있는 전체로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이라는 타자의 의미를 깨달아가며, 막연하게 밀려오던 상처의 아픔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감성적·정서적 차원의 돌봄의 행위일뿐만 아니라, ‘해석’과 ‘자유’라는 실천적인 두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 치유적 대화는 모순적으로 다가온 타자를 자신의 존재와 삶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조명하는 해석의 과정이기도 했다. 생애에 대한 구술을 통해 존재자는 타자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존재와 삶의 모순을 견뎌낼 수 있는 해석적 힘을 갖게 되면서 다시금 생의 의지를 일으킬 수 있었다.

다니엘은 지나온 성장과정 전체를 의미 있는 연결 속에서 돌아보며, 자신이 자각할 수 없었던 “내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마리아에게 치유적 대화는 “작은 생각부터 큰 생각까지” 그녀의 닫혀 있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준” 만남과 대화이기도 했다. 안나는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구술하면서 조각난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이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는 지나온 “모든 상황들을 연결해”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해 가는 손길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존재자는 존재의 모순을 떠안고 실존하면서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모순적인 삶의 조각들을 총체적인 의미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존재론적 이해와 해석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의미 없이 밀려오던 존재의 고통은 덜어지고 치유될 수 있었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는 모순적으로 엄습하는 상처나 고통과 같은 타자의 의미를 자신의 총체적인 삶의 스토리 속에서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었다. 대화의 과정을 통해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은 타자의 지배로부터 한걸음 떨어져, 자기를 새로이 정립할 수

있는 해석적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상처의 근원이 존재의 어두운 측면을 형성하며 익명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대화의 과정을 통해 의식의 심층에 가라앉아 있던 상처의 체험을 인식의 빛 가운데서 재조명할 수 있었다. 상처의 재조명을 통해 존재자는 상처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점차 익명적인 존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처럼 상처로부터의 실존적 자유는 대화를 통해 “현실을 적극적으로 직면하는 가운데”(조용환, 2008a) 이뤄졌다. ‘상처로부터의 자유’는 타자를 부정하면서 타자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체의 정립과는 구분되었다. 자유는 오히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자신을 ‘주체-타자’(조용환, 2012d)로서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주체-타자’는 자신의 존재와 삶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론적 해석의 힘을 가진 존재자라고 볼 수 있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보며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심화해 가면서, 참여자들은 깨어졌던 자신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는 해석적 힘을 기를 수 있었다.

(3) 깨어진 시간과 관계의 회복

참여자들은 타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정립함으로써, 그들의 삶에서 흔들리고 깨어졌던 실존 범주들을 점차 균형적으로 회복해 갔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삶에서는 깨어진 시간과 관계의 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앞서 상처의 근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이라는 네 개의 실존 범주가 상호 관련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존 범주 중 하나의 기반이 흔들리고 깨어질 때, 우리의 존재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임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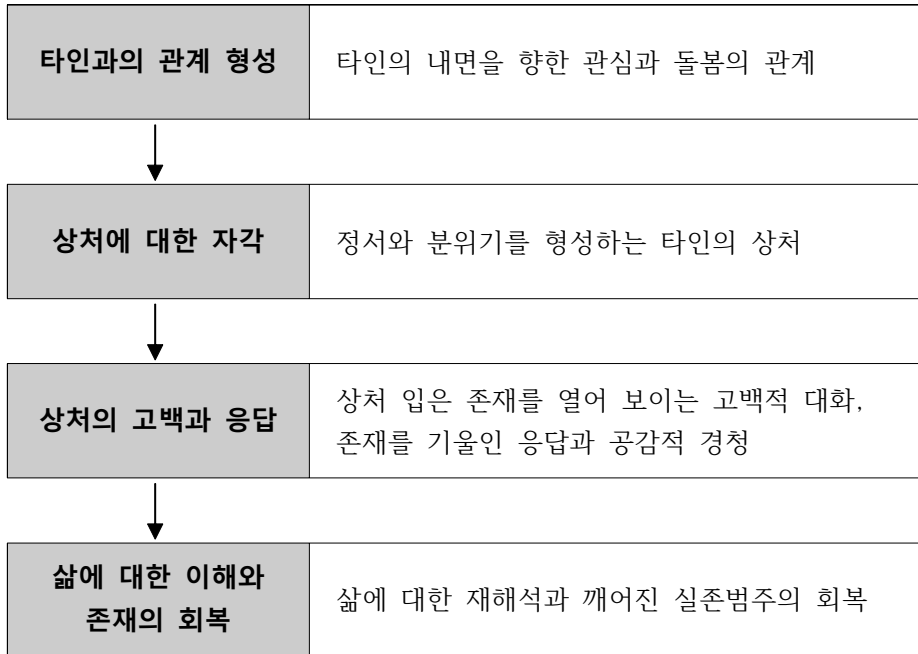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유년시절의 체험은 참여자들의 존재에 깊은 상처를 만들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녀들의 현재가 과거의 체험에 속박되도록 만들었다. 과거에 속박된 현재는 “자신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강영안, 2005: 101)를 상실한 채, 그들의 삶이 혼란과 절망 속에서 머물고 정체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서, 과거에 속박되었던 ‘시간’은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현재’로서 되살아났다. ‘현재의 회복’을 통해 과거의 상처는 이제 존재자 안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가지며, 소망스러운 미래로 나아 갈 동력으로서 그 의미를 재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의 삶에서 “과거와 미래가 살아있는 현재”(조용환, 2012b: 27), 즉 깨어진 시간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시간의 회복은 타자와의 관계의 회복과 떼어 수 없으며, 관계의 회복이 시간의 회복을 이뤘가는 계기와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다니엘은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유년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가는 과정을 통해 “풍성하고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깨닫게 되었다. 마리아는 타인과의 “참다운 교제”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 “엄마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응어리진 관계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안나는 메말라 있던 그녀의 마음에 타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닿음으로, 침체된 신앙으로부터 자신을 일으킬 수 있었다. 부모로부터 무관심하게 버려졌던 그녀의 지난 삶도 그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닌 타인을 대신하여 짊어진 삶의 무게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후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가 실제로 회복됨으로써 상처의 아픔이 덜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부버(Buber, 1923)는 ‘관계’의 세계가 세워지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으로, 시간과 공간은 ‘그것’이라는 경험의 세계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나의 연구에서는 관계의 회복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 범주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하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현재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체험으로 재해석하게 되었다. 상처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인격적인 대화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시 세워가도록 도왔다. 결핍되고 깨어진 불안정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내가 아니라, 채워지고 만족된 안정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대화의 과정을 통해 주체-타자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자기 정립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치유적 대화는 바로 깨어지고 결핍된 실존 범주에 안정적인 의미의 기반을 놓는 회복의 과정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

관심을 갖고 타인을 의식하는 순간, 존재자는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관심은 타인을 향한 지향적 의식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체를 통해 타인과 다양한 깊이의 관심과 지향적 의식을 형성하며 관계를 맺는다. 참여자들과의 만남에서 체험한 타인을 향한 마음쓰임은 바로 타인의 얼굴에 대한 '지향적 관심'으로부터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을 향한 첫인상이나 간단한 대화를 나눔으로 존재자는 타인을 향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타인을 향한 관심은 '지향적 관심'으로, 더 나아가 '내면을 향한 지향적 관심'으로 나아간다. 타인의 내면을 향한 관심은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와 고통에 주목하게 하였으며,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쓰임과 책임은 돌봄의 행위를 통해 표현되었다.

참여자들의 내면에 있던 존재의 상처는 그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의식의 심층에서 특정한 분위기와 정서를 형성하고 있었다. 분위기와 정서는 명확하게 자각할 수 없는 형태였으며, 의식의 저 밑에 자리한 상처의 근원과 무의식적 지향성을 갖고 연결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은 어두운 익명성으로 존재하던 분위기의 근원을 자각함으로써, 막연하게 밀려오던 분위기의 지배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유년시절의 상처를 찾아가는 대화를 통해 상처의 근원과 분위기의 지향적 연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머뭇거림 속에서도, 내면에 숨겨두었던 상처의 근원을 누군가와 나누기를 갈망하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처 입을 존재를 열어 고백하였다. 상처 난 존재와 삶을 열어 보이는 고백적 대화 앞에서, 듣는 이는 존재를 기울여 타인을 향해 응답하고자 하였다. 치유적 대화는 이러한 상처의 고백과 존재를 기울인 응답 속에서 만남의 절정을 향해 갔다.

치유적 대화에서 응답의 행위를 형성하고 있는 ‘공감적 경청’은 타인을 향한 사랑에 의존하고 있다. 치유적 대화에서는 상처를 고백하는 이의 머뭇거림을 존중하며, 타인이 자신의 밖으로 나아와 그의 존재를 열어 보이는 고백의 순간을 기다린다. 이러한 기다림은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사랑에 의존한 공감적 경청’은 상처를 고백하는 이를 향해 존재를 기울여 응답하고자 하는 대화의 행위가 되었다. 이러한 대화는 오직 “사랑에 의존”할 때 타인의 깊은 존재의 영역에까지 닿을 수 있었다(Scheler, 1923). 사랑과 공감과 경청은 응답하는 이의 존재 안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응답의 태도를 이루면서, 타인의 상처 입을 존재를 향해 나아가도록 했다.

상처의 근원을 치유하는 대화는 단순히 상처를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대화를 통해 이뤄졌다. 상처를 고백하는 이는 상처 난 존재를 열어 보이고 지나온 삶에 대해 총체적으로 구술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과 존재에 관한 의미를 찾아갔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은 단순히 상처의 조건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스토리 속에서 상처라는 타자를 의미 있게 재해석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존재론적 해석’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의미를 알 수 없이 엄습해 왔던 상처라는 ‘타자’를 삶의 의미 있는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는 타인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과 대화를 통해 상처의 근원과 삶을 이해하는 존재론적 해석의 힘을 기름으로써, 상처의 막연한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치유의 과정을 담고 있었다.

V. 치유적 대화의 교육학적 의미

제3장에서는 참여자들의 생애의 맥락 안에서 그들과의 만남이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깊은 대화로 발전하게 된 양상에 대해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나는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를 되도록 두껍고 생생하게 기술함으로써, 대화 체험의 맥락과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대화의 과정을 ‘치유적 대화’로 잠정적으로 개념화하면서, 대화의 과정에 담긴 현상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상처의 근원과 이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대화의 과정이 어떠한 의미와 성격을 갖는지 분석하기 위해, 현상학의 이론적 개념을 활용하였다.

대화 체험에 대한 기술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치유적 대화 체험을 교육의 관심으로 재조명하였다. 대화 체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대화 체험을 교육의 관심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교육’으로의 태도 변화를 수행하면서, 현실태 속에서 질적으로 존재하던 대화 체험을 교육의 눈으로 다시 포착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는 치유와 대화, 교육의 내적 관련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치유적 대화의 존재론적 토대가 교육적 관계와 대화, 그리고 교육적 인간 형성에 어떠한 의미와 시사를 줄 수 있을지 탐구하였다.

1. 교육과 치유적 대화

대화 체험을 교육의 눈으로 조명하기에 앞서, 나는 먼저 기존에 논의된 교육의 개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치유적 대화와 교육의 관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잠정적인’ 관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대화 체험을 통해 발견한 치유적 대화의 다섯 가지 속성을 정리하고, 각 속성들이 교육의 속성과 어떠한 내적 관련이 있는지 탐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면을 향한 깊은 대화를 통해 구현되는 대화적 관계

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한 대화적 관계가 교육적 만남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1)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

삶은 다양한 ‘형식’들이 만나고 교차하는 장이다. 여기에서 “형식(形式, form)은 삶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 목적, 초점, 관심 또는 무게중심을 의미한다.”(조용환 외, 2006: 5) 따라서 어떠한 형식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라질 수 있다. 교육 또한 하나의 “삶의 형식(form of life)”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삶의 형식과 구분되는 나름의 내적 본질을 갖고 있다(조용환, 1997; 조용환 외, 2006).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이 여타의 삶의 형식과 구분되는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조용환(2006: 7)은 교육이 다른 “삶의 형식들을 반성하여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일종의 메타적인 삶의 형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교육의 개념을 부분적이고 종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자율적인 틀로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교육은 여타의 삶의 형식과 역동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상대적인 자율성과 독특성을 유지한다. ‘교육’이라는 형식을 통해 삶을 고찰한다는 것, 그리고 삶을 통해 ‘교육’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삶의 다양한 사태들을 ‘교육’의 내적 본질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실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1) 생활세계와 교육

교육 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생활세계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을까? 교육으로 명시되지 않은 생활세계의 체험을 교육의 눈으로 재조명하는 과정은 교육적 해석과 실천을 구현하는 한 형태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삶을 구성하는 총체적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한승희, 2004: 30) 생활세계의 다양한 체험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다채로운 체험들을 교육의 본질적 측면으로서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가? 참여자들과 나의 대화 체험은

교육의 눈으로 볼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가르침과 배움의 형태, 그리고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한 모습은 각 시대나 사회마다 독특한 문화적 형식을 입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내적 본질을 탐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나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고 정형화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 실현되는 교육의 모습은 교육의 본질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학교와 같이 제도화된 교육의 형태가 교육의 개념을 정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생활세계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교육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아닐까?

근대사회를 대표하는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 실현되는 교육의 모습은 생활세계 속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갖게 되었다. 근대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형태는 그 내용이나 장소, 시간 의식 등이 산업화의 요구에 맞춰져 있었으며, 생활세계와 동떨어진 제도적 틀 속에서 규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도화된 교육이 가족이나 친족, 마을 공동체 등 생활세계 속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대체하면서, 교육에 대한 이해는 점차 변화해 갔다. 근대의 학교에서 이뤄진 교육의 형태를 교육적 시간, 공간, 관계, 활동으로 정형화하게 되면서, 오히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적인 탐색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개념이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은 교육학의 이론적 영역과 학교 현장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판이다. 개토(John Gatto, 1992)는 국가가 독점하는 강요된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제와 재생산이 이뤄지고, 교육 활동에 대한 개인의 소외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는 학교 조직을 통해 틀 짓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을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삶 속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제안한다.

서덕희(2006)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 밖에서 생성되는 삶의 형식으로서 교육”이 어떠한 모습을 지닐 수 있는지 모색하며, 홈스쿨링의 교육적 시간, 공간, 관계,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다. 학교 안에 틀 지워진 “시간과 공간, 관계와 활동의 경계들을 허물고 새로운 체험 형식을 배치해가면서”(서덕희, 2006: 230), 홈스쿨링을 실천하는 이들은 교육과 삶을 주체 안에 통합하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학교태’를 교육 논의의 중심에 두는 연구들을 넘어, 생활세계 및 제도 밖 현장에 기반을 둔 연구를 통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가능하다.

더불어 교육 논의에 대한 외연을 생활세계가 펼쳐지는 구체적인 삶으로 확장함으로써, 그동안 주목하지 못한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질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 및 무형식교육의 장을 포괄함으로써 교육이 종합적으로 인간 경험의 형성과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승희, 2004: 35)할 수 있다.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념형과 현실태를 부단히 오가며”(조용환, 2012a: 8), 생활세계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해석과 실천의 과정 모두가 요구된다.

(2) 교육의 내적 본질

교육의 본질에 대한 탐색을 ‘학교태’ 중심이 아닌 ‘생활세계’로 확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구성하는 내적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생활세계의 체험을 교육으로 개념화하거나 혹은 그 안에 담긴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교육의 내적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수와 학습의 상호작용이 없이 학습만 존재하는 것을 교육적 사태로 부를 수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다. 또한 내적 본질에 충실한 교육의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지향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가치 검토가 함께 수반된다.

조용환(1997)은 교육을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 형성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인간 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물음이 담겨있다. 교육의 형태, 가르침과 배움의 양상, 바람직한 인간형에 대한 논의는 각 시대나 사회,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와 학습이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공존해야”(조용환, 1997: 38)함을 알 수 있다. 한승희(2004)는 “가르침과 배움의 짝 활동”을, 장상호(1994)는 “상구(上求)와 하화(下化)의 과정”을, 교육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르침과 배움을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교육을 살펴보면, 양자를 반드시 명확하게 구별되는 활동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활동에서 교수자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에, 학습자는 배우는 자로서의 역할에 꼭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주체와 타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 무엇인가를 늘 배우고 있다. 가르침과 배움을 명확하게 어떠한 존재자의 역

할에 속한 것으로 구분하는 교육의 개념은 제도화된 ‘형식교육’에 갇힌 것일 수 있다. ‘형식교육’과 구분되는 생활세계의 다양한 체험 속에서 교육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는 특히 삶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상호 학습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학습의 과정은 ‘명시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활동은 아니지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교육의 내적 본질을 구현하고 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 암묵적이고 비형식적인 형태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을 통해 다시 포착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르침과 배움의 활동’ 혹은 ‘상호 배움의 활동’이라는 형식적인 측면 외에도, 교육의 본질을 구성하는 내적인 요소들은 무엇일까? 한송희(2004)는 아무리 복잡하고 체계적인 경험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교육은 생각의 구조를 동일하게 주조해 내는 일과 엄밀히 구분되는 활동이라고 말한다. 만약 교육을 형식적인 정의에 기초하여 이해한다면, 교육이 갖고 있는 인격적, 대화적, 비판적, 창조적, 해방적인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활동은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 이외에도, 한 사회의 문화나 가치가 전달되는 ‘사회화’나 ‘문화화’의 과정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조용환(1997)은 사회화와 교육에 대한 개념적 검토를 통해, ‘닫힌 체제(closed system)로서의 사회화’의 개념과 ‘열린 체제(open system)로서의 교육’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적 속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화는 규범성과 정상성, 정체성, 지역성, 몰주체성, 무비판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일에는 보수적이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형식적 정의 이외에도, 교육이라는 상호 만남이 갖는 독특한 내적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용환(2012a; 2012b)은 교육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첫째,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 둘째, 교육은 더 나은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존재론적 지향을 가진 활동이다. 셋째, 교육은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이라는 독특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된다. 그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될 경우 그것은 교육의 본질을 구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의 세 요소에는 교육적 관계와 지향, 교육적 대화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 담겨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육적 만남의

존재론적, 실존론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관한 현상학적 물음과 연결된다.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 속에는 주체와 타자라는 두 인격 간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이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폐쇄적이거나 비판적 사고의 가능성을 차단할 때, 우리는 이를 교육이라는 이름 대신 사회화나 교조화, 세뇌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 따라서 관계에 전제된 상호작용적, 인격적, 윤리적 성격은 어떠한 현상을 '교육'으로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일까? 이는 교육의 내용이나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의 문제는 각 사회나 문화, 집단마다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목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조용환(2012a; 2012b)은 교육을 더 나은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존재론적 지향을 갖고 있는 활동으로 본다. 그것은 "나 자신의 존재지평을 넓히고, 높이고, 깊게 만드는 과정"임과 동시에 "모든 존재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조용환, 2012b: 28)를 추구하는 지향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전이해가 더 나은 새로운 이해로 전환되는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의 과정"(조용환, 2012b: 29) 속에서 학습자의 존재지평은 보다 넓고 깊어진다.

존재지평을 확장해가는 내적인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대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지식이나 가치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넘어, 존재의 심층을 이해하기 위해 이뤄지는 깊은 대화는 교육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는 대화의 과정에서, 내면의 속박과 상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적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러한 치유의 체험을 심층적인 교육적 대화의 한 측면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라는 현상을 인간의 내적 성장과 성숙을 향한 지향적 활동으로 바라볼 때, 교육의 외연은 삶 전체로 확장되며 총체적인 삶의 체험 속에서 재발견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체험들은 교육의 소재와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체험들을 통해 자신과 타자,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내적 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 속에서 존재지평을 확장하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지향적 행위로 교육을 바라볼 때, 교육의 내적 본질은 삶과의 관련 속에서 좀 더 폭넓게 탐구될 수 있다.

나의 연구에서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은 주체와 타자의 대화를 통해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존재의 질적 변화를 이뤄갔다는 점에서 교육과의 관련성을 가진다. 두 인격의 상호적 관계와 대화를 전제로 이뤄지는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은 주체와 타자의 만남이라는 존재론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열어가고 더 깊은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내적 변화이다. 대화적 관계 그리고 인간 형성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만남과 이를 기반으로 내면의 질적 변화를 이뤄가는 대화의 과정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존재론적 의미를 가진다.

2) 치유적 대화의 속성

주체와 타자의 존재론적 만남과 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에는 명확하거나 의도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삶의 고난으로 생긴 내적인 상처와 고통을 매개로 대화가 시작되었고, 대화의 과정 속에서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존재론적 성숙이 일어났다. 상처 입은 내면을 향한 관심과 돌봄의 관계 속에서, 참여자들은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고 지나온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해석적 힘을 키워가면서, 상처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고 내면세계를 건강하게 회복해 갔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는 온전한 인격의 회복을 향한 존재론적 지향 속에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 맺음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과 대화, 그리고 내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치유적 대화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을 내면성, 심층성, 내러티브성, 공감성, 윤리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각각의 속성들을 교육과의 의미 연관 속에서 고찰하였다.

(1) 내면성

치유적 대화는 타인이 표현하는 내면의 상처와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두 인격 간의 만남은 타

인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대화의 시작점이 된다. 그런데 타인의 내면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나 표정, 정서나 분위기를 매개로 표현된다. 특히 치유적 대화에서 주목하는 '타인의 얼굴'은 타인의 존재를 막연한 전체로 나타내면서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 중 하나이다.

홀로 질 수 밖에 없는 내면의 상처와 고통은 그 고통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를 갈망하며 존재자의 얼굴을 통해 밖으로 표현된다. 레비나스는 소통을 갈망하며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얼굴의 호소를 통해 타인과의 만남이 시작된다고 말한다(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을 통해 발화된 깊은 고통에 주목할 때, 타인에 대한 일상적 관심, 외적 행위에 대한 관심은 내면을 향한 존재적 관심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에서 주목하는 내면은 존재적 차원으로 형성된 상처의 근원이 자리한 내면세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적 만남에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주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육에서 인간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 내면의 질적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조용환, 1997; 한승희, 2004). 교육이라는 활동을 실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양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질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고자 한다. 이러한 내면의 질적 변화를 인식론적 차원으로 볼 것인가 존재론적 차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교육의 초점과 그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응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교육은 사회화나 문화화의 형식적 요소와 크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인지적 관점에 초점을 맞출 경우, 교육을 통한 인식의 성장에 주목하게 되며 인식의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경험적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볼 경우, 학습자의 총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학습 경험을 확장하고 통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해방적 관점이 중심이 될 경우에는 기존 사회의 가치 체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학습자가 삶의 주체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주체성을 형성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될까? 교수자와 학습자는 먼저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기능적, 인식론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존재론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 없이 외적인 성장과 성취만을 추구할 때, 오히려 질적인 차원의 변화는 이뤄지기 어려우며 교육적 관계 맺음이 수단화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자의 내면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깊이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교육적 관계와 내용이 학습자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조력함으로써, 학습자는 스스로 교육 내용을 자기 안에 통합하고 더 넓은 존재지평으로 나아가게 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삶 전체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학습자의 생애에 깨어진 실존 범주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 환경이나 관계의 부적응, 계속되는 무기력, 인식의 성장이 지체되는 등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현상들을 개선하기 위한 처방적인 접근에 앞서, 학습자의 실존적 토대가 깨어진 부분은 없는지를 보살피는 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의 생애 전체를 통찰하고 보살핌으로써, 학습자의 존재와 삶을 총체적 인격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적 지향과도 상통한다(조용환, 1997).

(2) 심층성

그렇다면 인간 내면의 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 존재의 심층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존재의 심층은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연관된다. 앞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존재의 심층에 자리한 상처의 근원은 주체와 타자의 깊이 있는 대화를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한다. 존재자를 통해 느껴지는 막연한 정서와 분위기는 존재의 심층에 자리한 깊은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내면에 있는 상처의 근원은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개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세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관계 맺도록 추동하게 된다.

그러나 깊은 대화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존재의 심층을 이해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내면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갈 수 있다. 이때 막연한 양상으로 느껴지는 존재의 심층을 보다 직접적으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마치 '고고학적 작업'(Freire, 2000)과 같은 대화의 과정이 이뤄진다. 이는 의식의 표층에서 심층으로 천천히 들어가면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형성하고 있는 발생적 연원을 고찰하는 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자신의 '존재론적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발생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이남인, 2004: 403-404), 존재의 심층을 향한 대화의 깊이가 더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활동을 특정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으로 국한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내면의 치유와 대화, 그리고 교육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적응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따로 상담 교사에게 데려감으로써, 내면의 문제를 교육의 문제와 분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내면의 치유와 교육, 그리고 대화적 관계는 서로 무관하지 않은 존재론적 바탕을 공유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을 통해 고찰한 ‘철학상담’ 영역은 내면의 치유와 대화, 그리고 ‘철학하기’로서의 교육 활동을 연계하고 있다(김선희, 2015; 박병준, 2017). 삶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생각의 힘’을 기르고자 하는 철학상담은 내담자(학습자)의 내적인 고민과 문제 상황, 자신의 체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철학적 대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이자 학습자는 깊은 자기 이해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자, 세계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철학적 대화의 본질을 구현함으로써, 심층적인 자기 이해와 존재지평을 넓혀가는 일종의 교육적 탐구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의 토대가 현재의 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의 발생적 토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과 타자의 세계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기 탐구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필요한 성찰의 과정이기도 하다. 학습자는 존재의 발생적 토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비단 존재 물음을 근본으로 하는 철학의 영역이나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는 상담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 학문을 연계한 교육 영역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여타의 지식이나 활동을 매개로 한 교육 활동에서도 교육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대화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와 교육 활동을 연계하면서,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존재와 연결하고 교육 활동이 학습자의 심층적인 자기 이해로 이어지도록 매개할 수 있다.

(3) 내러티브성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는 치유적 대화의 과정은 단지 상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도록 한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구성하는 내러티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치유적 대화에서 오고 간 이야기는 자신의 존재와 삶을 타자에게 열어 보이는 자전적이며 자기 고백적인 내러티브의 성격을 가진다. 자전적이며 자기 고백적인 내러티브는 존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게 개시하는 행위로서, 주체와 타자의 존재적 차원의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한다. 상처 입은 존재를 타자와 진정성 있게 나누는 대화의 과정에서, 존재자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구성해간다. 총체적인 삶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대화 체험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가장 깊어지는 대화의 단계이기도 하다.

상처의 체험과 지나온 삶을 대화를 통해 구술하는 내러티브는 표현적, 구성적, 해석적 성격을 가진다. 막연한 아픔과 고통으로 밀려오는 존재의 상처를 이야기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존재자는 상처에 직면하고 억눌린 내면의 아픔을 표출한다. 또한 조각난 상처의 체험들을 회상하고 구술하는 과정에서, 존재의 아픔을 유발한 상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존재자는 대화를 통해 상처의 체험들과 자신의 삶을 연결된 스토리로 구성하면서, 조각난 과거의 체험들을 현재적 삶의 의미 있는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에서 이뤄진 내러티브는 과거의 상처를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존재자는 과거 체험의 의미를 되찾고, 과거와 단절된 현재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로서의 시간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러티브성은 교육의 본질과 어떠한 의미 연관을 갖는가? 내러티브성을 상실한 교육은 학습자의 존재와 삶을 소외시키고 현재의 시간성을 망각하게 만든다. 획일적인 교과와 고정된 시간과 공간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교수자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이 기획될 때는, 그러한 활동이 학습자의 현재적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해석과 실천의 장면에서 주체로서 지 못하는 소외의 체험이 축적되면서, 학습자는 교육 활동에서 자신을 '비주체'로 경험하게 된다(조용환, 2009).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기 이해뿐만 아니라 타자 및 세계 이해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육의 내용과 과정이 학습자의 삶의 스토리 속에서 분절되지 않은 텍스트로 구성될 때, 비로소 교육 활동은 학습자의 존재와 삶에 의미 있게 통합될 수 있다. 이

때 교수자는 학습자의 이해와 해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텍스트를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로 구성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한 예로, 하영유(2018)의 연구에서는 미술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과 교육 활동 속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교육 내용의 습득 그 자체도 의미를 갖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 활동 속에 학습자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담는 과정에 있다. 교수자는 일차적으로 학습자의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과 인격적인 대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습자의 존재와 삶에 교육 내용이 통합되도록 돕는다. 이때 질문이 살아있는 문답의 과정을 통해 상호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습자는 점차 소외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게 되고 의미를 찾아가는 “깨어있는 주체”로 성장해간다.

이처럼 교육적 장면에서 형성되는 내러티브는 학습자가 자신의 존재와 삶을 스스로 표현하고 구성하고 해석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현재의 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내러티브성이 살아있는 교육 활동을 통해,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삶에 질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타자가 자신의 존재와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주체-타자’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러티브를 재정립할 수 있다.

(4) 공감성

치유적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에서 ‘공감’은 상대방의 존재에 참여하는 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발화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상호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존재에 귀를 기울이는 ‘공감적 경청’을 토대로 서로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치유적 대화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의 존재를 향한 적극적인 귀 기울임과 응답의 자세를 이룬다.

한편 “느낌의 나눔”으로서의 공감(조용환, 2013a)은 다양한 깊이와 차원을 가지고 있다. 치유적 대화에서 이뤄지는 느낌의 나눔으로서의 공감은 단순히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차원을 넘어, 심층적 차원의 존재의 참여로 나타난다. 상처의 근원을 열어 보이는 치유적 대화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 타인의 뿌리 깊은 상처와 존재의 고통이라는 느낌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치유적 대화에서 공감의 본질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에서 이뤄지는 존재의 참여로서의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향한 전인격적인 참여의 깊이로 나아간다.

셸러(Scheler, 1923)는 다양한 차원의 느낌의 나눔을 ‘유사 공감’과 ‘본래적 공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유사 공감’ 현상들은 타자의 상태에 전염되어 자기를 잃어버리고 타자에 종속된 감정 상태를 만든다¹⁷⁾. 그러나 ‘본래적 공감’은 자립적인 인격 간의 관계에서, 인격들 간의 본질 차이성을 전제로 일어난다. 셸러가 말하는 본래적 공감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분리된 의식을 전제로 하는 윤리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아중심적인 방향을 초월하여 타인의 고통 또는 기쁨으로 향하는 지향성을 가진다.

이러한 ‘본래적 공감’에는 함께 기뻐함, 함께 슬퍼함, 연민, 긍휼, 체휼과 같이 다양한 차원의 공감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긍휼과 체휼은 타인을 향한 심층적인 공감의 차원을 표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겪는 고통에 대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신체적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신체적인 차원까지 느껴지는 이러한 공감은 주로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사실 셸러는 공감이 지닌 타인 지향성에도 불구하고, 공감만을 통해서도 타인의 인격에까지 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공감은 “사랑에 의존”할 때에만, “그 한계선을 뚫고서 절대적이고 심오한 인격 영역으로 돌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eler, 1923/2006: 160-169).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유를 바탕으로 한 ‘사랑’은 ‘공감’보다 더 인격적이고 지향적으로 타인의 심오한 인격에까지 닿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감은 ‘사랑에 기반한 공감’ 현상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적 상황에서도 다양한 깊이의 공감이 필요하다. 공감을 통해 표현되는 감성적, 정서적 참여는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 존재에 다가가고자 하는 관계적 소통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언어적 차원의 소통은 대화 관계의 중요한 기반을 이룬다. 실제로 타인으로부터 깊은 수용과 위로를 받는 공감은 대화의 중

17) ‘감정 전염’과 같이 타인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이 비자의적이며 무의식적으로 감정의 상태들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으며, ‘감정 합일’과 같이 타자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동일시하는 현상도 있다. 셸러(Scheler, 1923)는 이를 진정한 공감 현상이 아닌 ‘유사 공감’이라고 말한다.

요한 차원을 이루며, 타인의 존재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도록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를 향한 공감적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기꺼이 학습자의 위치로 내려가 배움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수 있다. 교수자의 공감적 태도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무지와 결핍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으로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게 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인 만큼 학습자의 존재에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학습자를 향해 교수자는 공감적 태도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주체 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의 존재로 향하는 공감적 태도는, 교수자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교수자는 학습자의 느낌을 존중하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면서도, 학습자로부터 한발 떨어져 그의 성장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잠시 떨어져서 총체적인 안목으로 학습자의 존재와 삶을 조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육적 만남에서는 ‘거리두기’를 유념한 공감적 태도가 함께 요구되는데, ‘공감’과 ‘거리두기’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태도인 것 같다. 하지만 공감이 단순한 감정의 동일시가 아닌 주체와 타자 사이의 인격적 차이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교육적 관계의 공감성을 이룰 수 있다.

(5) 윤리성

상처의 근원으로 향하는 치유적 대화는 타인의 얼굴로 표현되는 아픔과 고통의 호소에 주목한다. 존재의 상처로 아파하는 타인의 얼굴 앞에서 ‘나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데, 치유적 대화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차원의 마주침을 체험하게 된다. 타인의 얼굴을 외면하고 싶은 순간에, 존재자는 타인의 상처를 돌봐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상처의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타인을 보며 존재자는 외면할 수 없는 ‘돌봄의 책임’ 앞에 서게 된다. 돌봄의 행위는 타인의 고통과 연약함과 결핍에 대해 윤리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인격적인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상호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아닌,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윤리의 개념이 생성된다고 본다. 그는 ‘타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체를 중심으로 타자를 규정하던 기존의 주체/타자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역전시

킨다. 대신에 그는 고통을 호소하는 상처 입은 타인을 관계의 중심으로 놓으며, 주체/타자의 비대칭성을 타자/주체의 비대칭성으로 재설정한다. 레비나스에게 주체성의 핵심은 타인의 고통과 짐을 대신 짊어지며, “타인을 대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구성”되는 “윤리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강영안, 2005: 228).

레비나스가 말하는 윤리적 주체는 돌봄의 책임을 넘어 타인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 그에게 주체됨은 라틴어 ‘수브젝툼(sub-jectum)’의 뜻처럼, 타인의 고통을 아래에서 떠받치며 타인을 위해 ‘대속적 고통’을 감내하는 윤리적 책임 속에서 형성된다(강영안, 2005: 228-229).¹⁸⁾

치유적 대화에서는 타인을 향한 돌봄의 행위와 타인의 상처를 함께 짊어지는 대속적 고통이 모두 나타난다.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은 단순한 끄덕임을 넘어 그 고통의 깊이로 내려가 상처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의 참여를 의미한다. 대속적 고통을 수반하는 공감적 경청을 통해, 듣는 이는 타인의 존재에 참여하며, 상처를 고백하는 이는 자신의 존재에 있는 고통을 나누게 된다. 이러한 윤리적 만남 속에서 타인의 내적인 고통이 실제적으로 덜어지는 치유의 체험이 일어나기도 한다.

교육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좀 더 총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교수자를 중심으로 비대칭적 구도를 형성하기도 한다.¹⁹⁾ 특히 인식의 성장이나 행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에서는 교육적 관계가 교수자 중심의 비대칭적인 구도로 형성되기 쉽고, 상대적으로 학습자는 교육적 대화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의 비대칭적 관계의 무게 중심을 가르치는 자 중심으로 놓는가, 배우는 자 중심으로 놓는가에 따라 교육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의 무지와 연약함에 대한 교육적 응답으로서의 대화가 반드시 교수자 중심의 비균형 관계를 전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치유적 대화에 나타난 윤리성은 교육적 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자 중심의 교육’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와 교육 내용이 중심이 되어, 상대적으로 학습자의 얼굴에 드리워진 여러 호소들에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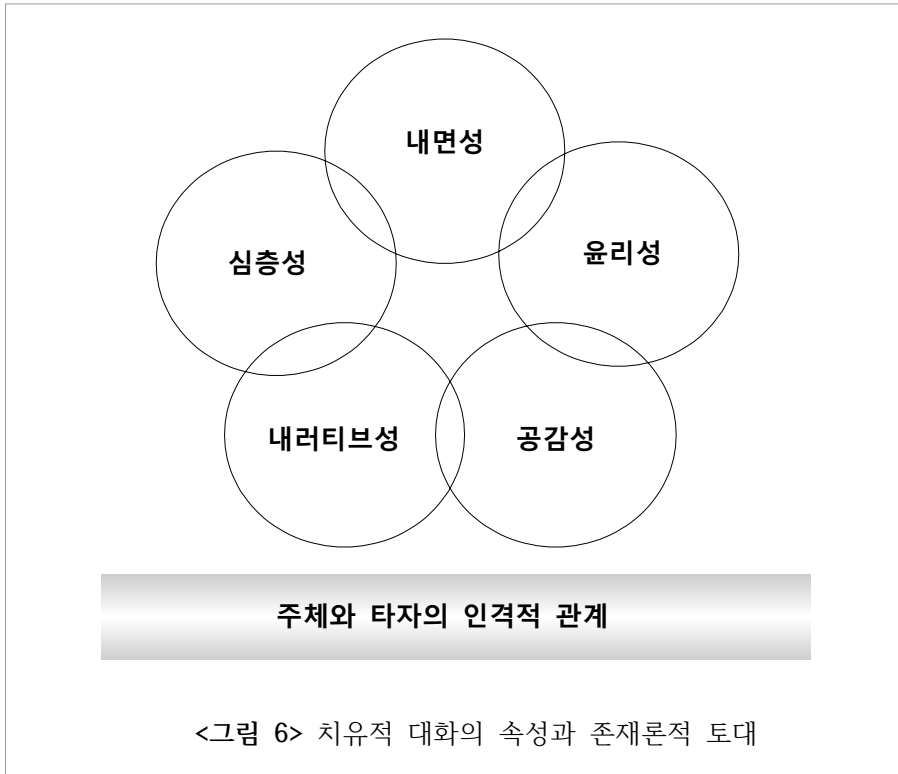
18) 레비나스(Levinas, 1947b)의 ‘윤리적 주체’는 주체의 남성적인 힘과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깨어짐을 통해 타인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된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통해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9) 가르침과 배움의 활동은 그 성격상 ‘비균형 관계(non-equilibrium)’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 관계의 주도권은 좀 더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가진 교수자에게 주어지기 쉽다(한승희, 2004: 102-103).

가 있다. 그러나 교육적 관계의 무게 중심을 학습자에게 둘 때, 우리는 학습자의 존재와 삶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의 어려움에 존재를 기울여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자는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호소하는 학습자에게 다가가 그의 짐을 덜어주고 책임 있는 응답을 하게 된다.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상처와 고통, 어려움을 호소하는 존재에 귀를 기울여 공감할 때, 학습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딛고 일어설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윤리성을 통해 교육적 관계를 조명해볼 때, 교육적 관계는 오히려 학습자 중심의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교육적 관계의 무게 중심을 학습자에게 둔다는 것은 학습자의 무지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습자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학습자가 가진 미숙함이 교육 활동을 이끌어갈 때 오히려 아무런 성장 없이 교육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 중심의 비대칭적 구도란, 학습자의 인격성을 교육적 관계의 중심으로 두고, 학습자를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주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윤리적 관계를 통해 교수자는 학습자가 자신에게 의존된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주체성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조력할 수 있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의 인격성과 주체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존재를 떠받치는 윤리적 주체(sub-jectum)로서 존재하게 된다. 학습자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면서도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론적 지향 속에서 교수자의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치유적 대화는 내면성, 심층성, 내러티브성, 공감성, 윤리성이 라는 속성을 구현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대화의 속성을 교육의 내적 본질에 대한 탐구 속에서 고찰하였다. 존재의 심층을 이해함으로써 상처의 근원을 치유하는 대화의 과정은 내면세계의 질적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지향과도 관련을 가짐을 살펴보았다. 과거의 체험을 의미 있는 삶의 스토리로 해석하는 대화의 과정은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삶에 의미 있게 통합하는 교육적 내러티브에 대한 시사를 준다. 또한 타인의 존재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감적 태도와 타인의 인격성을 관계의 중심에 두는 윤리성을 기반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적 관계를 성찰하는 가능성을 논의해 보았다.



이와 같은 치유적 대화의 속성은 참여자들과 나눈 생활세계의 대화 체험이라는 ‘현실태’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그림6>과 같이 치유적 대화의 각 속성은 상호 연관 속에서 대화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다. 나는 다음에서 전개될 논의를 위해, <그림6>에서 치유적 대화의 각 속성들이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라는 존재론적 토대 위에서 밀접한 상호 연관을 맺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대화 관계가 기반하고 있는 만남의 성격 위에서, 내면의 치유를 이루는 대화가 구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다음에서 나는 치유적 대화의 존재론적 토대를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나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맺고 있는 근원적인 존재론적 토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화를 통해 실현되는 인격적 관계가 교육이 지향하는 주체-타자 정립의 기반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2.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

치유적 대화는 교육적 만남의 존재론적 토대와 어떠한 의미 연관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 교육을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로 보기 이전에, ‘주체와 타자의 관계’라는 보다 근원적인 만남 속에서 성찰하도록 한다. 나는 치유적 대화를 통해 실현되는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가 교육의 존재론적 토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공유 지점을 탐색함으로써, 교육적 관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치유적 대화에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호주체성과 인격적 관계성의 의미를 대화와 교육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치유적 대화를 통해 정립되는 인격적 주체-타자의 모습이 교육적 인간 형성의 지향과 어떠한 관련을 가질 수 있을지 고찰하였다.

1) 상호주체적 만남

발생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타자와의 관계 속에 놓여있다. 슈트라스어(Strasser, 1985)는 의식의 객관화 이전 단계에서 최초로 맺어지는 타자인 ‘너’와의 관계에 주목한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웅크린 태아는 처음에는 두 주체 사이에 아무런 중간자가 없는 상태, 즉 ‘거리 없는 느낌’으로 어머니를 만난다. 최초의 타자인 어머니와 맺은 원본적인 느낌은, 자아의 반성에 의하여 쉽게 발견되지 않으나 의식의 심층적 차원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Strasser, 1985) 교육학적으로 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 치유적 대화는 존재자가 맺은 근원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존재의 바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는 대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치유적 대화에서 주체가 타자와 맺은 최초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주체가 자신의 실존적 토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과 성찰이 담긴 대화를 통해, 존재자는 자신이 인식할 수 없었던 상처의 근원을 향해 나아간다. 존재자는 자신의 의식과 감정의 구조가 주체-타자의 체험적 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것임을 깨달으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심층적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이처럼 관계의 발생적 연원에 기초한 현상학적 탐구를 통해, 존재자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맺음 속에서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존

재와 의식은 존재자 안에 고립된 상태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체와 타자 사이에서 상호주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 놓인 ‘주체-타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마주하게 된다. 모든 주체는 발생적 연원에서부터 주체-타자라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 놓여있으며(조용환, 2013b: 21), 교육적 주체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본질상 유아론적으로 고립된 자아상을 벗어나,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주체를 정립하려는 상호주체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은 힘의 대등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적 ‘사이(inter)’를 강조하는 실존적 의미를 가진다. 존재와 의식은 단지 ‘반성적 자기의식’²⁰⁾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주체 밖으로 나아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주체와 타자는 “세계지평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현상학적 공존재”(조용환, 2013b: 18)로서, 서로의 존재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공존재로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교육적 인간 형성이 단독자로서가 아닌 상호주체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교육에서 주체와 타자의 존재론적 사이에 주목할 때, 상호주체적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학습자의 자기 정립 과정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

상호주체적으로 형성되는 존재론적 바탕을 이해하는 것은 인식론적 변화를 추구하기에 앞서 이뤄져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형성해 온 가족 관계, 특히 최초의 주체-타자로서 맺은 부모와의 관계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존재론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변화가 수반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교육의 주체로서 학습자 또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식을 상호주체적으로 정립해 가는 존재자이다. 학습자는 교수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을 형성해 온 과거의 체험들 속에서, 수많은 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미 고유한 방식으로 자기를 정립해 왔다. 교수는 학습자가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식의 토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조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과 대화를 통해 조력할 수 있다.

20) 데카르트적 주체는 사이가 없는 상태, 즉 타자와의 관계성이 결여된 상태로 정립된다. 데카르트적 입장에서 주체는 자아의 순수의식이 중심이 된 코기토(cogito)를 통해 자기성을 획득한다(Husserl, 1910·1911). 이때 주체가 수행하는 “반성적 자기의식”은 여타의 경험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면서(이남인, 2004: 361), 주체의 자기성을 규정하는 존재의 근거가 된다.

대화적 관계를 맺으며 존재와 의식을 탐구하는 과정은 '상호주체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적 만남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발생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대화를 매개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존재와 의식에 대한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반성과 이해는 학습자가 자신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정립하며 내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2) 인격적 관계성

존재의 심층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체와 타자의 표면적인 마주함을 넘어, 더 깊은 관계적 만남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부버(Buber, 1923)는 관계적 만남을 통해 타자의 존재를 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타자를 한 인격으로 만나는 체험은 나의 온 존재를 기울인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존재의 기울임으로 주체는 타자의 존재를 '나-너(Ich-Du)'라는 근원어²¹⁾ 속에서 직접적이고 전체적으로 만나게 된다.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 세워지는 존재적 만남을 강조하면서, 타자를 단순히 '그것으로서 경험'하는 것을 넘어 '너로서 체험'하는 관계 맺음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영역에서 인간은 온전한 인격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다른 여러 인격과의 관계에 들어섬으로써"(Buber, 1923/1977: 93) 비로소 한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레비나스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타인의 얼굴'을 마주함으로써(강영안, 2005), 타인의 존재를 심층적이고 전체적으로 만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타인의 얼굴이 가진 특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얼굴을 통하여 존재는 더 이상 그것의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앞에 나타난다. 얼굴은 열려 있고 깊이를 얻으며 이 열려 있음을 통

21) 부버(Buber, 1923/1977: 30-31)에 따르면, '나-그것(Ich-Es)'이라는 짝말과 '나-너(Ich-Du)'라는 짝말은 인간 존재의 두 근원어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심층적이고 질적인 '관계'의 세계는 나와 너의 질적인 만남이 이뤄지는 '체험(Erlebnis)'의 영역에 세워진다고 말한다. 이는 표면적인 '경험(Erfahrung)'의 영역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두 근원어는 서로 명확하게 분리되는 상태가 아니라 때로는 깊은 이중성 가운데서 어지러이 뒤얽혀 있다고 본다.

하여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얼굴은 존재가 그것의 동일성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는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방식이다(강영안, 2005: 148 재인용).

사전적 의미에서 대화(對話)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을 뜻한다.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얼굴을 향해 ‘마주 대하여 있음’의 의미는 타인에 대한 익명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표정이 살아있는 구체적인 인격과의 마주함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는 본질적으로 대화 주체의 인격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때 얼굴은 대화하는 이의 심층적인 내면과 존재까지도 드러내는 인격적 깊이를 갖는다.

나와 너의 만남, 그리고 얼굴을 마주한 만남은 대화를 통해 구현되는 인격적 관계성이 어떠한 차원까지 구현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주체와 타자가 서로를 향해 어느 깊이로 열려 있느냐에 따라 대화의 차원은 달라질 수 있다. 치유적 대화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체험하는 깊은 인격적 만남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화는 두 인격 간의 만남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관계의 본질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자의 존재와 마주하는 인격적 관계의 토대가 마련될 때, 교육의 맥락에서도 존재적 차원의 깊은 대화가 구현될 수 있다. 주체와 타자는 대화를 통해 함께 내러티브를 구성함으로써, 서로의 존재와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향적 관계를 맺는다.

현상학자들은 주체가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 열려 있음과 관계 맺음을 통해 인간 존재가 형성되는 것임을 주목한다. 자신을 열어 타자와 삶을 나누고자 하는 소통의 갈망은 ‘대화’라는 상호적 행위를 통해 표현된다. 하이데거(Heidegger, 1927/1998: 231)에 따르면, 밖으로 말해지는 말은 본질적으로 ‘함께 나눔’이라는 존재 경향을 가진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의 열어 밝혀진 존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의 깊이에 따라 서로의 존재에 참여하는 정도는 달라진다.²²⁾ 열려 있음과 관계 맺음의 존재 방식은 주체와 타자의 대화를 통해 매개되는 만남의 기초가 된다. 특히 주체와 타자의 관계적 만남은 경험과 대비되는 체험의 영역을 형성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향한 심층적인 대

22) 하이데거(Heidegger, 1927/1998: 232-233)에 따르면, 현존재로부터 발화된 말은 ‘실존론적 존재양식’을 가진다. 그러나 일상적 현존재가 평균적인 이해 속에서 이야기하는 ‘잡담’은 오히려 “세계내부적인 존재자를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이데거는 잡담 속에 머물고 있는 현존재는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진정한 존재연관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말한다.

화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체험의 영역에 세워지는 관계적 만남은 교육적 만남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부버(Buber, 1943/2007: 221-222)에 따르면 “인간 실존의 기본적 사태”는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산출된다. 그는 이러한 ‘사이’의 영역에서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 맺음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주체와 타자는 사이 관계에 섬으로써 타자의 존재지평을 ‘인격적인 너’로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교육에서도 주체와 타자의 ‘사이’와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타자와 맺고 있는 다양한 사이의 영역과 이를 통해 형성된 생애의 역사는 그들의 내면세계의 정립과 교육 활동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 활동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는 그들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사이와 관계의 영역을 성찰함으로써,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혀가며 상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참여자들과 나눈 치유적 대화는 주체와 타자 사이에 놓인 다양한 관계들을 성찰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격적 관계의 영역을 새롭게 정립해 가는 과정이었다. 치유적 대화가 기반하고 있는 인격적 관계성을 기초로 바라볼 때,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 활동을 통해 관계의 영역을 성찰하고 세워가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교육은 ‘언어적, 비언어적 차원의 대화’²³⁾를 매개로 두 인격 사이에, 또는 인격과 지식 또는 가치 사이에 관계의 영역을 생성하면서 존재론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지향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인격적 주체-타자의 정립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이 살아있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회복해가는 치유적 대화의 과정을 탐구하면서, 나는 교육적 인간 형성의 의미를 숙고할 수 있었다. 깊은 대화를 통해 타자와의 인격적 관계성을 구현하면서, 실존적으로 자기를 정립한다는 것은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가질까?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은 주체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23) 교육에서 이뤄지는 가르침과 배움의 활동은 두 인격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차원의 소통을 매개로 이뤄진다. 비언어적 차원의 질적인 소통은 교육적 대화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명시적으로 자각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나 감정의 영역, 그리고 상처의 근원과 같은 존재의 깊은 영역은 언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교육적 대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때 학습자가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는 대화의 순간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변화의 지점이 된다.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기 정립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은 그동안 학습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정립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에서 추구하는 내적인 변화와 성숙은 주체가 깨어지는 타자와의 마주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도전 앞에 놓이기도 한다. 주체는 타자를 통해 견고한 자기성 밖으로 나아가, 자신의 존재와 삶이 타자와 관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주체는 타자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고투 속에서, 더 이상 고립된 주체가 아닌 주체-타자의 관계에서 자신을 재인식하게 된다. 주체에서 주체-타자로 자신을 재정립하는 과정은 교육적 인간 형성의 지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1) 타자의 마주함과 주체의 깨어짐

주체가 타자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자기를 정립하는 중요한 실존적 토대를 이룬다. 부버(Buber, 1923)는 ‘나-그것’과 ‘나-너’의 대비를 통해, 주체가 타자를 대하는 고유한 방식이 있음을 설명한다. 존재자가 자신을 “경험과 이용의 주체”로 의식할 때, 타자의 존재는 소외되며 타자와의 인격적 관계성은 상실된다(Buber, 1923/1977: 93). 또한 그러한 존재자는 “타자에게서 자기를 분리시키며, 경험과 이용에 의하여 타자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존재 방식을 갖게 된다(Buber, 1923/1977: 96). 소유 양식을 강화함으로써 정립된 주체는 자아의 무게 중심을 타자에게로 쉽게 옮길 수 없다.

그렇다면 주체는 어떻게 견고한 자기성을 깨뜨리고 타자를 만날 수 있는가? 레비나스(Levinas, 1947b)는 주체를 무력하게 하는 ‘타자’²⁴⁾라는 사건에 마주함으로써, 유아론에 얽매인 주체성이 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에게 고통이나 죽음, 미래라는 타자, 때로는 고통을 호소하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살아있는 타인의 얼굴은 주체의 지배적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타자 체험이다. 레비나스 철학에서 타자는 빛과 인식, 이성, 남성적 힘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미지성, 외재성, 초월성, 절대성을 갖는 존재이다. 주체는 이러한 타자를 만날 때 자신의 존재를 지배하는 주도권이 무력화되는 ‘수동성’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타자는 주

24) 레비나스에게 ‘타자’는 구체적인 사람이나 가족으로서의 ‘타인’일뿐만 아니라, 죽음, 이별, 가난, 고통과 같이 나에게 “친밀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강영안, 2005: 36) 낯선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나에 대해서 완전한 초월과 외재성”을 가진 것으로, “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한다(강영안, 2005: 36).

체의 홀로서기의 고독을 깨뜨리고, “자신의 존재에 갇혀 있던 자리에서 전적으로 다른 타자를 만나도록” 주체를 몰아세운다(강영안, 2005: 109). 이처럼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나의 인식과 능력의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강영안, 2005: 242-243).

주체는 바로 이러한 타자를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비대칭적인 깨어짐을 체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에게 가족의 죽음이나 이별, 질병, 가난 등 통제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 삶의 고난들은 그들의 주체적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주체적 힘을 상실한 그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실존을 마주하며, 깨어진 내면과 결핍되고 험벗은 존재를 솔직하게 ‘직면’하게 되었다. 타자로 인한 주체의 깨어짐은 능동적인 자기 정립과는 대비되는 ‘수동성의 체험’이었다(Levinas, 1947b).

주체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강조하는 인식론적 접근에서 볼 때, 이러한 타자 체험은 주체의 힘으로 통제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이성 중심의 교육에서 타자는 주체의 이성으로 포착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 그 자체이며, 주체성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에 타자를 교육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논의하기보다는 개인의 영역, 사적인 영역, 혹은 종교의 영역으로 미뤄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대부분이 타자와 고투하는 시간 속에서 형성됨을 생각해 볼 때, 타자에 대한 성찰은 비록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과정일지라도 교육적으로 숙고할 가치를 지닌다. 타자로 인한 주체의 깨어짐을 오히려 주체-타자의 재정립을 모색하는 “실존적 반성의 계기”(조용환, 2005)로 삼는 것, 그것은 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구성함으로써, 인간의 실존을 이해해 가는 철학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간의 실존에 관한 물음은 비단 종교나 철학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태이기도 하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이해하는 ‘존재론적 해석의 힘’을 기르는 것은 교육적 인간 형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 주체에서 주체-타자로의 재정립

실제로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정립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의 고

투와 변증법적 역동 속에서 이뤄진다. 주체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타자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시작하여, 내면의 고투를 통해 타자를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일부로 이해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적 갈등과 긴장은 새로운 형태의 존재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타자의 마주함 앞에서 주체는 자기를 정립할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깊은 침체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주체가 어떻게 침체를 극복하고 자신을 재정립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존재의 모순을 견뎌내며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내러티브의 능력이 없이는 주체-타자로서 자신을 재정립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때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기초로 한 대화는 주체-타자로서의 재정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체성의 깨어짐과 수동성을 체험한 존재자는 자신의 밖으로 나아가 타인과 진정성 있는 만남과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타인과 나누는 삶에 대한 깊은 대화는 주체가 상처와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깊은 침체와 무력감으로부터 자신을 일으킬 힘을 얻도록 돕는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고통을 공감 받음으로써 홀로 느낄 수밖에 없던 고통의 무게가 덜어지게 된다.

인격성을 기반으로 한 타인과의 깊은 공감적 연대를 통해, 주체는 타자의 부정이라는 강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빠져나와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주체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열림으로,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실존적 의미를 숙고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 고통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주체는 또 다른 타인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존재론적 성숙을 향해 갈 수 있다. 존재의 고통을 체험하고 그 의미를 숙고한 주체는 고통 속에 놓인 또 다른 타인의 얼굴을 보며 타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윤리적 책임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인격적 관계가 살아있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주체의 무게중심은 또 다른 타인에게로 옮겨지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타자의 재정립은 타인을 향한 열린 관계로 나아가는 ‘인격적 주체-타자’의 지향을 담고 있다.

나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타인과 나누는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깨어졌던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고, 또 다른 타인의 얼굴에 담긴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타인의 내면을 향한 진심어린 관심을 시작으로, 타인의 상처와 그들의 버거운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의 지향성은 자신의 온 존재를 기울여 타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헌신과 공흥의 마음으로 표현되었다.

마리아는 자신을 꼭 안으며 목 놓아 울고 있는 교회 아이의 흐느낌과 상처를 온 몸으로 느끼며,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에게로 그 마음이 향했다. 다니엘 또한 “온 존재가 정말 외롭고 버거운 아이들한테 쏠려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년시절과 닮아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사로서의 사명을 느꼈다. 안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단한 인생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웠던 상처를 넘어,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부모의 연약한 인생을 안아주었다. 고통 받는 타인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는 주체, 이는 인격적 주체-타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체는 건강한 자기 정립을 토대로 타인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이해와 사랑을 향해 간다. 치유적 대화와 교육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 방식 속에서 대화의 본질을 구현하고, 나와 너의 고유한 인격을 실현해 간다는 점에서 공통된 존재론적 지향을 가진다. 교육에서 이루고자 하는 존재론적 성숙은 서로의 인격을 실현하도록 돕는 사랑의 존재 방식에 기반을 둔다. 자신과 타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내적인 변화와 성숙의 과정에서, 주체는 ‘인격적 주체-타자’로서 자신을 재정립할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는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눈 기혼여성들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하고, 현상학적인 분석을 통해 대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였다. 나는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대화 체험을 잠정적으로는 ‘치유적 대화’의 개념에 담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유적 대화와 교육이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는 삶의 맥락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 체험을 복원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면서, 대화의 본질적인 의미와 성격에 대해 숙고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일어난 내면의 변화와 치유는 대화의 본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실이기도 했다. 나는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 맺음 속에서 구현되는 대화의 의미를 숙고하면서, 이러한 대화의 속성과 존재론적 토대는 교육적 만남에도 의미를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는 세 기혼여성들과 나눈 대화 체험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그들과 나누었던 과거의 대화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회상일지를 작성하면서, 대화 체험에 대한 일차적인 복원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작성한 회상일지를 각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구술 중심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는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그들의 고유한 생애의 맥락 안에서 복원할 수 있었다.

나는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첫째,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는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갖는가? 둘째,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는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를 갖는가?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는 타인의 내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을 시작으로, 상처의 발생적 근원을 함께 찾아가는 대화의 과정이었다. 내면의 상처를 열어 보이는 이에게 나의 존재를 기울여 응답하는 대화를 통해, 상처를 고백하는 이는 존재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내면의 상처와 고통을 향한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

은 상처를 고백하는 이가 자신의 삶을 고유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재발견하도록 도왔다. 이는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는 해석적 내러티브의 과정이기도 했다. 나는 위와 같은 과정과 성격을 가진 대화 체험을 잠정적으로는 ‘치유적 대화’로 개념화해 보았다. 주체와 타자의 만남에서 관계의 깊이를 체험하고 고유한 인격성을 실현하는 대화의 과정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체험이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치유적 대화의 속성은 참여자들과 나는 생활세계의 구체적인 ‘현실태’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내면성, 심층성, 내러티브성, 공감성, 윤리성이라는 속성은 상호 연관 속에서 치유적 대화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었다. 나는 치유적 대화의 각 속성을 교육의 관점으로 다시 성찰하면서, 치유적 대화와 교육의 존재론적 연관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추구한다. 이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 형성의 한 과정으로 의미를 가진다. 내적인 변화는 존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심층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형성하는 내러티브를 통해 확보된다. 존재의 발생적 연원을 찾아가는 대화의 과정 속에서, 현재의 자신을 이루고 있는 과거의 체험을 조명하며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대화는 언어적 차원을 넘어, 감성적 공감과 정서적 돌봄 그리고 윤리적 관계 맺음을 통해, 타인의 존재와 함께 교감하는 깊은 대화의 차원을 형성한다. 이러한 대화는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라는 존재론적 토대 위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대화는 타인의 존재에 닿는 보다 질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격적 만남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치유적 대화에서는 주체와 타자 사이에 인격적 관계성이 회복되도록 도움으로써, 깨어진 관계의 실존 범주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존재론적 토대는 교육적 만남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대화에서 실현되는 인격적 관계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이 결여된 채 소외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건강한 자기 정립의 토대를 다지고 인격적 주체-타자의 정립을 실현하는 과정은, ‘더 나은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존재론적 지향’(조용환, 2012a; 2012b)과 맞닿아있다.

나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치유적 대화는 인격적 관계의 깊이를 체험하면서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향해 가는 지향성을 갖고 있음

을 발견하였다. 이는 깊은 차원의 관계 맺음과 긴 호흡의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변화의 과정이었다. 대화를 통해 주체와 타자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정성 있게 서로의 존재를 열어 보인다. 그리고 주체는 대화를 통해 깨어진 실존 범주를 이해하며, 자신과 타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고유한 이해로 나아가게 된다. 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대화를 기반으로 자신을 재정립하고, 타인을 향한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은 교육에서 지향하는 인간 형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사회는 만남의 인격적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적 만남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활동이 실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관계중심 생활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실행되고 있다. 교실 구성원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동글게 앉아 ‘서클(circle)’을 만들고, 평등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법을 배운다. 학생들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상호 의존된 공동체를 확인하고 서로를 한 인격으로서 존중하는 대화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교실 구성원들은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의 변화를 체험한다. 또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학습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실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교육은 더 많은 학습을 강조하며 인식론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데 치중해 왔다. 그러는 사이, 학습자는 오히려 교육 활동에서 깊은 소외와 무기력을 체험하고 있다. 학교 현장은 크고 작은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신음하며, 교육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인간의 존재 가치를 도구화하는 사회 분위기가 교육 상황에까지 연장된 현실 속에서, 교육적 만남의 본질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적 만남의 토대인 주체와 타자의 관계 맺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내면이 건강하게 다져지도록 보살피는 윤리적 책임 속에 놓여있다. 이제는 교육적 만남을 단지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론적 관계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관계 맺음의 차원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치유적 관점의 교육은 인격의 회복을 향한 존재론적 지향 속에서, 대화를 매개로 주체와 타자의

교육적 관계 맺음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 치유적 관점의 인간 형성은 인간 내면의 총체적인 회복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때 대화를 통한 관계 맺음은 인격적 관계성이 실현되는 통로가 된다. 치유적 관점의 교육은 온전한 인격의 회복을 향한 존재론적 지향 속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격적 관계맺음과 대화의 과정 자체가 교육 활동의 본질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교육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변형된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혼여성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에, 다른 성별과 나이,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 집단의 특성에 기반하여 우리는 타인과 함께 존재와 삶을 나누는 대화와 교육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언어적 대화로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감성적 공감과 정서적 돌봄의 차원이 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위해, 다른 집단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대화적 실존'을 중심으로 교육적 관계와 교육적 인간 형성의 측면을 조명해 보았다. 슈트라스어(Strasser, 1985)는 인간이 타자를 통해서만 세계-내로 들어온다는 사실은 인간의 대화적 실존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화적 실존은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존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과 지향을 설명해준다. 대화를 통한 깊은 관계 맺음과 참여의 방식은 주체와 타자 사이에 인격적 관계성이 실현되는 통로가 된다. 대화를 통해 관계의 인격적 차원이 열리게 될 때, 주체 안에 고립되어 있던 의식이 타자를 향해 열리면서 주체와 타자 사이의 막혀있던 소통은 비로소 원활해진다. 주체와 타자는 진정성 있는 나눔과 참여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삶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찰하며 주체-타자로서 자신을 재정립할 수 있다. 교육적 만남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진정한 관계의 영역을 세우고, 서로의 내면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대화는 서로를 인격으로 존중하는 만남을 통해,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고유한 인격으로 존중받은 주체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또 다른 타인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는다. “사랑

이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관심이라면 그러한 사랑은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사랑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양자는 서로를 요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박찬국, 2001: 255)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넓혀 가는 교육, 이를 토대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육은 교육이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 형성의 지향과도 맞닿아 있다.

참고 문헌

- 강대중 외 (2017). 학습자자세, 학습관리장치, 맥락지식: 평생학습이론 구축을 위한 중심 개념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23(4): 27-53.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공병혜 (2017).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석수 외(2012).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편). 철학과 상담1: 왜 철학상담인가?. 서울: 학이시습.
- 김선희 (2015). 철학상담: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대화. 경기: 아카넷.
- 김소연 (2010). 구성과 해석을 통한 자기성찰 과정 : 미술치료에서의 이야기 꾸미기. 교육인류학연구, 13(1): 1-30. 한국교육인류학회.
- 김수연 (2013). 자전적 서사의 시각화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작업 연구: 본인의 <가족 시리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미술학 석사학위논문.
- 김준수 (2012). 헤겔 철학에서 모순과 변증법. 코기토, 71: 305-34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노승수 (2018). 핵심감정 탐구: 핵심감정의 치유와 성화의 길. 서울: 세움북스.
- 박병준 (2017). 현상학과 철학상담: 행복 수업을 위한 철학상담의 방법론 모색. 철학논집, 50(Aug): 9-41.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박성석 (2013). 관계 중심적 대화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연구: 초면 대화 상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박찬국 (2001). 에리히 프롬과의 대화.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박찬국 (2002). 하이데거와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서덕희 (2007). 어윤치미크에게 말 걸기: 한 몽골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본 다문화교육. 교육인류학연구, 10(2): 233-267. 한국교육인류학회.
- 서덕희 (2006). 홈스쿨링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서덕희 (2008). 홈스쿨링을 만나다. 서울: 민들레.
- 서덕희 (2013). 사회적 소수자 연구 윤리로서의 '초월':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그 자

- 너들을 '직면(直面)'해야 하는 한 연구자의 성찰일지. 교육과 복지: 조우 혹은 탈경계. 한국교육인류학회 2013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성지영 (2018). 탈북청소년의 삶과 정체성에 관한 예술기반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손봉호 (1995). 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수진 (2013). 교육적 주체 형성 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레비나스적 접근.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이근호 (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한국교육인류학회.
-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남인 (2006). 후설 『엄밀학으로서의 철학』. 철학사상, 별책 7(17).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경기: 한길사.
- 임옥화 (2010). 읍의 고난과 하나님의 치유적 대화: 폴 투르니에의 인격적 대화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상호 (1994). 또 하나의 교육관. 이성진 (편), 한국 교육학의 맥. 서울: 나남.
- 장지애·김영신 (2013). 인생회고를 위한 음악자서전 활동이 편마비 환자의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5(2): 153-167.
- 전현욱 (2014). 교육운동 참여의 자유변경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햇살교육연구회 세 교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조용환 (1997). 사회화와 교육: 부족사회 문화전승 과정의 교육학적 재검토.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 (2001).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1-27. 한국교육인류학회.
- 조용환 (2004). 질적 연구와 질적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7(2): 57-77. 한국교육인류학회.
- 조용환 (2005). 기오재 공동학습자료 jyh050905. 미출판 자료.
- 조용환·윤여각·이혁규 (2006). 문화와 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조용환 (2008a) 기오재 공동학습자료 jyh081014. 미출판 자료.
- 조용환 (2008b). 기오재 공동학습자료 jyh081028. 미출판 자료.
- 조용환 (2009).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용환 (2011a). 질적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 조용환 (2011b). 다문화교육의 교육인류학적 검토와 존재론적 모색. 교육인류학 연구, 14(3): 1-29. 한국교육인류학회.
- 조용환 (2012a).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조용환 외,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pp. 3-15.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 조용환 (2012b). 교육의 본질에서 본 공교육 개혁의 의미. 조용환 외,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pp. 19-34.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 조용환 (2012c).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한국교육인류학회.
- 조용환 (2012d). 기오재 공동학습자료 jyh121023. 미출판 자료.
- 조용환 (2012e). 기오재 공동학습자료 jyh121106. 미출판 자료.
- 조용환 (2013a). 기오재 공동학습자료 jyh130514. 미출판 자료.
- 조용환 (2013b).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질적 연구. 교육과 복지: 조우 혹은 탈경계, pp. 3-27. 한국교육인류학회 2013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조현명 (2012). 수학공부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내러티브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최슬기 (2011). 목회자 자녀의 자기탐색을 위한 노래심리치료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8(1): 17-42.
- 하영유 (2018). 침묵의 의미와 주체성 형성: 미술교육의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한승희 (2004). 평생교육론: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황정규 외 (1998). 교육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Buber, M. (1923). *Ich und Du*. 표재명 (역) (1977).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 Buber, M. (1943/1982). *Das Problem Des Menschen*. Verlag Lambert Schneider·Heidelberg. 윤석빈 (역) (2007). 인간의 문제. 서울: 길.
- Clandinin, D. J. (Ed.) (2007).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강현석·소경희 외 (역) (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경기: 교육과학사.
- Edwards, S. D. (2001). *Philosophy of Nursing: An Introduction*. 공병혜·홍은영 (역) (2004). 돌봄과 치유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Freire, P. (2000). *Pedagogy of Hope*. NY: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교육문화연구회 (역) (2002). 희망의 교육학. 서울: 아침이슬.
- Fromm, E. (1976/1978). *To Have or to Be?*. NY: Harper & Row Publishers. 최혁순 (역) (1988). 소유냐 존재냐. 서울: 범우사.
- Gadamer, H. G. (2003). Schmerz: Einschätzungen aus medizinischer, philosophischer und therapeutischer Sicht. 공병혜 (역) (2005). 고통: 의학적, 철학적, 치유적 관점에서 본 고통. 서울: 철학과 현실사.
- Gatto, J. (1992). *Dumbing Us Down: The Hidden Curriculum of Compulsory Schooling*. 김기협 (역) (2005). 바보 만들기. 서울: 민들레.
- Heidegger, M. (1927/1979). *Sein und Zeit*. 이기상 (역) (1998).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 Husserl, E. (1910/1911). 현상학의 근본 문제. 미출판 자료.
- Husserl, E. (1911).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이종훈 (역) (2008).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 서울: 지만지.
- Jung, C. G. (1920). *Collected Papers on Analytical Psychology*. 김성환 (역) (2016).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경기: 연암서가.
- Levinas, E. (1947a/1963). *De l'existence à l'existant*. 서동욱 (역) (2003).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 Levinas, E. (1947b/1979). *Le temps et l'autre*. Fata Morgana. 강영안 (역) (1996).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 Levinas, E. (1974).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김연숙·박

- 한표 (역) (2010). 존재와 다르게: 본질의 저편. 서울: 인간사랑
- Scheler, M. (1923).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조정옥 (역) (2006).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서울: 아카넷.
- Strasser, S. (1985). *The Idea of Dialogal Phenomenology*. Duquesne University. 김성동 (역) (2002). 현상학적 대화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Tournier, P. (1967). *The Healing of Persons*. Illinois: Good News Publishers. 권달천 (역) (2002). 인간 치유. 서울: 생명의 말씀사.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Canada: Univ. of Western Ontario. 신경림·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녘.
- Wolcott, H.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Abstract

Phenomenological Lived Experience Research on Healing Dialogue

Jo, Ji-hye

Major in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Jo, Yong-Hwan, Ph.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qualitatively understand the lived-experiences in dialogues with three married women in the fellowship of christian faith from 2013 to 2018. The study considers the meaning of the dialogues from a educational point of view. In the process of reflecting the encounter with the three women in my personal life, I have studied how the meaning of healing, dialogue, and education are related in depth.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 of the dialogues with the participants? Second, what i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und in the lived-experiences in dialogues?

I describe the dialogues, which led participants to discover and understand the origin of their inner pain, and analyze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it. Through this, I have found the essential meaning

of 'healing dialogue'. In addition, I consider that how the dialogues has implications for the ontological foundation of education. From 2015, I have carried out the work on restoring the lived-experiences shared with the participants between 2013 to 2015. By restoring the dialogues in the past through the researcher's retrospective daily record, and having an individual interview with each participant, I could describe the dialogues qualitatively in the context of their life stories. Then, I analyzed the meaning of these dialogues by applying the concepts of phenomenology. Through the process of the thick description and phenomenological analysis, I provisionally conceptualized the dialogues as 'healing dialogue' which finds an origin of a deep wound.

I have come to understand the depth of 'personal relationality' through dialogues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in searching the internal relevance between the inner healing and dialogues. The essence of education is realized by relation in the fundamental existence, which is the encounter between subject and the other. Therefore, dialogue and education share the ontological foundation. In the course of shedding new light on 'healing dialogue' into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I could consider the meaning of the 'subject-other' realized through the intentionality of educational human formation.

The process of 'healing dialogue' is built upon the interest and care towards 'the other' on the basis of 'personal relationality'. Interest to 'the other' lead to attention and awareness of the inner pain that shape the emotions and atmosphere of the other. Respecting the 'temporality' of waiting and hesitation, and through deep dialogues, 'the other' could open her wounded 'existence'. At this time, the listener tri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other' by responding to her who confessed the wound. The response to the confession of the wound was expressed as an empathic listening based on love. Through such a dialogue of confession and response, 'the other' could express her inner pain and

was embraced by the listener as the way she is. By the confessional narrative of the life story, she acquires the 'hermeneutic' 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und and the past deeply. By discovering new meanings and values in her broken 'existential themes', healing dialogue could result in inner healing and recovery. In the field of education, it is worthwhile to explore the process of healing dialogue that builds up the hermeneutic ability in the life, and reestablishes oneself in relationality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I researched the characteristics of 'healing dialogue' from the five aspects of innerness, depth, narrative, empathy, and ethics. I found out how each characteristic implies the essence of education. In education that pursues qualitative changes inside of peopl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a learner's inner world in depth. In addition, a teacher is in a position to assist the learner so that the learner can construct an integrated narrative about his/her existence and life. Based on empathy and emotional care for the fragile existence of human beings, the teacher can carry out educational activities. Furthermore, the teacher understands and cares for the broken existential themes of the learner and through forming personal and ethical relationships.

In this way, the education focused on inner healing is based on 'personal relationality' between a teacher and a learner. The teacher helps the learner to develop the ability of understanding his/her existence and life. This education is performed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essentials of dialogue. The education and the dialogue are activities that 'the subject' and 'the other' participate in each other's existence. By understanding his/her existence in 'personal relationality' and recovering the broken existential themes, the learner can attain the holistic growth as 'personal subject-other'. In essence, education bears a relation to the ontological intentionality of dialogue to realize the value of love based on personal relationality.

Keywords: inner healing, dialogue, lived experience, healing dialogue, personal relationality, ontological intentionality.

Student Number: 2006-21687